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金 呂 珠 教授指導
博士學位 請求論文

星湖 李瀾의 詩世界 研究

2021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盧 允 淑

星湖 李瀾의 詩世界 研究

金 呂 珠 教授指導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1年 4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盧 允 淑

認 准 書

盧允淑의 博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21년 4월

審査委員長	윤준경	
審査委員	이 의 강	
審査委員	이 동 재	
審査委員	신 영 주	
審査委員	김 여 주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星湖 李瀼(1681~1763)은 조선 후기 문화의 절정기인 18세기를 살면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변화의 조짐을 읽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학문 탐구에 일생을 바친 근기남인 실학과의 중심인물이다. 이익은 17세기 조선 후기 近畿南人 계열의 집안에서 태어나 兩亂 이후 남인과 서인의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아버지 李夏鎭과 仲兄 李潛을 잃고 이로 인하여 관직의 길을 접고 재야 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는 평생 동안 무한한 호기심과 학문적 열정을 바탕으로 저작 활동과 교육에 전념하였으며 『四書疾書』, 『星湖僊說』, 『藿憂錄』과 문집 『星湖全集』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이익은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철학, 역사, 문학, 정치, 사회, 지리, 자연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經世致用의 實學을 개진하여 후대의 실학자들이 학문적 지평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시작점을 열어주었다는 것으로 그의 학문적 성취와 업적을 가름할 수 있다.

그동안 이익의 업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된 연구들이 사상과 철학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문학적인 면 특히 시문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것이 성호 이익에 대한 후대의 평가에 비하여 문학론이나 海東樂府 등의 작품에 대한 분석이 있었음에도 시문학 전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익의 문학 작품 중에서도 시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분석을 통해 이익의 학문적 다양성이 시문학을 통해 어떻게 전개되어 졌는지, 기존의 실학적 연구와 다르게 시문학적 감성이 어떠한 특징으로 드러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익은 관직에 나가지 않고 평생 학문에 매진하였으며 스스로 시인임을 자처하지는 않았으나 『星湖全集』에는 631제 1,178수에 이르는 많은 한시

가 남아있다. 이를 통해 그가 평생에 걸쳐 작시하였고 시를 통해 감정을 표출하며 사람들과 마음을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작품을 통해 그가 시적 감성을 뛰어나게 표현하였으며 시적 표현을 매우 중시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익의 시문학과 시세계를 다각도로 고찰한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星湖全集』에 수록되어 있는 개별 시 작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조선 후기의 시대적 배경과 이익의 생애를 밝히고 시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교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변화의 과정에서 인간 이익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았다.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의 문학관을 분석하였으며 經世的 效用에의 중시, 事實에 기반한 現實지향, 自主 意識의 발현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학자로서 의식의 기본 바탕을 조선 시대를 관통해 온 채도주의를 통한 경제적 효용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뜻, 진실을 전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리고 시대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현실에 중심을 두고 창의적으로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주적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역사와 우리 땅, 우리 것에 대한 주체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시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만시에 드러난 의식의 지향과 교류시에 나타난 의식, 일상에의 관심과 자의식의 발현, 산수경물에 대한 애호로 구분하여 시작품을 분석하였다.

挽詩는 주변 인물들의 죽음에 대한 시로 이를 통해 인간적인 교류와 더불어 그 안에 드러나는 이익의 의식의 지향을 살펴보았다. 처사로서의 삶을

살며 드러나지 않는 초야에 있는 眞儒를 드러내 주고자 한 그의 의식과 儒仙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교류시를 통해 백성을 생각하는 선비의식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교류를 통한 인간적인 감정 속에는 그의 전아한 그리움의 표현이 담겨 있다.

日常에의 관심과 自意識의 발현에서는 시 안에 있는 이익의 현실 인식과 선비정신, 일상의 자의식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재야의 삶에서 자신의 불우함을 다독이며 학문에 매진하고 스스로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는 인간적 성숙의 과정이 시를 통해 펼쳐지며 우화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확인하였다. 일상의 자의식에서는 지식인으로서 농촌 백성들의 가난과 고통을 직접 겪으며 시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을 안타까워하는 그의 애민의식이 드러난다. 이는 주위에 대한 진지한 관찰을 통한 영물에 담겨있는 현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학의 문학적 반영으로 드러나고 있다.

山水景物에 대한 애호에서는 자연을 소재로 한 시를 중심으로 그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시적 표현을 살펴보았고, 이를 東國勝景에 대한 자궁과 詩畫一如의 추구로 정리하였다. 이익의 시에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지명이 작품으로 드러나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우리 것에 대한 자주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다양한 감각과 회화적 표현을 통해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서 그의 시적 면모가 드러나 있다. 자주적 의식을 바탕으로 사실을 눈에 보이듯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가 싹트는 시대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익의 시는 그 이전의 시대를 이어주며 후대에 박지원의 ‘조선풍’, 다산의 ‘조선시’ 등이 등장하게 되는데 문을 열었다는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본고는 개별 시작품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17세기 후반 재야인이자 실학자로서 삶을 살다간 인간 이익의 시세계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

았으며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시대의 변화를 이어주는 문학적 위상을 확인하였다. 이익의 문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문학가로서의 성호 이익에 대한 연구가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目 次

論文概要

I. 序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 現況 및 方法	3
II. 生涯 및 交流關係	15
1. 生涯	15
2. 交流關係	22
III. 文學觀	41
1. 經世的 效用에의 중시	43
2. 事實에 기반한 現實지향	50
3. 自主 意識의 발현	58
IV. 詩世界	67
1. 挽詩에 드러난 意識의 지향	69
1) 眞儒의 발굴	78
2) 儒仙에의 동경	87
2. 交流詩에 나타난 意識	92
1) 愛民의식의 발로	99
2) 典雅한 그리움의 표현	106
3. 日常에의 관심과 自意識의 발현	112

1) 現實認識과 선비정신의 표출	114
2) 日常의 자의식의 詩化	135
4. 山水景物에 대한 애호	149
1) 東國勝景에 대한 자긍	150
2) 詩畫一如의 추구	171
V. 文學史的 意義	181
VI. 結論	189
參考文獻	193
Abstract	201

表 目 次

<표1> 『星湖全集』 소재 시작품을 통해 드러난 성호 이익의 교류인물	23
<표2> 『星湖全集』 卷1 소재 만시의 형식과 대상인물	70
<표3> 『星湖全集』 卷2 소재 만시의 형식과 대상인물	71
<표4> 『星湖全集』 卷3 소재 만시의 형식과 대상인물	71
<표5> 『星湖全集』 卷4 소재 만시의 형식과 대상인물	72
<표6> 『星湖全集』 卷5 소재 만시의 형식과 대상인물	73
<표7> 『星湖全集』 卷6 소재 만시의 형식과 대상인물	74
<표8> 『星湖全集』 소재 교류시의 대상인물과 관계	92

I. 序 論

1. 研究目的

星湖 李瀼(1681~1764)은 조선 후기 문화의 절정기인 18세기를 살면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변화의 조짐을 읽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학문 탐구에 일생을 바친 근기남인 실학파의 중심인물이다.

조선 후기의 숙종 대에 정치적 대립이 극렬한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익은 近畿南人の 집안에서 아버지 李夏鎭의 유배지인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다음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모친과 함께 안산 침성리로 돌아와 仲兄 李潛의 가르침을 받아 성장하였다. 그러나 성호가 26세 되던 해 중형이 西人과의 정치적 대립 속에 역적으로 몰려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로 인하여 평생을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며 후진 양성과 저술 활동에 힘썼다. 그는 재야 학자로 지내며 『星湖僿說』, 『星湖疾書』, 『藿憂錄』, 『百諺解』와 문집 『星湖全集』 등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의 작품 속에는 선비로서의 의식, 시대에 대한 고민과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익은 『星湖僿說』에 시 비평과 관련된 글을 남겼으며, 스스로 시인임을 자처하지는 않았으나 평소 시를 즐겨지어서 그의 문집인 『星湖全集』에는 631제 1,178수에 이르는 많은 한시가 남아있다.¹⁾ 이를 통해 그가 평생에

1) 李秉休의 <星湖全集跋>에 부(賦) 5수, 시(詩) 1178수, 해동악부(海東樂府) 120수로 기록되어 있다. 김남형(1983)은 『星湖先生全集』에 부 4수, 시 631제 1104수, 해동악부 119수로 계산하고 있다. 차충환(1993)은 『星湖先生文集』과 『星湖先生續集』에 부 4수, 시 631제 1104수, 해동악부 119수로 기록하였다. 윤재환(2017)은 부 5수, 시 1178수, 해동악부 120수로 확인하였으며, 고전번역원의 『星湖全集』해제에도 같은 수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李秉休와 고전번역원의 기록인 시 1178수를 따랐다.

걸쳐 作詩를 하였고 시를 통해 감정을 표출하였으며 사람들과 마음을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星湖全集』에 수록된 서간문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학문적 논의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를 통해서 그의 사상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그의 감정과 교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기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여러 인물과의 시적 교류를 통해 그의 다양한 교류 양상에서 드러나는 인간적인 면모와 개방적 사고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이익의 사상적, 철학적 논의를 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특히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개혁 사상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연구 성과물이 나와서 經世致用의 實學者로서 위치는 이미 학계에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학과 관련된 연구는 그의 명성에 비하여 소략한 편이다. 기존의 문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주로 『星湖僊說』을 중심으로 문학관, 비평가로서 연구가 위주로 되어있다 보니 그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한 연구, 특히 시문학 관련 연구의 성과는 매우 적다.

본고에서는 그의 『星湖全集』에 수록된 문학 작품 중에서 시를 통한 정서의 표현을 고찰함으로써 이익의 기존의 모습과는 또 다른 면모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의 시세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시적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익의 시인으로서의 역량과 그의 시의 전모를 알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익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만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의식과 감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교류시, 현실에 대한 수용과 일상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 시, 산수 경물의 자연에 대한 시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이익의 학문이 가지는 의미는 성리학의 내면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당시 사회경제적인 현실에 대응하여 일정한 경제의 방법을 제시하며 비교적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사유 방식을 가졌다는 것과

종래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화이관(華夷觀)에서 벗어나 문제를 사유했다는 점에 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점들이 문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며 시 작품 속에서 펼쳐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전통 유학자로서의 면모와 변화하는 시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의식의 흐름, 선비로서 당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모색, 예술과 자연에 대한 의식 등이 시에 있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더불어 그의 시적 감성이 어떠한 특징과 감각으로 표현되는지 함께 보려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성호 이익의 시세계를 고찰하여 그의 삶과 문학을 통해 드러난 문학가이자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조명하여 문학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研究 現況 및 方法

星湖 李瀾과 관련된 연구사를 살펴보면 주로 사회 개혁, 사상, 철학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시문학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비한 편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익과 관련된 초기 연구는 대부분의 실학 연구와 같이 주로 사회 개혁론과 관계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에는 실학의 형성 배경부터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까지 연구가 확대되었으며 다른 실학과 인물과 비교연구를 통해 이익의 독자적인 면모를 드러내는데 주력하였다.

사상·철학과 관련된 연구는 이익의 사회개혁론에 근거한 철학적 기반을 찾는 데에서 진행되었으며, 『四書疾書』를 중심으로 경학관이 연구되었다. 이익의 경학관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실증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실생활에 유용한 經世致用적 시무 경학을 강조하여 이익의 경학이 실학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조선의 독자적인 경학시대를 열었고 근대로의 지향의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익의 철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되는데 그가 강한 실학적 지향을 보인다는 입장, 실학적 입장 못지 않게 주자학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 아직도 주자학에 머물러 있다는 입장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연구가 있다.²⁾

이익의 가계, 학파, 학풍을 주로하는 연구에서는 근기남인에 관련된 연구와 ‘성호학파’에 대한 연구가 있다.³⁾

원재린(2001)⁴⁾은 숙종대 후반에 형성되어 영·정조대 걸쳐 학문 활동을 전개한 ‘성호학파’를 검토하여 근대적 학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진보적 사대부 지식인들의 사상적 대응과 의의를 구명하였다. ‘성호학파’는 이익을 宗師로 하여 17세기 북인계 남인의 사상 전통을 계승하며, 兩亂을 거치면서 한계를 드러낸 주자학을 검토하고 당대 조선의 현실에 적합한 학문과 사상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전 修己의 도덕 실천보다 保民과 安民을 목표로 한 사회적 실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경전 공부를 위해 획득한 지식을 현실에 적극 활용했다고 하였다. 성호 문인들의 다양한 학문 활동이 역사, 인문지리, 정치, 경제학 등으로 분화되어 각기 성과를 이

2) 秋制協, 「近畿 退溪學의 形成에 關한 研究- 星湖 李瀾의 性理說을 中心으로-」, 계명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5-12면. 참조. 사상·철학과 관련하여 한우근(1980)의 『星湖 李瀾 研究』, 김용걸(1989)의 『성호 이익의 철학사상 연구』, 송갑준(1989)의 「성호 이익의 철학연구」, 강경원(2000) 「星湖 李瀾의 四書疾書 研究」, 최정연(2016)의 「성호 이익의 성리학 : 퇴계 이학(理學)의 비판적 계승과 서학의 수용」 등이 있다.

3) 유봉학, 「18세기 남인 분열과 기호남인 학통의 성립 - 『동소만록』을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I, 1983; 이순자, 「18세기 畿湖南人에 대한 一考察 : 星湖와 順庵을 中心으로」, 숙명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4) 원재린, 「조선후기 성호학파의 형성과 학풍」, 연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루어 18세기 이후 성호학파는 근대 학문과 사상을 확립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정약용 등 지식인들에게 계승되어 한국의 개혁사상으로 자리매김 한 점에 의의를 두었다.

윤재환(2013)⁵⁾은 근기남인 계열의 대표 학자로 인정되는 성호 이익의 학문 형성과정과 근기남인 계열 학맥 속에서 이익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근기남인의 학맥이 번암 체제공에 의해서 퇴계 이황에서 미수 허목을 거쳐 성호 이익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설정에는 학문적 영향 관계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학문 외적인 의도가 강했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근기남인 계열에서 이익의 학맥이 세 종류의 계열로 나누어지는데 이 역시 서학의 수용으로 인한 정치적 탄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근기남인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이익의 학맥과 실학자로서의 그의 위치를 정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꾸준한 성과가 있었다.

성호 이익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星湖僊說』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詩文門〉을 통하여 문학관, 비평가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문학 관련 연구는 문학관에 대한 연구, 비평에 대한 연구, 시문학에 대한 연구, 해동악부에 대한 연구로 살펴볼 수 있다.

문학과 관련하여 성호 이익의 詩論과 관계된 초기의 연구로는 최박광(1978)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성호 이익의 시론-실학과 문학관의 일단-」에서 이익 시론의 핵심을 창조성, 회화성, 사실성으로 정리하였다. 이익이 전개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시 이론은 실학과 문인인 박지원, 정약용 등에게 영향을 주었고 특히 다산 정약용에게 그대로 전해져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중국중심적인 한시론에서 벗어나 우리 전통의 한시 이론을 개척하였으나 나아가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의미를 두었다.⁶⁾

5) 윤재환, 「조선 후기 근기 남인 학맥 소고」, 『국문학논집』 제21집, 「근기 남인의 학통의 전개와 성호학의 형성」, 『溫知論叢』 No.36, 온지학회, 2013.

6) 최박광, 「성호 이익의 시론」,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9.; 최박광, 「성호 이익의 시론-실학

시평에 대한 연구에서 이세현(1991)⁷⁾은 「星湖僊說에 나타난 李瀼의 文學論 연구」에서 『星湖僊說』의 성격과 「詩文門」의 구성을 살펴 「詩文門」에 나타난 문학론을 시론, 문론, 평론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익 문학론의 비평학적 의의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익은 시문의 본질을 효용성에 바탕을 둔 文以載道の 風教에 두면서 당시의 시대적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실개혁 의지를 표출하는 방법이자 수단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이익의 문학론이 실학과 인물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 특히 다산 정약용에 이르러 더욱 구체화 되었으며 우리 전통에 기반을 둔 문학이론의 개척을 시도하고 우리 문학의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는데 의미를 두었다. 비평에 있어서도 시 내용과 감상에 주력하는 감상비평과 학시의 원류와 미의식의 근원을 찾아 작가와 작품을 비평하는 실증비평을 취하여 실학자와 유학자로서 적합한 비평 방법을 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허윤진(2018)은 「星湖 李瀼 시 비평 연구」⁸⁾에서 그동안 실학의 측면에서 연구되어 온 『星湖僊說』을 시 비평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星湖僊說』 〈詩文門〉의 비평문 중에서 詩賦를 대상으로 한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이익이 어떠한 것을 진정한 고전으로 보았는지에 대하여 성찰하고 그가 시에 드러난 ‘뜻’을 중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문학사에 대한 고전주의적 가치평가, 자국시에 대한 객관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이익이 『詩經』, 屈原의 작품, 〈古詩十九首〉 같은 작품들을 동아시아의 진정한 고전으로 평가하고, 자국시의 역사도 객관화 하여 한계와 성취를 비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과 조선의 문학사적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과 문학관의 일단」, 『우리문학연구3』, 우리문화회, 1978.

7) 이세현, 「星湖僊說에 나타난 李瀼의 文學論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8) 허윤진, 「星湖 李瀼 시 비평 연구」, 『퇴계학논집』 No.22, 영남퇴계학연구원, 2018.

이러한 이익 문학의 비평론적인 입장은 이익의 문학에 대한 입장을 입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으며 객관적 비평가로서의 이익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다.

이익 시문학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김남형(1983)⁹⁾이 문학론을 바탕으로 시세계를 다루었다. 김남형은 「성호 이익의 문예의식과 시세계」(2004)에서 문예의식을 ‘문학의 현실적 효용 강조’와 ‘사실 지향적 창작론’으로 분석하고 작품을 개괄하여 시세계를 ‘현실에서의 좌절과 갈등’, ‘자기 정체성의 확립과 의식의 현실지향’으로 나누어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성호 이익이 조선 전기의 사림과 문학관에서 벗어나 현실적 효용에 중점을 두고 문학의 존재 의의를 파악하였으며, 문학과 사회 현실과의 유리현상을 극복한 점에 의의를 두었다. 그리고 시 창작에 있어서 ‘자아를 성찰하는 모습’, ‘지식인의 시각으로 현실의 문제를 조명한 작품’으로 나누어 시세계를 분석하여 조선 후기 지식인으로서의 갈등과 극복의 과정을 추적하였다.

차충환(1993)¹⁰⁾은 「성호 이익의 문학연구」에서 이익의 세계관, 문학관, 시세계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이익의 객관적, 구체적인 사물인식 태도로 인하여 현실중심적 학문관으로 진행되었고 학문의 탐구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실천이라는 실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문학관에서 재도주의와 사실중심적 문예의식을 기본 관점으로 제시하고 시세계를 ‘자연친화 의식’과 ‘심정의 진솔한 표현’과 ‘현실대응의 자세’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당대 현실의 문제점을 문학 작품 속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이익의 문학론이 창작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후배 실학파인 연암과 다산에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익의 문학관과 시세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작품세계 분석에 있어서 소

9) 김남형, 「성호 이익의 문예의식과 시세계」,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성호이익시선』, 예문서원, 2004.

10) 차충환, 「성호 이익의 문학연구」, 경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략한 측면이 있다.

성호의 문학론을 근기남인의 한사람으로 성호학문의 맥락과 결부하여 유기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시도로는 윤재환(2012)¹¹⁾의 연구가 있다. 조선 후기 근기남인의 시맥 형성부터 흐름, 문학사적 의미, 성호 이익의 시론과 시세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는 「시론과 시세계의 상관관계」(2008)¹²⁾에서 성호와 다산의 田家詩를 중심으로 시가 사회교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시론과 각각의 시세계를 규명하여 창작과 실천에 있어서 시가 생활과 유리되지 않는다는 조선 후기 근기남인의 문학론과 창작의 지향을 보여주었다. 「星湖家 文學의 美意識」(2011)¹³⁾에서는 매산·섬계·성호를 중심으로 성호 이익의 가계 내에서 창작된 문학 작품 속의 미의식을 살펴보았다. 그는 이익 시에 드러난 미의식을 挽詩에 드러나는 숭고미와 비장미, 田家詩에서의 절제된 우아미로 보았으며, 세 사람의 공통된 근본적 미의식이 도덕적 효용론의 도덕미, 감정의 절제라는 묘사 방법과 비장미로 정리하여 조선 후기 문학 작품이 가지는 성격상의 유사성을 찾고자 하였다. 「성호 이익의 시론과 성호학」(2017)¹⁴⁾에서는 이익의 詩論을 그의 학문의 맥락과 결부하여 유기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시 창작의 대표적 방법인 독창성은 창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형상화의 방법이 아니라 한 편의 시가 만들어 내는 작가의 의경과 감정 또는 시의 내용이었다고 보았고, 사실성 역시 실질적인 형상화의 방법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라고 보았다. 이익의 시론이 구체적인

11) 윤재환, 『조선 후기 근기 남인 시맥의 형성과 관계』, 문예원, 2012.

12) 윤재환, 「시론과 시세계의 상관관계-성호와 다산의 전가시를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 Vol.52, 한민족어문학회, 2008.

13) 윤재환, 「星湖家 文學의 美意識-매산·섬계·이익을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No.49, 동방한문학회, 2011.

14) 윤재환, 「성호 이익의 시론과 성호학-시론 내적 간극의 해명과 성호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동방한문학회, 2017.

창작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사실적 묘사라는 창작 방법에 대한 고민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이익의 시론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다음 세대를 위한 문을 열었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성호 이익의 학문과 시론, 시세계의 상황관계에 대한 연구는 성호의 시론을 정립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김동준(2012)은 「星湖 李瀾의 詩文學 研究」¹⁵⁾에서 한시 작가로서의 성호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이익의 문학비평과 창작 상의 실제 태도를 개괄하였다. 시를 ‘뿌리와 종족 그리고 가족’,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 그리고 현실을 향한 시선’, ‘흐르는 세월, 그리고 시와 인간의 길’로 나누어 작품 분석과 함께 개략하여 이익 자신의 비평에 걸맞은 한시 작가로서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그동안 작가로서의 연구가 미진했던 이익에 대한 문학적 연구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작품을 분석한 성과로는 일부 주제별, 형식별 작품을 중심으로 시세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신두환(1990)¹⁶⁾은 「성호 이익의 戲作詩, 寓話詩의 고찰」에서 이익의 문학관을 고찰하고 ‘戲作을 통한 자아 각성’과 ‘우화형식을 통한 정치풍자’로 나누어 작품 분석을 진행하여 회작시와 우화시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익의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여 풍자함으로써 사회 현실의 부조리를 혁파하고 낡은 습관이나 폐단을 벗어나 바람직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점과 실학적 문학의 전환을 주도한 진보적이고 독창적인 문학론으로 후배 실학파인 다산에게 이어져 조선시의 모태가 되고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었다.

김재룡(2012)은¹⁷⁾ 「성호 이익의 시 창작론 연구」에서 매화시를 중심으로

15) 김동준,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시문학(詩文學) 연구(研究)」, 『한국한시작가연구』 Vol.16, 한국한시학회, 2012.

16) 신두환, 「성호 이익의 회작시, 우화시 고찰」,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로 작품을 분석하여 시 창작법의 특징을 회화적 표현, 우의와 상상의 공간 활용, 모방과 신의로 정리하고 성호 이익의 개성적 표현미를 추구한 창의력이 담긴 시를 높이 평가하면서 모방의 표현 기법인 환골탈태가 가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다고 보았다.

「海東樂府」를 위주로 진행한 연구로는 박명희(1992)¹⁸⁾의 「이익의 해동악부 연구」가 있으며 해동악부의 연원, 생성 배경과 120편의 작품 개관을 통해 해동악부에 나타난 작가 의식을 중심으로 이익의 악부관을 고찰하였다. 이익이 해동악부를 생성한 배경에 대하여 조선 악부의 실험적 정신의 수용, 근체시의 한계를 넘어선 자유로운 감정 표출, 반중화주의 세계관의 확대에 대한 자주적인 역사의식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해동악부에 작가의 객관적인 현실 인식과 체계화된 역사의식으로 인하여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역사의식 태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이익의 자주적인 역사의식이 후대의 영사악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면서 그의 악부관과 위상을 정리하였다.

이외 정은진(2010)¹⁹⁾은 「성호 이익의 ‘삼두회’ 소고」에서 이익의 친족 모임인 ‘삼두회’의 결성 배경과 운영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이익이 士의 신분으로 콩을 즐겨 먹는 검소한 생활을 중시하였고 이 안에 담겨있는 그의 자기점검과 자기각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삼두회가 성호의 실학 정신이 드러나는 자리이자 실천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하며 생활 실학으로서의 의미와 정신을 드러내었다.

위에서 살펴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이익의 문학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주로 『星湖僿說』을 기반으로 하여 문학론 혹은 문예 의식과 비평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 시 작품 분석을

17) 김재룡, 「성호 이익의 시 창작론 연구」, 『어문론집』, 중앙어문학회, 2012.

18) 박명희, 「李瀾의 海東樂府 연구-작가 의식을 중심으로-」, 전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9) 정은진, 「星湖 李瀾의 三豆會 小考」, 『한국어문학연구』 25, 2010.

통한 시세계 연구에 있어서는 해동악부와 주제별 몇몇 시 작품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개별 시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익의 문집인 『星湖全集』에 소재하는 시에 대한 시세계의 논의는 매우 지엽적이어서 이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시세계에 집중하여 이익의 문학의식과 그 특징을 추출해서 그의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드러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서론에서 연구목적을 밝히고 선행연구사를 검토하며 기존 연구에 대하여 정리하고 본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II장에서는 이익이 살았던 17세기~18세기 조선 후기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의 생애와 시적 교류를 통한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정치 사회적 변화의 과정에서 인간 이익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본다.

III장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의 문학관을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그의 유학자로서 기본적인 바탕 위에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고민과 의식의 변화 속에 담겨있는 문학적 관점을 『星湖僊說』의 〈詩文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V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시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시적 특성을 고찰해 보려한다. 그 내용을 주변 인물들의 죽음에 대한 挽詩, 타인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交流詩, 일상에의 관심과 자의식의 발현을 주로 드러내고 있는 시, 산수경물에 대한 시로 구분하여 시세계를 분석한다.

이익이 살았던 조선 후기는 정치적 혼란함과 새로운 학문의 유입으로 사대부 의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익은 정치적 대립 속에서 집안의 화를 겪으며 관직의 길을 떠나 안산의 성호장에서 칩거하며 재야학자로서 학문과 후학양성, 저술 활동에 매진하였다. 이익은 농촌에서 직접 백성의 고단한 삶을 느끼며 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여 저술 활동을 통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는 학문이 實學이며 이러한 입장이 그의 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한다.

1절에서는 이익이 많은 이들과 주고받은 교류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할 것이다. 상당한 양의 만시가 남아 있어 죽음에 대한 시를 통해 고인과 작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떻게 그가 그토록 많은 만시를 썼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이익의 의식의 흐름을 찾자 한다.

2절에서는 임지로 떠나는 이들, 벗과의 교류에서 드러나는 의식과 표현의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다양한 인물들과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교류를 맺었는지 시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 이익이 추구한 삶의 모습을 찾고자 하였다.

3절에서는 일상에 대한 관심과 자의식의 발현이 어떻게 시로 구체화 되어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현실을 중시한 그의 학문적 태도와 더불어 현재의 삶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과 현실 인식이 어떠한 형태로 시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겠다. 농사에 대한 관심과 시의 소재 등에 있어서 일상에의 관심을 밝혀서 실학적 사고의 편린을 살펴본다.

4절에서는 山水景物에 대한 의식과 감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시 속에서 자연에 대한 그의 의식과 아름다움이 어떠한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특히 기존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우리 것을 중심으로 하는 자주적 의식이 우리 땅과 자연을 소재로 한 시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의 문학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았다.

이러한 성호 이익의 시작품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접근을 통해 그의 인간적인 감성과 시인으로서의 의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V장에서는 그의 개별 시작품을 통해 드러난 17세기 후반 재야인 이자 실학자로서 삶을 살다간 인간 이익의 시세계의 특징을 통해 문학사적 의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VI장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이제 성호의 문집과 판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호의 저작 중 『星湖僊說』은 성호 이익의 문답집을 엮은 저술로 그의 실학사상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²⁰⁾

문집인 『星湖全集』은 이익 문학의 집성으로 이익의 사후에 遺集은 원고가 탈고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고의 산일을 염려한 조카 李秉休와 門人 安鼎福이 1772년부터 저자의 문집을 분류, 繕寫하여 1774년에 70권 40책의 분량으로 정리하였으며 『星湖先生文集(李秉休本)』은 이후 나오는 刊本과 寫本의 바탕이 된다. 그러나 간행이 실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후손가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병휴본이 화재로 2책이 소실되어 38책이 되었고 이후 목록과 부록, 권차를 조정하여 27책의 修堂刪定本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저자의 종7대손인 李德九의 집에 보관되어 있다가 1917년 밀양의 퇴로리 서고정사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이 『星湖先生文集(퇴로본 初刊本)』은 이익의 문집이 최초로 간행된 초간본이다.

당시 퇴로본의 간행이 진행되는 동안 1922년 밀양 사포리 모림당에서 『星湖先生全集(모림당 重刊本)』으로 원집 68권 36책을 다시 목판으로 중간하였다. 다시 간행된 이유는 퇴로본이 지나치게 산절되어 저자의 본지를

20) 『星湖僊說』은 백과사전류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人事, 天文, 經史, 萬物, 詩文 등으로 분류하여 각 부분에 대하여 제자들과 응답한 내용을 적은 것이다. 필사본으로 유통되다가 1967년 경희출판사에서 영인본으로 출판되었다. 성호사실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인 『星湖先生僊說』로 1967년 영인본으로 출간되었고, 1976년 출간된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용 대본으로 쓰였다. 사설의 번역본으로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國譯星湖僊說』 11권이 있다. 『星湖全集』 한국문집총간 해제 참조. 본고의 원문은 1967년 영인본, 번역문은 국역본에 수록된 번역문을 인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수정·가감했음을 밝혀둔다.

없었다는 이유였으며, 모림당본은 퇴로본에 비해 序, 雜著, 題跋 부분이 추가되어 9책이 더 늘어 내용이 약 40%이상 증가하여 全稿收錄의 의미가 있다.

이 두 종류의 간본 외에 사본으로 校正稿本이 있는데 전래는 분명치 않으나 모림당본의 간행을 위해 이병휴본을 전사 교정한 것이므로 모림당본은 현재 남아있는 저자의 문집 중 가장 내용이 풍부하다. 한국문집총간의 저본은 1922년 모림당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중간본으로 규장각본이다. 이후 1984년 여강출판사에서 퇴로본 외에 필사본으로 남아있던 저작을 모아 『星湖全集』을 영인하였다.²¹⁾

본고는 『한국문집총간』 권198-199에 수록된 의 『星湖全集』을 저본으로 하였다. 이는 1922년에 중간된 원집 68권, 부록 2권의 『星湖先生全集』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국역본은 고전번역원의 『國譯星湖全集』이 있다.²²⁾ 『國譯星湖全集』은 이익의 조카 이병휴(李秉休)가 수집·정리해 둔 원고본을 대상으로 하여 1922년에 중간된 원집 68권, 부록 2권의 『星湖先生全集』을 국역한 고전번역원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다. 본 논문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나온 『國譯 星湖全集』을 따르되 서술의 편의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정·가감하였음을 밝힌다.

21) 강세구, 「『星湖先生全集』에 관한 일고찰」, 『민족문화』, 한문고전번역원, 2017, 188-189면.; 『星湖全集』 한국문집총간 해제 참조.

22)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國譯星湖全集』을 인용하였으며 해석상의 오류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필요에 따라 수정·가감했음을 밝힌다. 번역의 성과는 논문 전체 큰 참고가 되었으나 가독성의 편의를 위하여 여기서 일일이 주석으로 달지는 않는다.

II. 生涯 및 交流關係

1. 生涯

李瀾(1681~1763)의 자는 子新이고 호는 星湖, 본관은 驪州이다. 1681년(숙종 7년) 10월 18일에 태어나 1763년(83세, 영조 39년) 12월 17일, 83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으며 평생을 재야 학자로서 독서와 저술, 교육으로 보냈다.

조선 사회는 두 차례의 양란을 거치면서 중세사회의 여러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양반지주층의 대토지 겸병과 그로 인한 소농경제의 파탄이 초래되었다. 사회적으로는 농민층의 분해와 양반층의 분화로 일부 양반의 몰락에 따른 신분제 해체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경제 분야에서 발생한 모순과 갈등은 양반지배층 내부의 정치적 대립을 가져왔다. 두 차례의 전란을 통해 드러난 국가 운영체계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재건의 방식을 두고 양반 사대부층의 갈등이 고조되었던 것이다.²³⁾

성호 이익이 생존했던 시기는 양란을 겪으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가체계와 위기상황에 대하여 각 당파 간에 사상적·정치적으로 치열하게 대립하던 시기였다. 숙종 6년(1680년) 庚申大黜陟을 계기로 남인 계열의 학자들은 중앙 정계에서 완전히 물러가고 노론 중심의 정국이 형성된 이후의 시기이다. 이러한 때에 성호 이익은 근기남인 집안에서 태어나 재야의 지식인으로서 당시의 정치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와 민생

23) 원재린, 앞의 논문, 서론.

의 안정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남인은 인조반정 이후 서인과 연립정권을 형성하며 중앙정치에 참여했다. 남인은 퇴계 이황을 학문적 근원으로 하고 미수 허목(許穆, 1595~1682)을 개조로 삼았으며 처음에는 동인에 속하였으나 선조대 남인과 북인으로 분당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북인이 몰락하고 남인은 서인과 함께 조선 후기 정치에 참여하였다. 당시 서인 우세 속에서 남인이 견제하는 형국이었으며 남인은 현종대 甲寅禮訟에서 우위를 점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²⁴⁾

숙종 초기에 남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군권을 비롯한 많은 권력이 남인에게 있어 숙종은 이를 견제하고자 서인을 유배에서 방면하였다. 그러던 중 숙종 6년(1680) 남인의 영수인 영의정 허적이 숙종의 노여움을 받고 허적의 서자인 허견이 역모를 꾸몄다는 고변이 있자 이와 관련된 남인의 실권자들이 죽고 관직에서 쫓겨나 유배를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인이 중앙 정계에서 대거 축출되고 서인이 재등장했다. 이 庚申大黜陟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였으나 학문적, 사상적 기반 차이로 인하여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숙종 15년(1689)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의 원자 반대 상소로 인하여 서인이 정계에서 물러나고 남인이 재집권하는 己巳換局이 일어났다. 그러나 5년 만인 숙종 20년(1694) 甲戌換局 이후 藥泉 南九萬(1629~1711)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 정권이 성립되었으며, 남인은 정치적으로 배제되었다. 노론과 소론은 희빈 장씨의 처벌을 둘러싸고 대립하다가 18세기에는 노론이 정국을 장악하였고 갑술환국 이후에 남인은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 되어 숙종 대 이후에는 영남남인과 근기남인으로 나누어져 각각 자체의 학문 활동을 이루어 나갔다.

근기남인 계열은 經世致用의 학풍을 특색으로 하며 서울과 그 인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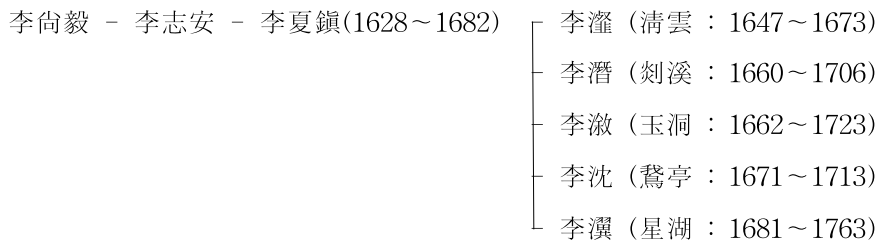
24) 정필준, 「1860~1870년대 근기남인의 내부갈등과 동향」, 서울시립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서론.

에서 활동했던 近畿 지방의 남인 학파를 말하는데, ‘星湖學派’가 그 중심에 놓인다. 번암 체재공은 근기남인 계열 학맥을 퇴계 이황 - 한강 정구 - 미수 허목 - 성호 이익 순으로 확정 지었으며 영·정조대를 거쳐 탕평정국과 연계되면서 정치·학문·사상적 정통성을 확정지었다.²⁵⁾

영조가 재위에 있는 52년 동안 ‘蕩平策’으로 인하여 정쟁은 완화되었으나 권력은 주로 노론에게 있었다. 남인은 정조가 즉위하기 전까지 정국에 참여할 수 없었다가 정조 이후 탕평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다음은 이익의 가계표이다.

『驪州李氏(仁德系)世系表』



성호 이익의 8세조인 敬憲公 李繼孫(1423~1484)부터 가문이 번창하기 시작하여 증조부 少陵公 李尙毅(1560~1624)는 임진왜란 때 정계에 출사하였고 자손들은 仕宦의 길을 계속하였다. 가문의 번창은 아버지 李夏鎭의 시기까지 계속되어 선조 23년부터 광해군 22년에 이르기까지 33인의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집안은 아버지 대에 이르러 쇠락하기 시작하여 숙종 6년 庚申大黜陟 사건으로 대사헌을 지낸 이하진도 좌천이 되고 뒤이어 평안도 운산으로 귀향을 가게 된다.

星湖 李灑은 정쟁이 격화되던 17세기 말 1681년 숙종 7년 近畿 南人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25) 윤계환, 「조선 후기 근기 남인 학맥」, 『국문학논집』 제21집, 2011, 292-293면.

아버지 李夏鎭이 귀향 가 있던 평안도 운산에서 음력 10월 18일 부친 李夏鎭과 계비인 모친 安東 權氏의 5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이하진은 전부인 용인 이씨에게서 3남 2녀, 후부인 안동 권씨에게서 2남 2녀를 두었는데 이익이 태어난 다음 해 2살 되던 해에 부친은 유배지인 운산에서 55세로 세상을 떠났다.

부친 사후 이익의 모친은 가솔을 이끌고 선영이 있는 安山 瞻星里(지금의 경기도 안산시 일동 소재)로 돌아왔다. 이익은 일생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으며 농촌 생활을 몸소 겪었다.

성호 이익은 바다에 인접한 안산지방에 있던 ‘星湖’라는 호숫가에 살았기 때문에 號로 삼았으며 물려받은 田莊도 ‘성호장(星湖莊)’이라 불렀다. 이 전장은 이익이 재야의 선비로서 평생 은둔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경제적 근거가 되었다.

이익은 어려서부터 병이 많아 공부를 늦게 시작하였으며 유년 시절이래 여주 이씨 일문의 친족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복 형들인 剡溪 李潛(1660~1706)과 玉洞 李澈(1662~1723)였다. 어린 시절부터 이잠에게 직접 지도를 받았으며 그의 문하에서 독서를 하였다. 이잠 사후에는 玉洞 李澈와 從兄인 素隱 李灑에게 지도를 받으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문 방법을 전수받았다.

이익은 타고난 성품이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家學의 학풍을 통해 모든 경전과 程子, 朱子, 退溪의 글을 두루 섭렵하여 주위의 기대를 받았다. 이후 이익은 25살 되던 해에 文科에 응시하였으나 祿名이 맞지 않는다하여 會試에 나가지 못하였다.

다음 해 이익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26세(숙종 32년, 1706년) 9월 스승이었던 둘째 형 李潛이 47세에 진사의 신분으로 세자(훗날 경종)를 모해하는 자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역적으로 몰려 杖殺 당하게 된다. 이익은 이 일로 인한 충격으로 과거를 포기하고 성호장(星湖莊)에 은둔하며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이후 33세(숙종 39년, 1713년)에 『孟子疾書』를 저술하기 시작하였으며 11월에 아들이 태어난다. 맹자를 읽고 있다가 득남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맹자의 ‘孟’과 항렬자인 ‘休’를 붙여서 ‘孟休’라고 이름을 지었다.

35세(숙종 41년, 1715년)때에 모친이 세상을 떠나 예로써 상을 마쳤다. 이후 이익은 집안에 소장되어 있던 장서에 심취하며 재야의 독서인으로 생활하면서 농촌에서 스스로 농사를 짓고 농부로서 살며 士農合一의 생활을 실천하고자 하였다.²⁶⁾

1723년(경종 3년) 43세 때 셋째 형이자 스승이었던 李滉가 62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1727년(영조 3년) 47세에 조정에서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의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나가지 않았다.

이익이 재야에서 학자로서 사는 동안 아들 맹휴는 학문에 전념하여 23세에 성균관 진사에 뽑히고, 이익 62세(영조 18년, 1742년)에는 庭試에서 장원으로 합격하여 관직이 예조정랑, 만경현령에 이르렀다.²⁷⁾

성호가 71세(영조 27년, 1751년)되던 여름에 아들 맹휴가 오랜 병고 끝에 39세로 세상을 떠나고 73세(영조 29년, 1753년)에는 역질이 퍼져 손녀가 죽어 그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였다. 이후에 가문에도 전염병이 퍼지고 사람이 죽으니 사촌과 조카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맹휴와 본인의 병을 치료하는 동안 가산을 탕진하여 경제적 기반이 기울어지게 되었다. 경제적 쇠락으로 인하여 76세(영조 32년, 1756년)에는 문인 윤동규에게 답한 편지에서 “드디어 송곳 꽃을 만만 한 땅도 없게 되었다”고 탄식하였다. 77세(영조 33년, 1757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흉년과 전염병으로 친족이 많이 죽었으며 이익의 건강 상태도 극도로 악화되었다.

26) 김용걸, 앞의 책, 14면.

27) 李滉, 『星湖全集』 卷67, 159c면, 〈亡子正郎行錄〉.(『韓國文集叢刊』 200)

79세(영조 35년, 1759년)에 문인 안정복이 『東史綱目』을 완성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서신의 왕래가 있었다. 81세(영조 37년, 1761년)에 번암 체재공이 첨성리 성호장으로 찾아와 만났으며 후에 체재공은 이익의 묘갈명을 짓는다.

83세(영조 39년, 1763년)에 국가에서 노인을 우대하는 전례에 따라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직함을 제수받았고 이해 겨울 11월에 발병하여 12월 17일에 운명하였다. 그의 가족으로는 아들 李孟休(1713년~1751년)와 손자 李九煥(1731~1784)이 있다.

이익의 학문은 철저한 유교적 기반 위에 이루어져 성현과 程朱의 저술 및 이황의 글을 읽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나 다른 한편으로 현실의 문제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경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그의 학문이 修己治人の 학문을 지향하면서도 經世的 학문과 실천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⁸⁾

평생 동안 초야에 있으면서 그의 학문적 업적은 방대하게 이루어졌고 많은 저술로 이루어져 『星湖僿說』, 『藿憂錄』, 『星湖全集』, 『四書疾書』, 『心經疾書』, 『李子粹語』, 『百諺解』 등이 남아있어 그의 학문적 열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저술을 통해 그의 학통이 전해져 ‘星湖學’으로 진행되어 문인 제자를 통해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성호 이익의 인물됨에 대하여 조카인 이병휴의 〈家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선생은 타고난 자질이 이미 바른 데다 기운은 맑고 정신은 밝으며, 성품은 엄준(嚴峻)하고 모습은 고결하였으며, 눈매가 또렷하여 영채(英彩)가 사람을 쏘는 듯하였으니, 타고난 훌륭한 자질이 진실로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 게다가 함

28) 이세현, 「성호사설(星湖僿說)에 나타난 이익(李瀾)의 문학론 연구」, 『동방한문학』 7권, 동방한학회, 1991, 151면.

양한 것이 깊고 수신(修身)이 독실하였다. 공부가 알차게 쌓이면서 덕성이 순수하고 견고해져서 뽑내는 자취는 털끝만큼도 볼 수 없었고, 엄숙한 몸가짐이 중정(中正)하여 법도에 다 맞았다. 말소리와 웃음이 화락하여 지나치게 구애받는데에 이르지 않았으며, 위儀(威儀)가 장엄하여 마치 하늘이 만들어 낸 사람 같았으니, 덕을 이룬 모습이 이와 같았다.²⁹⁾

이병휴(李秉休)는 이익에 대하여 타고난 자질이 남다르고 독실히 학문에 힘써 덕을 이룬 모습이었다 하며 그의 뛰어난 인물됨을 회상하였다.

유학자로서 이익은 평소 퇴계 선생의 학문과 인품을 존경하였으며, 그의 문인 안정복(安鼎福)은 이익을 회고하며 그의 인품에 대하여 ‘그의 뜻은 剛毅篤實하고, 德은 正大光明, 學은 精深宏博, 그 氣象은 和風景雲, 그 襟懷는 秋月冰壺’라고 하였다.³⁰⁾ 의지가 강하여 굴함이 없고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며, 덕은 바르고 커서 빛난다. 학문은 깊고 크고 넓으며, 그 기상은 따스한 바람과 상서로운 구름, 그의 품은 뜻은 가을 달처럼 맑고 빙호처럼 차고 맑다고 하였으니 이를 통해 학문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박학함과 더불어 굳센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의 맑고 깨끗한 인품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9) 『星湖全集』附錄 卷1, 178a면, <家狀 [從子秉休]> “先生稟賦既正 氣清而神朗 性峻而貌潔 眼視瞭然 英彩射人 天之篤生 固異於衆矣 加以涵揉之深 修省之篤 工夫眞積 德性純固 不見一毫矜持之迹 而齊莊中正 動合矩繩 言笑衍衍 不至太拘 威儀簡重 便如天成 其成德之容有如此也。”

30) 『星湖全集』附錄 卷2, 201b면, <祭文 [門人安鼎福]> “剛毅篤實 先生之志也 正大光明 先生之德也 精深宏博 先生之學也 和風景雲 其氣象也 秋月冰壺 其襟懷也 今不可以復見 將何所而依歸耶。”

2. 交流關係

성호 이익은 안산에 은거하며 평생을 학문과 교육에 힘써 저술 활동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였다. 이익이 태어난 다음 해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모친은 가솔과 함께 안산에서 정착하여 생활하였으며, 이익은 26세(1706년)에 겪은 仲兄의 참화 이후 안산에 은거하게 된다. 부친 李夏鎭이 1678년 陳慰兼 進香使로 청의 수도인 연경에 들어갔다가 귀국할 때 饋賜銀(饋賜銀)으로 사 가지고 온 수천 권의 서적 덕분에 이익은 안산에 칩거하며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다. 안산의 첨성리에 있던 물려받은 田莊을 ‘성호장(星湖莊)’이라 불렀기 때문에 이익의 교류 관계는 ‘성호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老屋懸燈竟夜清	낡은 집에 등잔 달고 밤새 청담 나누다
諧談聊自發和平	가끔 던지는 농담에 절로 화기에애하네
詩緣到境頻叉手	시가 경지에 이르니 자주 손을 마주 쥐고
迹涉逃虛陋曠名	몸은 산골에 은거하니 명성이 적지 않네
選勝鄰閭眞宿好	명승지 가려 사는 이웃 오래 묵어 참 좋고
傳家詩禮有餘聲	대대로 학문해 온 우리 가문 알려졌네
佗季輿地誰成誌	훗날 이 땅 여지지를 만들 이 누구일까
一曲星莊始見情	그때 여기 성호장 비로소 실정 드러나리 ³¹⁾

이 시에서 이익은 성호장의 모임을 통해 이곳을 명승지라 칭하며 손자, 아들 항렬의 족손이 방문하여 함께 시를 나누며 隱者로서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화평한 기운은 전하며 훗날 이 땅의 지리지를 만들 때, 성호장에 살았던 자신의 집안사람들과 뛰어난 인물이 많았던 이웃들의 삶의 행적이 지리지에 기록될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31) 李瀾, 『星湖全集』卷3, 094c면, 〈族孫仲明 庚煥 來訪 再從姪思卿 學休 繼至 次古韻 十八首〉 중 7수

이익은 오랜 시간 안산의 친족들과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그의 교류는 먼저 驪州李氏 친족 문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학문, 心交를 통한 인물들과 후학양성을 통해 인물관계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星湖全集』에 수록되어 있는 서한을 통해서도 개인적 안부와 더불어 주로 문인들과 학문적 토론이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익과 개인적 정감을 나누는 내용은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를 통해 주요 관련 인물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표1> 『星湖全集』 소재 시작품을 통해 드러난 성호 이익의 교류인물

연번	성명 [자/호]	생몰년	관계	빈도(편수)
1	이영주(李永胄) [汝久 / 誕隱]	1687~?	인척	11
2	김이만(金履萬) [仲綏 / 鶴阜]	1683~1758	종질(벗)	9
3	이극성(李克誠) [字는 德中]	1721~?	사위	8
4	이동환(李東煥) [字는 囿春]	1681~1753	족손(벗)	8
5	이귀휴(李龜休) [字는 仲暉]	1675~?	재종질	7
6	이학휴(李學休) [字는 思卿]	1687~?	재종질 (안산 침성리)	5
7	이당휴(李堂休) [字는 聖肯]		족질	5
8	정희기(鄭熙夔) [字는 時中, 幼章]	1690~1755	친족(벗)	4
9	이억휴(李億休) [字는 長卿]	1681~1755	재종질(안산)	3
10	이경환(李景煥) [字는 行甫]	1696~?	족손 (이정휴의 아들)	3
11	이중환(李重煥) [輝祖 / 淸潭, 靑華山人]	1690~1756	족손(문인)	3
12	이국휴(李國休) [咸卿]	1675~1721	재종질	2
13	이복휴(李復休) [字는 仁叔]	1661~1733	재종질	2
14	이성환(李星煥) [字는 天章]	1689~?	족손	2
15	이형환(李亨煥) [字는 柔文]	1712~1750	족손	2
16	이재현(李載顯) [字는 孟揚]	1714~?	족증손	2
17	이재후(李載厚) [元博 / 蔡菴]	1698~1773	족증손	2
18	정순희(鄭舜熙) [미상]	미상	생질	2
19	윤동규(尹東奎) [幼章 / 邵南]	1695~1773	문인	4
20	남하행(南夏行) [聖時 / 潛翁 · 遯庵]	1697~1781	문인	2

21	신후담(愼後聃) [字는 耳老]	1702~1761	문인	2
22	홍유한(洪儒漢) [士良 / 隴隱]	1726~1785	문인	2
23	홍침한(洪瞻漢) [字는 希倬]	1734~1770	문인	2
24	윤귀상(尹龜相) [字는 蓍卿]	1709~?	斯文	2
25	이휘진(李彙晉) [字는 來慶]	1677~?	벗	8
26	홍중징(洪重徵) [錫余 / 梧泉]	1682~1761	벗	8
27	김득대(金得大) [字는 君鎭]	1685~?	벗	5
28	황정숙(黃靜叔) [미상]	미상	벗	5
29	권기언(權基彦) [士恢 / 竹塢]	1694~1754	벗	4
30	홍상보(洪尙輔) [字는 聖望]	1683~?	벗	4
31	이익희(李益熙) [字는 汝謙]		벗(옥동의 문인)	4
32	신사석(申思奭) [子相 / 龍淵]	1704~1780	벗(은자)	4
33	윤평숙(尹平叔) [미상]	미상	벗	3
34	정상기(鄭尙驥) [汝逸 / 農圃子]	1678~1752	벗	3
35	조수의(趙守誼) [正叔 / 玉澗]	1699~1769	벗	3
36	황천지(黃千之) [미상]	미상	벗	3
37	정군칙(鄭君則) [미상]	미상	벗(은자)	3
38	이제관(李齊筦) [字는 仁仲]	1723~1772	벗	2
39	홍중달(洪重達) [字는 一兼]	1680~?	벗	2

위의 표는 2회 이상 시적 교류가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회로 드러난 詩交가 비교적 많아서 다양한 방면에서 폭넓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익의 만시 역시 전체 시의 20%가 넘을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류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하여 불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그의 〈反絶交詩〉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옛날에 한(漢)나라 주공숙(朱公叔)이 당시 사람들의 교우(交友)가 돈독하지 못해 가볍게 벗을 버리는 것을 미워하여 〈절교론(絶交論)〉을 지었는데 양(梁)나라 유효표(劉孝標)에 이르러 〈광절교론(廣絶交論)〉을 지어 그 뜻을 넓

했다. 사람들은 <절교론>이 있는 줄만 알고 주공숙에게 또 <절교> 시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 그러나 절교할 만한 사람은 있지만 교우 그 자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장난삼아 <반절교시>를 짓는다.

賦天均爲人	천품을 받아 다 같이 사람 되었으니
四海乃兄弟	사해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형제로세
民情固大同	백성의 마음은 진실로 대개 같은 것
好惡自根柢	좋음과 미움이 마음의 근본에서 나오지
然如面貌別	그래서 얼굴이 모두 제각각이듯
愚智異品第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은 각각 다르네
可師非賢達	현달해야 스승 삼는 것 아니고
可矜卽卑替	비천하다고 불쌍한 사람 아니네
泛與同優遊	범범히 다 같이 한가로이 노닐 때
仁者視一體	어진 이는 모두 한 몸처럼 보지만
託孤與寄命	탁고와 기명의 큰일을 감당할 군자는
曠世難攀袂	세상에 만나기가 매우 어렵지

……

天敍著明倫	하늘이 차례로 펴 인륜을 밝게 드러내니
未宜懲噎廢	한 번 목이 메었다고 밥을 안 먹어선 안 되지
絕俗非容易	사람과 관계를 끊는 건 쉽지 않으니
鳥獸難合契	조수와는 함께 살기 어려운 법이지
於我儘有禮	나에게 참으로 갖춰야 할 예가 있거늘
何必苦拂戾	굳이 사이를 나쁘게 할 필요 있으랴
徒然累褊薄	부질없이 자주 속 좁은 사람 될 뿐
進修反蒙蔽	인격 향상에는 도리어 방해가 되느니
佗山一片石	남의 산에 있는 한 조각의 돌이
攻玉或取厲	옥을 다듬을 때 혹 숫돌로 쓸 수 있지 ³²⁾

……

이익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주위와의 사귄에 대하여 〈反絶交詩〉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絶交’에 대하여 ‘反絶交’를 말하여 세상의 이치와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 길에 대하여 말하였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세상 사람 모두가 천품을 부여 받았으며 사해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형제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인간이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그의 근대적인 사고가 드러난다. 그렇기에 사람의 마음이 대개는 같으나 사람의 얼굴이 모두 다 제각각이듯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역시 다르다.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에서 어린 임금을 보좌하여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군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늘이 인륜을 밝게 드러내니 관계를 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짐승 같은 인간과 함께 살 수는 없다. 이익은 학문의 길로 나아가며 자신의 욕을 다듬겠다고 다짐한다. 자신이 갖추어야 할 예를 갖추고 세상에 대하여 굳이 나쁘게 하지 않으며 부질없이 속 좁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他山之石으로 삼아 자신의 인격 수양을 위해 매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쉽지 않고 자신이 학자로서의 길을 가며 禮로서 관계를 맺고자 했기 때문에 넓은 교류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그의 넓은 포용성과 그릇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넓은 교류 관계가 드러나 있고, 만시 역시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위의 표에 드러난 시 작품 속 관계를 통해서는 주로 세 부류의 인물들과 가까이 지낸 것을 알 수 있는데 驪州 李氏를 중심으로 하는 親族, 학문적으로 함께 한 文人, 관직·처사의 삶을 산 벗과 기타 인물군으로 나눌 수 있다.

32) 李漢, 『星湖全集』 卷1, 〈反絶交詩 并小序〉 053d면, “昔漢朱公叔 疾時交遊不篤輕爲棄絶 作絶交論 至梁劉孝標廣之 人徒知有絶交論 而不知公叔又有絶交詩 曰北山有鷗 不潔其翼 飛不正向 寢不定息 飢則木摩 飽則泥伏 饕餮食汙 臭腐是食 填腸滿膝 嗜欲無極 長鳴呼鳳 謂鳳無德 鳳之所趨 與子異域 永從此訣 各自努力 然交有可絶 而非交之可絶 戲作反絶交詩”

먼저 친족 중에 가장 많은 시를 주고 받은 인물인 이영주(李永胄, 1687~?)는 인척간으로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5대손이며 이익과 사돈인 이계주(李啓胄)의 형이다. 이익의 증조부 李尙毅가 李睟光과 함께 奏請使로 중국에 다녀온 일이 있었고 이익의 딸이 이수광의 5대 후손인 이영주의 조카인 이극성(이계주의 아들)과 결혼한 것으로 보아서 이익과 이영주 양가는 대를 이루어 친분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익과는 시를 통해 주로 교류하였으며 『星湖全集』에 새해를 맞이하여 묘표에 관한 부탁에 대해 답한 편지가 1편 있고, 이익이 그의 사후 문집인 〈誕隱稿〉 발문을 적어 준 것으로 보아 벗으로서 가까이 지낸 것을 알 수 있다.³³⁾

이익은 사위 이극성(李克誠, 1721~?)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진사 이영주가 보내온 시에 차운한 시이다.

曾言夢想石麟兒	꿈속에서 그리던 기린아라 말하더니
犀角豐盈宛見之	이마가 볼록한 게 완전히 그러하다
珠玉輕明形覺穢	밝은 자태 옥 같아 내 추한 줄 알았고
簡編商略手忘疲	그의 글 소탈하여 피곤한 줄 몰랐어라
故人書到煩勤託	그대가 편지 보내 자꾸 부탁하는데
猶子情深說美姿	조카 위한 정이 깊어 좋은 자질 말하네
家塾相傳須更勉	집안에 서숙(書塾) 있으니 더욱더 노력하고
歸求元自有餘師	돌아가 찾아보면 배울 스승 많으리 ³⁴⁾

이 시에서 이익은 친구인 이영주가 자신의 조카이자 이익의 사위인 이극성에 대해 칭송한 것을 듣고 실제로 만난 재능 있는 사위에 대하여 한껏 기대감 있게 말하고 있다. 옥 같은 밝은 자태와 글을 통해 꿈 속에서 그리던 기린아라며 좋은 자질이 있는 사위를 자신에게 부탁하는 것을 사양하며 집

33) 李瀾, 『星湖全集』 卷28 〈答李汝久 甲子〉 562b면, 卷55 〈誕隱稿跋〉 521b면.

34) 李瀾, 『星湖全集』 卷3, 〈次李進士汝久 永胄寄來韻〉 102b면.

안의 좋은 스승을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사위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여러 차례 시로써 학문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기대하였다.

芳年十八作男兒	한창나이 열여덟 남아 되어서
夙把遺經尊閣之	일찌감치 경전 받들어 공부했다네
解道身閒多費力	한가할 때 많은 힘 써야 함을 알고서
應須心樂不知疲	마음으로 즐기고 피곤한 줄을 몰랐지
爭看許大門閭宅	사람들 다투어 보는 그리 큰 명문가에
生得寧馨美好姿	이렇게도 아름다운 자질 타고났구나 ³⁵⁾

.....

從君日月我何憂	그대 함께 보낸 세월 내 어찌 걱정하랴
惠好同車莫浪遊	마음 맞춰 함께하지 쓸데없는 노닐 말게
千里有期看伏櫪	천리를 기약하는 마굿간에 누운 준마
一竿牢把釣吞舟	낚시대 힘껏 잡고 대어를 낚을 사람
盈盈犀角憐神骨	헉헉찬 무소뿔 그 풍골이 어여쁘고
炯炯龍珠穩積流	눈부신 여의주 깊은 물속 안온해라 ³⁶⁾

.....

이익은 명문가의 뛰어난 인재를 사위로 얻어 기뻐하며 그의 재능을 칭찬하고 학문에 매진함을 격려하였다. 그는 〈示李甥〉에서 열여덟의 사위가 남들이 우러러보는 큰 명문가에서 일찍부터 부지런히 공부를 하여왔으며 그의 자질이 빼어남을 기특해 하고 있다. 그리고 〈懷李甥〉에서는 그와 함께 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며 마음 깊이 교유하기를 바라였다. 이어서 사위에 대하여 아직 뜻을 펼치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재능과 포부가 뛰어나 천 리를

35) 李漢, 『星湖全集』 卷3, 103b면, 〈示李甥 二首〉 중 1수

36) 李漢, 『星湖全集』 卷4, 111b면, 〈懷李甥 三首〉 중 2수

기약하는 준마라 비유하여 표현하였고, 문장과 학문이 뛰어나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대어를 낚을 인재로 그 재능을 높이고 있다. 다시 사위의 이마에 무소의 뿔이 있어 신운이 감도는 현결찬 풍골을 가지고 있으니 귀하게 될 관상이라 하였고 용의 턱 밑에 있는 如意珠같이 진귀하다고 하였다. 이익은 이렇게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위의 미래를 기약하면서 그 마음을 시로써 격려하였고 이를 통해 이익이 가지고 있는 사위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익이 가까이 지낸 驪州李氏 가문의 친족 문인으로는 재종질 이국휴(李國休, 1675~1721), 이귀휴(李龜休, 1675~?) 족질 이정휴(李禎休, 1673~?), 족질(族姪)인 이당휴(李堂休), 재종질인 이억휴(李億休, 1681~1755), 재종질인 이학휴(李學休, 1687~1765) 등이 있다. 이억휴는 안산, 이학휴는 안산의 침성리(瞻星里)에 살았으며 이익과 동갑이라 가깝게 지냈다.

김이만(金履萬, 1683~1758)은 이익의 숙부 이은진(李殷鎭)의 외손자로 어렸을 때에는 이익과 함께 어울려 놀며 자랐다. 1713년(숙종39) 진사시와 문과에 연이어 합격하고, 무안 현감(務安縣監), 양산 군수(梁山郡守), 서산 군수(瑞山郡守), 집의, 사간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가 벼슬을 지내며 이익과 교류한 시가 8편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익이 직접 만시인 〈挽金執義仲綏〉를 지어 슬픔을 표현하였다.

조카인 이병휴(李秉休, 1710~1776)는 이익의 넷째 형 이침(李沉)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익의 둘째 형인 이잠(李潛)의 양자로 들어갔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익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나, 노론에 의해 역적의 양자로 지목되어 관계 진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찍이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육경(六經)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이익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로 일생을 보냈다. 『星湖全集』에는 卷34에 7편, 卷35에 11편, 卷36에 7편, 37권에 14편의 많은 편지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은 禮法과 章法, 經學 등에 대한 논의와

問目에 대한 답신이다. 그 중 〈答問目〉은 『星湖集』의 초고본으로 보이는 문고(文稿)를 보고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정한 내용으로 이병휴가 이익 생전에 초고를 보았다는 것을 방증하며, 편지를 통해 문헌 중 문제 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³⁷⁾ 이익 사후에는 윤동규(尹東奎)에게 배웠으며, 신후담(愼後聃)·안정복(安鼎福)과 교류하였다. 이병휴의 제자로는 권철신(權哲身)과 이기양(李基讓)이 있다.

족손인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은 이익의 학풍을 이어 지리서인 『擇里志』를 남겼으며 이익과는 〈族孫輝祖 重煥 有惠物 以詩答寄〉, 〈復次輝祖 楓溪韻〉, 〈次輝祖佐郎陞秩韻〉에 詩交가 있다. 권33에 〈答族孫輝祖 壬申〉의 편지글이 있으며 안부와 더불어 서양 선교사가 지은 서적을 중심으로 천문·지리학에 대한 의논이 담겨 있다.

이익은 가문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친족의 모임을 왕회지의 회계의 모임으로 비유하였는데 다음의 〈聲邨小會分韻得文字〉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甲子凡六十	내 나이 올해로 이제 예순 살
享此蓋難云	이런 수명 누리기 어렵다는데
九老香山傳	향산의 구로 고사가 전하여 오고
四皓商顏聞	상산의 사호 이야기도 들어 보았지
吾鄉多壽考	고향에는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
偶集輒成群	우연히 모여서 모임 이루니
除非白鶴仙	백학이 된 신선을 제외하고는
意愜青牛君	뜻 맞는 우리들은 청우군이네
.....	
吾衰無復望	우리들은 노쇠하여 희망 없지만

37) 李瀾, 『星湖全集』 卷34, 〈答兼休問目 丙辰〉 고전번역원 주석 참조.

少壯宜張軍	젊은이야 가세를 떨칠 만하지
詼諧不嫌劇	농담을 거침없이 내어 뱉으니
氣比龍嘯雲	기운은 구름 뿜는 용에 견주고
爲詩有新令	새로운 시령(詩令) 두어 시를 지으니
趁韻增慙慙	운에 따라 정의(情誼)가 돈독해지네
念昔前輩風	선배들의 옛 풍류를 추억해 보매
結社談閭閻	모임이라 담소에는 화기 넘쳤네
開筵少長咸	술자리에 노소가 모두 모여서
落筆驚風斤	붓 휘두르면 솜씨에 놀라곤 했지
.....	
相携混野叟	서로 이끌어 농부와 어울리고
料理樂耕耘	서로 도와 즐겁게 밭을 가누나
昭蕪一陽回	만물이 소생하는 일양이 회복하니
梅梢訪氤氛	매화 끝에 봄기운을 더듬어 본다
天寒霰雪繁	날씨는 춥고 싸락눈은 쏟아지는데
嘯歌窟朝曛	노래 읊조리며 하루를 보내누나
記蹟埃後視	사적을 기록하여 후세를 기다리니
庶替蘭亭文	난정의 글 대신하길 기대하노라 ³⁸⁾

이 시에서 이익은 성춘의 모임을 중국의 문인들에 비유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성춘에 장수하는 인물이 많아 당나라 백거이를 포함하는 향산의 원로와 秦末漢初의 은자인 商山四皓에 비기며 자리에 모인 인재의 재능을 추켜세운다. 그리고 백학의 신선과 청우군 老子를 내세우며 그들의 고아한 풍취를 비기기도 한다. 게다가 젊은 사람들은 집안의 세를 떨칠만하다며 구름을 뿜는 용에 견주고 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글을 짓는 그들의 모습은 도연명을 연상시키기 충분하며 이러한 풍류와 문재가 있는 화기 넘치는 분

38) 李漢, 『星湖全集』 卷5, 128a면, 〈聲榔小會分韻得文字〉

위기와 숨씨 있는 그들의 모임을 왕희지의 蘭亭의 모임에 비유하며 자부심을 드러낸다.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모여있는 성촌의 모임은 절대 작지 않으며 이익은 그 재능있는 인물들의 빼어난 숨씨에 자부심을 느끼며 후세의 평을 기다린다.

특히 위 시에서의 ‘商山四皓’는 이익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익과 이익의 재종질(再從姪)인 이억휴(李億休, 1681~1755), 족손(族孫)인 이동환(李東煥, 1681~1753), 이양환(李陽煥, 1681~1745)을 가리키며 네 사람이 모두 辛酉생 동갑으로 나이가 같아서 서로 자주 교류하며 친하게 지냈고 이익은 이들을 商山四皓의 은자에 비유하였다. 이를 통해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속세를 벗어나 산림에 은거한 네 인물에 대한 자부심을 볼 수 있다. 이들과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만남을 소중히 하였는데 〈簡寄檀軒〉, 〈簡寄囿春 二首〉를 통해서도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익이 가문의 재능 있는 인물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익의 문인들은 학문적으로 매우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였다. 이익은 재야인으로 있으면서 선비의식을 가지고 동년배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며 학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였는데 이러한 학문적 교류를 통해 그의 관계는 더욱 확대되었고 그의 의식과 세계관 역시 넓어졌다.

이익의 문인으로는 지리학의 윤동규(尹東奎, 1695~1773), 산학에 신후담(愼後聃, 1702~1761), 사학에 안정복(安鼎福, 1712~1791), 서학에 권철신(權哲身, 1736~1801) 등이 알려져 있으며, 驪州 李氏의 주요 학자들로 경학에 이병휴(李秉休, 1710~1776), 문학의 이용휴(李用休, 1708~1782), 경제·예학의 이맹휴(李孟休, 1713~1751), 서학·경제에 이가환(李家煥, 1742~1801), 지리의 이중환(李重煥, 1690~1752) 등이 있으며 이후 ‘星湖學派’라는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성호학파는 학문적으로 멀리는 이황(李滉)의 학통에 연결되고, 가까이서 17세기 허목(許穆)·유형원(柳馨遠) 등 근기남인(近畿南人)의 경향을 계승하였다. 이들은 이기심성론의 사변적 학문에 치우쳤던 영남남인과는 달리, 이기심성의 문제를 새로 해석하고 실증·실용의 새로운 학풍인 실학을 일으키게 된다.³⁹⁾ 이후 이들의 학문은 그 흐름이 다산 정약용에게까지 이르러 크게 집대성된다.

다음은 문하생과의 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送尹幼章 東奎〉이다.

心內人能望外來	마음속 그리운 사람이 뜻밖에 와주니
神交有契嘿相催	정신이 계합하여 은연중 재촉했던 게지
誠知不乏磨鍼術	노력이 부족하지 않음을 진실로 아노니
何處寧無琢玉才	어디에선들 옥을 다듬는 재능 어찌 없으리오
夜燭重懸分照卷	밤에 촛불 두개 걸어 나누어 책 비추고
年華易感各停杯	세월 변화에 쉬이 감회 일어 각자 술잔 멈춘다
卻從勞鶩東西後	백로와 제비가 쫓아가듯 동서로 나뉘니 후
別意應書滿紙回	이별의 심정은 응당 편지 가득 써 보내올 테지 ⁴⁰⁾

문인 윤동규(尹東奎, 1695~1773)는 이익 문하에서 가장 연장자로 안정복(安鼎福)과 절친하였으며, 이가환(李家煥), 권철신(權哲身) 등과 친교를 맺었다. 그는 도학에 열중하였고 역법, 천문, 지리, 의약, 상위(象緯) 등 실용적 학문의 수립을 역설하였다. 『星湖全集』 권18에 8편, 권19에 10편, 20에 21편, 권21에 17편의 편지글이 있어 주로 서신을 통해 학문적 의견을 교환했음을 알 수 있다. 『星湖全集』에 윤동규에게 보낸 시가 2수 남아있는데 위의 시에서 이익은 그에 대하여 마음 안의 사람으로 神交를 나눈다 칭하고 있다. 재능과 노력이 뛰어난 인재임을 말하고 세월의 변화와 이별의 아쉬움

39) 원재린, 앞의 논문, 서론.

40) 李瀾, 『星湖全集』 卷1, 056b면, 〈送尹幼章 東奎〉

을 나누고 있는데 특히 이별 후에 편지를 보낼 것을 기약하며 그에 대한 깊은 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외 신후담(愼後聃, 1702~1761)은 이익의 문인으로 주로 『中庸』과 『周易』 연구에 힘을 쏟았고 서학을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비판한 『西學辨』을 지었다. 『星湖全集』 권22에 3편, 권23에 18편의 편지글이 있으며 안부와 경학에 대한 의론을 교환하였다. 詩로는 평양에 가는 그를 전송하는 권3의 〈送愼耳老 後聃 西行〉과 술과 포를 보내 준 것에 사례하는 권4의 〈謝愼耳老惠蔗酒殿脩〉가 보인다.

문인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광주(廣州) 덕곡(德谷)에 살았으며, 35세 때인 1746년에 안산(安山)에 살던 성호를 찾아가 문인이 되었다. 문집으로 『順菴集』, 『東史綱目』 등을 남겼으며, 『星湖全集』 권24에 13편, 권25에 7편, 권26에 9편, 권 27에 6편의 편지글을 통해 경학과 예법, 역사 등에 관한 논의가 남아 있다. 안경점(安景漸, 1722~1789)은 안정복(安鼎福)을 통해 이익의 문인이 되었으며, 이상정(李象靖)·이광정(李光靖) 등과 교류하였다. 1771년(영조47)에 문과에 합격하여 성균관 전적, 예조 좌랑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홍유한(洪儒漢, 1726~1785)은 자가 사랑(士良), 호는 농은(隴隱)이다. 이익의 40년 지기인 홍창보(洪昌輔)의 막내 아들로, 이익의 문인이다.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수덕자(修德者)로 칭해지며 서울과 예산(禮山)에서 살다가 종교 생활을 위해 1775년(영조51) 순흥(順興)의 소백산(小白山) 기슭에 은거하였다. 다음은 〈謝洪士良寄唐柚子〉이다.

瀛洲仙子五雲棲
琪樹參差結子低
土養眞黃交錯落
椀盛靈液映玻璃

신선 사는 영주산에 오색구름이 깃들고
들쭉날쭉 기수 가지엔 열매가 늘어졌네
땅이 기른 노란 유자 주렁주렁 달렸는데
가득 담긴 영액이 유리그릇에 어리누나

十分爽味關情得
千里名香滿握携
多謝故人青李帖
厥苞相伴手封題

참으로 상쾌한 풍미는 마음을 사로잡고
천 리에 이름난 향기는 두 손 가득 잡아끄네
벗이 보낸 청리첩이 참으로 고마워라
유자를 함께 싸서 손수 봉해 보냈구려⁴¹⁾

이 시에서 이익은 홍유한이 당유자를 보내 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고 있다. 이익은 그가 신선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비유하여 그곳에서 보내 준 유자를 靈液, 名香의 표현을 통해 신성한 열매로 표현하고 있다. 유자를 보내 준 홍유한의 인물됨과 그가 추구하는 삶이 이익의 시 속에 드러나고 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익의 문인들은 이익과의 정신적 교류를 바탕으로 하여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며 폭넓은 안목과 다양한 식견을 수용하며 교류하였다. 그들은 학문적으로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西學에 대해서도 비판과 수용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이익이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학문적 포용성과 관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문인 제자와의 교류를 통해 학문적 영역이 더욱 확대해 나갔으며 조선 후기 사상·사회·문학사 등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성과를 이루었다.

다음은 이익과 시를 통해 마음을 나눈 벗으로 관직을 지낸 인물들과 자연에 칩거한 은자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익과 가까이 지내며 관직을 지낸 인물로 이휘진(李彙晉, 1677~?), 홍중징(洪重徵, 1682~1761), 김득대(金得大, 1685~?), 홍상보(洪尙輔), 정상기(鄭尙驥, 1678~1752) 등이 있다.

이휘진(李彙晉, 1677~?)은 字가 來慶으로 1725년(영조1년)에 증광시에 급제하였고 장령과 정언 등의 관직을 지냈다. 이익과 여러 차례 시로써 교류하여 『星湖全集』에는 8수의 시가 있으며 그 가운데 임지에 떠나는 벗을 전송하고[送李來慶赴鏡城 三首], 북방에 있는 그를 그리워하였으며[寄鏡城李

41) 李灑, 『星湖全集』 卷5, 131b <謝洪士良寄唐柚子>

通判來慶], 이익이 부채를 선물 받아 감사를 표하는[謝威安使君惠扇] 등의 시에서 가까이 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送李來慶出宰威安〉이다.

鳥嶺嵯峨鐵嶺齊	높고 험한 조령은 철령과 똑같은데
歸驂俄稅又催蹄	돌아오자 곧이어 다시 길을 재촉하네
偏從枳棘容棲鳳	그대는 험한 데만 유독 맡게 되지마는
重把絃歌試割雞	다시 현가 울리는 좋은 고을 만들겠지
南土風謠煩問訊	남방의 풍요 통해 민생 자주 살핀다면
中朝鑑別足評題	조정에서 선별할 때 좋은 평가 받으리
自憐臥病滄浪遠	가련해라, 먼 물가 병들어서 누운 나는
瞻眺鳧天惜解攜	오리 나는 하늘 보며 이별 설위하느니 ⁴²⁾

이 시는 함안 군수로 가는 이내경을 전송하며 지은 시이다. 벗을 임지에 보내며 험한 곳만 가게 되는 것을 위로하고 그곳에 가서 좋은 고을을 만들 것을 격려하며 민생의 현안을 잘 살필 것을 당부한다. 『星湖全集』에 예법에 관한 1편의 서신이 있어 주로 시를 통해 마음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익이 교류하는 인물 중 관직에 있는 경우에는 백성을 보살피고 좋은 관리가 되기를 당부하는 시가 여러 수 보이고 있다. 특히 이익은 백성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풍속과 흉작 등의 현장 상황을 전하고 어려움에 대하여 끊임없이 알리기도 한다. 이를 통해 비록 자신은 정치를 하거나 관직에 나가지 않아 백성의 삶을 직접 보살피 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선비로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곧 애민 정신이 드러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김득대(金得大, 1685~?)는 진천 현감, 보은 현감, 천안 군수 등을 지냈으며 홍상보(洪尙輔, 1683~?)는 『星湖全集』에 〈화순 현감(和順縣監) 홍성

42) 李瀾, 『星湖全集』 卷3, 104c면, 〈送李來慶出宰威安〉

망에게 주다〉와 〈한산의 임지로 가는 흥성망과 이별하며〉가 있어 이를 통해 백성의 삶에 관심을 갖고 당부한 내용과 교류가 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³⁾ 훗날 이익이 그들의 만시를 지어 슬픔을 표현하고 그들의 삶을 기렸다.

이익의 벗 중에는 자연을 벗하며 사는 은자와의 詩交가 보이며 이와 관련된 인물로 충주(忠州) 오갑산(烏岬山) 기슭의 龍淵이라는 연못가에 살았던 신사석(申思奭, 1704~1780)과 분지동에 거처한 鄭君則(미상) 등이 있다. 정균척은 거문고의 명인이고 이익과 우의를 나누다 깊은 산중으로 떠난 은자이다. 다음은 정생의 거문고 연주 소리를 듣고 지은 4수 중 1수이다.

昨過芬芝洞裏行	어저께 분지동을 찾아가는데
蛟龍潭上石淙鳴	교룡 못가 바위틈에 흐르던 물소리
廣陵遺譜空千載	〈광릉산〉 그 악보 천년이나 끊겼으나
試去尋君指下聲	그대의 연주에서 한번 찾아보리라

정생은 분지동에 살았던 은자이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시를 통해 살펴보면 그는 거문고의 명인으로 이익이 그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자 분지동으로 직접 찾아갔고 그의 연주를 듣고 훌륭하여 고대의 명인이 다시 나타난 듯하다고 찬양하는 것으로 보아 실력이 뛰어나 음악적으로 교유한 것을 알 수 있다.

정상기(鄭尙驥, 1678~1752)는 조선 후기 실학과 지리학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익의 일가인 이만휴(李萬休)의 딸과 혼인한 것을 계기로 이익과 평생지기가 되었다. 그는 정치, 군사, 지리, 농업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하여 『治郡要覽』, 『鄉居要覽』, 『人子備鑑』, 『農圃問答』 등의 저술을 남겼으며, 『東國地圖』를 제작하였다. 『星湖全集』의 권10에 1편, 권11에 7편,

43) 제 4장 시세계에서 ‘1. 挽詩에 드러난 의식의 지향’의 만시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권12에 7편의 예법과 지리, 문집 초고 등과 관련된 편지글이 있어 학문적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익이 그의 만시를 지었으며 그의 아들 정항령과 詩交한 기록이 남아있다. 정항령(鄭恒齡, 1710~1770)은 함평 현감, 정언, 집의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지리학에 밝아 『東國大地圖』를 제작하였다.

이익이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시로써 교류를 드러내었는데 이만함(李萬咸), 최북(崔北) 등도 있다. 이만함은 옥동 이서의 문인인 나사(懶士) 이숙(李淑, 1658~1693)의 서자(庶子)로 이익에게 선친의 화첩인 <蘭菊圖>에 발문은 부탁하기도 하였다. 최북은 기이함을 일삼던 화가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최북이 일본에 가는 것을 송별하며 지은 시로 3수 중 3수이다.

拙懶平生欠壯觀	못나고 게으른 삶이라 장관을 본 일 적고
奇遊天外隔波瀾	하늘 저편 좋은 유람은 물결에 막혔어라
扶桑枝上眞形日	부상 가지에 걸린 태양의 참형상을
描畫將來與我看	부디 잘 그려 와 나에게 좀 보여 주게44)

최북(崔北)은 조선 영조(英祖) 연간의 화가로 호는 호생관(毫生館)이고, 칠칠은(七七) 이름인 北을 파자(破字)하여 지은 자이다. 서울에 살면서 그림을 팔아 생계를 꾸렸고, 술과 유람을 매우 좋아하였다. 이 시는 최북이 일본에 가게 되었을 때 그를 보내며 지은 시이다. 이익은 자신은 널리 나가 본 적이 없어 견문이 좁으니 최북이 일본에 가서 그곳의 장관을 잘 보고 그려와 보여주라며 당부한다. 이 시를 통해 예술 분야의 인물들과도 교류하는 이익의 넓은 교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客遺山麻九尺筇	객이 산마로 된 아홉 자 지팡이를 주니
筇頭遙見靄雲重	지팡이 끝 너머로 첩첩한 구름을 보노라
奴星也有尋眞興	종이라도 선경(仙境) 찾는 흥취 있나니

44) 李瀾, 『星湖全集』 卷5, 135a면, <送崔七七之日本 三首>

兩脚輕風接翠峯

두 다리는 산들바람 타고 청산을 오르리라⁴⁵⁾

이 시는 이익이 원주에서 치악산을 유람하러 가는 종을 보내며 지은 시이다. 종이라 할지라도 선경을 찾는 흥취가 있다며 산들바람을 타고 가볍게 청산을 오르는 모습을 그리며 상상하고 있다. 노비에게 시를 준 것으로 보아 그의 시적 교류의 대상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고 노비에게까지 시를 써주었을 만큼 제한된 바가 없고 널리 교류한 것을 알 수 있다.

『星湖全集』에는 전체 시의 20%가 넘는 상당한 양의 挽詩가 수록되어 있다.⁴⁶⁾ 만시는 죽음에 대한 시로 고인과 친분이 있거나 주위의 부탁을 통해 짓게 된다. 이렇게 많은 만시를 통해 그의 교류의 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익이 다양한 인물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드러나지 않는 이름 없는 선비, 인물들의 삶을 만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어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게 한다.

腸飢不食信孚人
身賤爲醫濟病民
七十全歸休怛化
白雲明月送尻輪

배가 고과도 먹지 않는 믿음직한 사람이여
신분이 천해 의원 되어 병든 백성 구제했네
칠순에 온전히 돌아갔으니 죽음을 슬퍼 말라
흰 구름과 밝은 달이 그대 녀을 진송하누나⁴⁷⁾

이 시는 의원인 이지신에 대한 만시이다. 이익이 당시 천한 신분인 의원에게 까지도 만시를 쓴 것으로 보아 그의 교류의 폭이 넓고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익은 이지신이 병든 백성을 구제한 믿음직한 사람이라며 칭송하고 칠순에 온전히 돌아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며 그의 녀을 기리고 있다.

45) 李瀾, 『星湖全集』 卷5, 128c면, 〈在原州送奴遊雉岳〉

46) 제 4장 시세계에서 ‘1. 挽詩에 드러나는 의식의 지향’의 만시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47) 李瀾, 『星湖全集』 卷6, 154b면, 〈挽李志新〉

『星湖全集』에 수록되어 있는 시적 대상을 통해 이익의 교류의 폭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알 수 있으며 이는 그의 개방적인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각 방면의 재능있는 학자에서부터 선비, 관리, 은자, 종교인, 예술가, 의원, 하인에 이르기까지 그의 교류의 대상은 다양하고 넓다. 마음을 나눈 인간적 교류를 중심으로 학문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재능있는 인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심연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길을 가는 그의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다. 비록 하찮은 인물로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을 드러내 주는 그의 섬세한 안목과 의지를 통해 이익의 삶의 지향과 열린 의식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그의 문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시세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文學觀

조선 후기 성호 이익은 전통을 계승한 유학자이자 학문적 탐구를 통해 변화의 조짐을 인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바탕을 마련한 인물이다.

조선 시대 사장과 사림의 대립과 당쟁으로 인한 갈등은 결국 兩亂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되면서 전통 한문학에 대한 반성과 동요가 있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는 이러한 인식 속에서 다양한 문학론이 제기되었던 시기이다. 전기의 주자주의적 문학에 대한 회의와 반성에 이어 실천 개혁의지를 드러내어 실제적 응용과 개성적 문예미를 중시한 현실적 개혁론과 정통한문학의 규범을 지키고자 했던 보수적 옹호론으로 크게 구분되어 드러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익은 16세기 도학 중심에서 17세기의 실학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그 양단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이익의 문학관도 그는 道중심 문학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후대의 실학과에 이어지는 요소가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 詩敎를 중시하여 사림과 문학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의 道를 인식하여 풍자, 표현의 사실성, 방언의 새로운 인식 등이 후배 실학파에게 이어지고 있으며, 시세계에 있어서도 전대 사림과와 후대 실학파의 특징을 아울러 발견할 수 있어서 이익의 문학세계가 전환점에 있다는 것이다.⁴⁸⁾

이 장에서는 시론의 흐름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움직임과 개성을 찾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이익은 문학에 있어서 어떠

48) 김남형, 〈성호 이익의 문학론과 시세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신두환, 앞의 논문, 131면에서 재인용.

한 관점을 갖고 있으며 詩文에 대하여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그동안 이익의 문학적 측면에 있어서 다소간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문학 자체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시에 있어서도 이익은 자신 스스로 시인임을 자처하지 않았고 시에 대한 평가도 문인의 시라기 보다는 학자의 시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걸쳐 시 짓기를 즐겨 하였고 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었는데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吾詩適足言吾志	내 시를 지어 내 뜻을 말하기 충분하구나
世故參差了不知	세상사는 들쭉날쭉해서 도무지 모르겠다
興到不妨狂寫得	흥취 나면 맘대로 휘갈겨도 상관없나니
任教人喚作頑癡	남들이 나를 두고 어리석다 말하든 말든49)

이익은 세상사의 일들이 맞지 않아서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하든 말든 흥이 나면 자신의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고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말하기 좋다며 시적 흥취와 효용을 표현하였다. 위 시로 보아 그가 시를 통해 자유스럽게 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하였으며 시가 자신의 뜻을 말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익이 자신의 마음을 시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작시에 대한 애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虐熱未除時代序	무더위 안 가셨는데 계절이 바뀌니
夏秋交際戰如酣	여름과 가을 간에 전쟁이 한창이다
一年終始鴻溝判	홍구의 경계처럼 일 년의 반 지났고

49) 李瀾, 『星湖全集』 卷5, 〈閒居雜詠 二十首〉

三伏經過虎穴探
冉冉催暉何計住
滔滔趨死益難堪
爾來得句偏衰茶
八八多齡未厭貪

호랑이 굴 더듬듯 삼복을 지내누나
지나가는 시간 어찌 머물길 바라라
죽음으로 향해 가니 견디기 어려워라
근래에 시 짓는 일 더욱 피곤하지만
예순넷 고령에도 욕심 그치질 않네⁵⁰⁾

더위가 바뀌며 계절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순간에 자신의 마음은 더욱 견디기가 힘들다. 비록 시를 짓는 과정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견디기 힘든 마음을 시를 통해 표현하고 싶어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니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시 짓기를 멈추지 않고 또 잘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시에 대한 그의 애착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이익의 시를 통해 그의 시에 대한 관심과 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을 보았으며 구체적으로 이익이 추구한 문학에 대한 방향과 특히 그가 시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글과 연구 성과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의 문학관은 주로 『星湖僮說』의 〈詩文門〉과 『星湖全集』의 글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서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經世的 效用에의 중시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 중심의 유교 문화가 정착되면서 문학도 유교를 바탕으로 한 성리학 사상이 기본 바탕이 되었다. 고려 말에 시작해서 조선 초

50) 李瀾, 『星湖全集』 卷4, 〈七月一日又題〉

기부터 문학이 도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입장으로 인식이 되어 왔으며 이는 조선의 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것이 載道主義 문학관으로 문학의 본질을 風教를 위한 문학적 效用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성호 이익은 조선 후기 학자로 기본적으로 유학자로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문학관에 대한 생각은 載道論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문장에 道를 담아야 한다는 종래 유학자의 입장으로 文을 정치적·사회적·도덕적·교육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經世實用적인 면에서 教化와 諷諫에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다음의 〈不耻下問〉에서 미루어 볼 수 있다.

문(文)이란 도(道)가 깃들여 있는 것이다. 위에서 나타나는 일월(日月)과 성신(星辰)은 천문(天文), 밑에서 나타나는 산천과 초목은 지문(地文), 이 천지 사이에서 나타나는 예악형정(禮樂刑政)과 의장도수(儀章度數)는 인문(人文)이라 하는데, 『주역』에 “인문을 보아 천하를 잘 되도록 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 아주 가까운 것은 지적해서 깨우칠 수 있고, 조금 먼 것은 이야기로써 전할 수 있지만, 백 세대 뒤에는 그 뜻이 모두 없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옛 사람이 문자와 글을 만들어서 후세 사람에게 거듭거듭 타이르고 이 글로 인해 도(道)를 깨달도록 하였으니, 이도 역시 문(文)이라는 것인데 이 문이란 도의 그림이다.⁵¹⁾

문은 도가 깃들여 있는 것이며 인문을 통해 천하를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늘에서 일어나고 천지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인문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천하가 잘 다스려지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의미이

51) 李瀾, 『星湖僿說』 卷21, 經史門, 〈不耻下問〉, “文者 道之所寓也 著於上則日月星辰 謂之天文 著於下則山川草木 謂之地文 著於兩間則禮樂刑政儀章度數 謂之人文 易曰 觀乎人文化成天下是也 … 近則可以指喻遠猶 可以言傳百世之下 其意將泯 故古之人作爲書 字諄諄反覆 以告未來生靈 庶幾因此而有得 亦謂之文 文者道之畫也.”

다. 가까운 시기의 것들은 지적해서 깨우치고 이야기로 전할 수 있지만 아주 먼 세대 뒤에는 그 뜻이 없어지게 되므로 문자와 글을 통해 도를 깨닫도록 하였으니 문은 도의 그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文이 심미적인 추구나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道의 형상화와 사회적 구현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입장으로 인하여 그는 시의 궁극적 이상으로서 溫柔敦厚를 강조하였다.

유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경서(經書) 존중을 최고로 삼는데, 경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은 서로 같으나 경유하는 길은 다르므로 성인(聖人)이 법을 세운 것은 본뜻이 있다. …… 무릇 경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교(敎)자 하나로써 포함시켰으니, 이 교란 것은 악을 버리고 선한 데로 나아간다는 명칭이다.

『詩經』에서 가르치는 것은, 형법으로써 금하지 않고 시를 읊으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자 한 까닭에 따뜻하고 부드럽고 돈후한 말을 주로 삼았다. 그러나 사람이란 착하고 착하지 않은 구별이 있으니, 시를 읊으면서도 그의 잘못을 고칠 수 없다면 가르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 폐단은 우매한 데로 빠지게 된다.⁵²⁾

이익은 〈經解〉에서 유학에서의 경서를 존중하며 최고의 가르침으로 삼고 그 경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 경서를 제대로 풀이하여 世敎를 통해 세상을 선한 곳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경의 가르침인 溫柔敦厚를 강조하며 시를 통해 잘못을 고치는 가르침의 효용을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정사란 백성을 다스림으로 요령을 삼는 것이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백성

52) 李漢, 『星湖僿說』 卷24, 經史門〈經解〉, “儒敎莫如尊經 經之爲敎 同歸而殊塗 聖人立法本旨有在 … 凡經有六 包之以一敎字 敎是去惡 就善之名 詩之爲敎 不以刑禁 欲使之諷曉自得 故以溫柔敦厚爲主 然人有善不善不知人之有不可 以諷曉而革面者 則敎亦不成 其失愚也.”

의 실정을 잘 파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따므로 시(詩)로써 민간의 숨은 실정을 살펴서 모두 안심하고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³⁾

〈誦詩〉에서는 정치를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시란 백성의 뜻이 드러나 있는 것이어서 백성의 실정을 파악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의 풍교적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이익은 〈有敎無類〉에서 文과 質의 관계와 文의 폐습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文에 대해서는 質이 밖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주 나라 말세에 문(文)이 편중되었으니, 문이 편중되면 질(質)이 깎이고 질이 깎이면 허위가 자라남과 동시에 실공(實功)이 문히게 된다. …… 문(文)이란 무엇인가? 질이 밖에 나타난 것을 이름이니 무릇 위(威儀)·도수(度數)의 불만한 것이 이것이다. 문에 편중된 주 나라에도 오히려 자기 일신의 행동에 치중했는데, 진(晉)·송(宋)·제(齊)·양(梁)·진(陳)·수(隋)를 거쳐 당(唐)에 이르자, 문의 폐습이 극도에 달했었다. 처음에는 문은 도(道)를 신는 그릇이라 일렀다가 이윽고 그 그릇만을 취하고 그 신는 것은 잊었으며, 종말에는 그 그릇만을 쓰고 그 신는 것을 변경하여, 박잡(駁雜)·음예(淫穢)·황탄(荒誕)·괴기(怪奇)한 물건을 잘못 문이라 하였고, 또 간간이 5~7언(言)의 장단편과 사율(詞律) 따위로써 세상을 혼란하게 하였으니, 이에 이르러 천하의 어지러움이 극에 달했었다.⁵⁴⁾

문은 질이 바깥으로 나온 것이며 세상이 혼란해지면서 문은 번잡스러워

53) 李漢, 『星湖僿說』 卷20, 經史門, 〈誦詩〉, “政以治民爲要 治民又莫過於下情之達 故詩可以察其隱 而安之也 ”

54) 李漢, 『星湖僿說』 卷25, 經史門, 〈有敎無類〉, “周末文勝 文勝則質削 質削則虛僞長 而實功堙也 …文者何也 質之見於外 凡威儀度數之可見者 是也 周之文勝 猶以身己事言 歷晉宋齊梁陳隋至唐 弊極矣 始謂以載道之器 俄而取其器 而忘其載 終焉 用其器 而貳其載 駁雜淫穢荒誕怪奇之物 而誣之爲文 又間以五七言長短篇詞律之類 眩耀之於是 天下之亂極矣.”

졌기 때문에 수단만 중요해지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으로 本末이 전도된 폐단으로 인하여 이익은 5~7언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시경시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곧 詩經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시에 대한 입장 역시 비슷하다. 다음은 〈詩家藻繪〉이다.

시(詩)란, 뜻이 발로된 것이다. 말이 있고 뜻이 있는데, 뜻은 깊고 말은 열으므로 말은 끝마칠 수 있지만 뜻은 다할 수 없는 것이다. 『시경』 3백 편은 대저 다 사언(四言)이므로 읽으면 그 말이 쉽게 이해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 좁게 되는 것을 싫어하여 글자를 더 보태서 오언을 만들었으며, 오언의 근원은 사부(詞賦)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사부는 위에다 한 글자를 더 보탠 것이요, 오언은 중간에다 한 글자를 더 보탠 것이다. 오직 그 뜻을 드러내는데 더 여지가 있어서, 세상이 점점 교세(巧細)해져서 조직(組織)과 조회(藻繪)가 더 지극하게 되었다. 후인들은 또 더 보태서 칠언을 만들었으니, 더욱더 옛것과는 배치(背馳)되었으며, 성률(聲律)이니 배려(配麗)이니 하는 것이 나오게 됨에 이르러서는 시도(詩道)가 깎여지고 말았다.⁵⁵⁾

시를 뜻이 발하여 드러난 것으로 보았으며 뜻이 있으나 말로 다 할 수 없으므로 시를 통하여 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형식은 간단한 것이 전하기 좋은 것으로 보아서 시경의 4언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보았으나 세상 사람들이 그 간단함에 부족함을 느껴 이후 말이 더해져 5언, 7언이 되었고 다시 수식을 늘여서 시적 구성인 성률, 배려에 치중하며 옛것과 더욱 배치되어 詩道는 깎여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시적 수사를 함으로써 시

55) 李漢, 『星湖僿說』 卷29, 詩文門, 〈詩家藻繪〉, “詩者 志之發也 有語有意 意深而語淺 故語可了 而意不可窮 三百篇 大抵皆四言 讀之 其語易解 人嫌其語局 增字爲五言 五言之源 自詞賦 始詞賦上增一字 五言中增一字也 惟其用意恢如 故世漸巧細組織藻繪 無所不至 後人又增 爲七言 則益與古背馳 至聲律配麗之出 詩之道斲盡”

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았으며 수사를 부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詩)는 가르침이다. 뜻을 전달하는 데 힘써야 하니, 오직 간략해야만 시의 본질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뒤에 변하여 오칠언(五七言) 장편(長篇)과 단편(短篇)이 되었으니, 가르침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더구나 성병(聲病)과 대배(對配)의 율(律)이 더해져서 갈수록 본지(本旨)에서 벗어났고, 뜻이 공교할수록 가르침이 더욱 변하였다. 그러나 천백 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습관으로 굳어져서 귀천(貴賤)과 현우(賢愚)를 막론하고 모두 여기에 빠져들지 않은 자가 없으니, 그런 분위기 속에 살면서 남들이 하는 대로 힘써 따르는 것도 괴이할 것은 없다.⁵⁶⁾

이익은 시를 가르침으로 보아 뜻을 전달함에 힘써야 하므로 간략해야 시의 본질을 이룰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그리고 시적 아름다움보다 시의 효용적인 면을 강조하여 간략하게 하여야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시는 간략할수록 좋으며 번잡해질수록 그 효용성이 적어져 가르침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것이다.

시라는 것은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지향하는 바는 오직 시를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⁵⁷⁾

시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가는 것이 말을 통해 드러나는 것인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56) 李瀾, 『星湖全集』 卷50, 422b면, 〈石隱集序〉, “詩者教也 務在達意 惟簡乃成 後變爲五七字長短篇 則與教何干 況加之聲病對配之律 日漸背于本旨 意益巧而教益渝矣 然千百載大同成習 無貴賤賢愚 率不脫浸染 生乎其間 無怪其勉循爲之”

57) 李瀾, 『星湖全集』 卷49, 403c면, 〈詩經疾書序〉, “詩者言志 故心之所之 惟詩可達”

다음은 그의 〈墨梅 六首〉 중 2수이다.

知白方成守黑功	흰 것을 알아야 검은 것을 지키는 공을 이루는 법
畫廚生態意何窮	그림 속 생동하는 모습 뜻을 어찌 다하랴만
儀形自可精神逼	그러 낸 자태가 정신과 매우 비슷하다 할 만하니
摸色休煩較異同	색 묘사한 것에 차이 애써 비교하지 말라 ⁵⁸⁾

이 시는 墨梅를 보고 지은 것으로 종지와 먹을 통한 그림의 표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흰 것을 알아야 검은 것을 지키는 功을 이룰 수 있다며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를 통해 다른 하나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詩 속에 드러나고 있는 매화의 모습은 생동감을 드러내며 매우 빼어나다. 비록 매화가 피었을 때의 울긋불긋한 빛이 아니어도 묵매로서의 모습이 제대로 그려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정신이 거기에서 드러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고 굳이 그 색 묘사의 차이를 애써 비교할 것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하니 이 묵매는 사군자로서의 매화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작가의 뜻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단순하면서도 담박하게 표현하며 잘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속 생동하는 모습이 색을 통한 차이가 있어서 비록 형태를 다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정신을 제대로 표현한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익은 문학에서 뜻, 정신을 잘 드러내는 것을 중요시하였으며 이를 잘 드러내기 위하여 그는 사실에 기반한 현실을 중시하였다.

58) 李瀾, 『星湖全集』 卷5, 142b면, 〈墨梅 六首〉

2. 事實에 기반한 現實지향

이익은 당시 서양의 중세과학 및 기독교 사상에서 많은 자극을 받아 존재와 인식의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朱子의 주관적 인식체계와 달리 『大學』의 〈格物致知〉장을 재해석하여 객관 사물의 탐구와 객관 사물의 처리 방법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인식체계를 구성하였다. 인식 주체가 객관 사물을 대상으로 그 속성을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인식이 성립한다는 인식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사물 사건을 탐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기초하여 경전을 재해석하고 사회 변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조선 후기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익은 경전을 탐구하는 것이 심오한 경지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면한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경전의 사건과 인물의 해석을 통하여 당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지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익은 이러한 점을 기초로 국가 기본 체제로서 사회·법제 등의 문제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해 갔다.⁵⁹⁾

경서(經書)를 연구함은 장차 세상에 쓰이기 위해서이다. 경서를 이야기하면서도 천하의 온갖 일에 아무 쓸모가 없이 되면 이는 뜻은 잘 모르고 한갓 읽기만 잘 하는 것일 뿐이다.⁶⁰⁾

그리고 경전에 쓰여진 지식이 현실에서 쓰이지 못한다면 단순한 독서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한다. 형식적인 당시의 학문 풍토를 비판하고 무엇을 안

59) 김용걸, 『이익 사상의 구조와 사회개혁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213-252면.

60) 『星湖僊說』卷20, 經史門 〈誦詩〉“窮經將以致用也 說經而不措於天下 萬事是徒能讀耳”

다는 것이 단편적인 사물을 인지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⁶¹⁾

성호 이익의 經世的 效用論의 입장과 실증적인 성향은 그를 문학에 있어서 현실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끌었다. 기존의 관념론을 벗어나 학문이 현실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詩文에 있어서도 현실 지향의 관점을 취하였다. 이는 실학적 입장의 반영으로 그는 현실을 떠나지 않는 문학의 내용이 사실을 기반으로 두어야 한다고 본 것이며, 표현 방법에 있어서 종래의 답습을 피하고 새롭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현실에 중심을 두고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실상을 그려내어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여 회화성이 드러나도록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익의 시 창작법에서는 창조성, 회화성, 사실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⁶²⁾ 그의 글에 이러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으나 문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의 과정을 따라가 보면 사실에 기반한 현실 중심적인 사고가 회화적인 모습으로 잘 드러나게 될 때 훌륭한 작품으로써 창조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의 입장은 대부분 『星湖僊說』의 〈詩文門〉에서 드러나 있으며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문학에 대한 의식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화(李華)의 〈조고전장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처참하고 오열(嗚咽)함을 느끼게 한다. …… 나는, “후세의 시문(詩文) 따위가 대개는 다 세교(世教)에 도움됨이 없는데 〈조고전장문〉 같은 것은 위에 있는 임금이 들으면 심각하게 느껴지고 진심으로 슬퍼하지 아니하겠는가?”라고 생각한다.⁶³⁾

61) 김용길, 앞의 책, 262면.

62) 최박광, 앞의 논문, 1978.

63) 李漢, 『星湖僊說』 卷30, 詩文門, 〈吊古戰場文〉, “李華弔戰場文 令人悽咽…余謂後世詩文之類 率皆無裨於世教 如弔戰場者 人主聽之有不惕然感怛然悲也乎”

이익은 〈吊古戰場文〉에서 文이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실상을 글로 전하는 데에 의미를 두어 世敎에 도움이 되는 文의 효용적인 측면을 말하면서 현장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그가 문학 작품의 창작에 있어서 현실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동파의 시에,

論畫以形似 그림은 겉모습만 같게 하면 된다고 하니
 見與兒童隣 이런 소견들은 어린아이와 다를 것이 없다
 賦詩必此物 시를 짓는데, 꼭 이 같아야 시라고 한다면
 定非知詩人 정녕 시를 아는 사람은 아니다

하였다. 후세에 화가(畫家)들은 이 시를 종지(宗旨)로 삼고 진하지 않은 먹물로 그림을 거칠게 그리니, 이는 그 본질과 어긋나게 된 것이다.

지금 만약, “그림을 그리되 겉모습은 같지 않게 해도 되고, 시를 짓되 앞에 보이는 경치를 읊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이치에 맞는 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집에 동파가 그린 묵죽(墨竹) 한 폭이 있는데, 가지와 잎이 모두 산대와 꼭 같으니, 이것이 소위 틀림없는 사진(寫眞)이란 것이다. 정신(精神)이란 모습 속에 있는 것인데, 모습이 이미 같게 되지 않는다면 속 정신을 제대로 전해 낼 수 있겠는가? 동파가 이렇게 시를 읊은 것은 대개 “겉모습은 비슷하게 되어도 속 정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록 이 물체는 있다 할지라도 광채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나도 이르기를, “그림이란 정신이 나타나야 하는데, 겉모습부터 같지 않게 되었다면 어찌 같다 할 수 있겠으며 또는 광채가 있어야 하는데 탄 물건처럼 되었다면 어찌 이 물건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⁶⁴⁾

64) 李漢, 『星湖僊說』 卷5, 萬物門, 〈論畫形似〉, “東坡詩云 論畫以形 似見與兒童隣 賦詩必此物 定非知詩人 後世畫家 得以爲宗旨 淡墨蠶畫 與眞背馳 今若曰論畫形不似 賦詩非此物其成說乎 余有家藏東坡墨竹一幅一枝一葉百分肖似乃 所謂寫眞也 神在形中形已不似神可得以傳耶 此云者蓋謂形似而乏精神 雖此物

이익은 〈論畫形似〉에서 사실적 묘사를 강조하였다. 후세 화가들이 소동파의 시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림이 본질과 어긋나게 되는 것을 비판하며 그는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강조하였는데 사실적인 모습이 그 사물의 정신을 제대로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관념론을 벗어나 그 당시의 답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실, 현재의 것에 광채가 날 수 있도록 회화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정신으로 창조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하였다.

옛사람의 시는 거친 고을의 야인(野人)이 스스로 지은 것 같아서, 관(冠)도 바로 제 손으로 만든 것이요, 띠도 역시 제 손으로 만든 것이요, 옷과 신발도 모두 제 손으로 만든 것이요, 기물(器物)도 역시 제 손으로 만든 것이라, 참된 마음이 표현되어 공拙(工拙)을 분별할 수 있거니와, 요즘 사람의 시는 서울의 선비와 같아서, 관은 바로 빌린 것이요, 띠도 바로 빌린 것이요, 옷과 신발도 역시 빌린 것이요, 기물도 모두가 빌린 것이라, 비록 아름답고 우아하여 불만한 것은 있을지라도 다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요, 동넙 이웃에게 빌리고 서넙 이웃에서 빌려 쓴 것이니, 무엇이 족히 칭할 것이 있으랴!

나는 『정절집(靖節集)』을 살펴보니, 곧 스스로 지어낸 것이라, 이 때문에 배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논하는 시는 남의 물건을 빌어서 벌여 놓기를 빈틈없이 잘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 혹자는 남의 물건을 빌어서 선후가 전도되고 본말이 착란되게 만드는 일도 있으니, 더욱 가소로운 일이다.⁶⁵⁾

而無光彩也 余則曰精神而形不似 寧似 光彩而他物 寧此物”. 『東坡詩集』에는 ‘賦詩必此物’이 ‘賦詩必此詩’로 되어 있다.

65) 李漢, 『星湖僿說』 卷29, 詩文門, 〈陶詩自做〉, “古人之詩 如荒郡野人 冠是自做 帶是自做 衣履是自做 器物是自做 真心見而工拙可別也 今人之詩 如京邑之士 冠是借物 帶是借物 衣履是借物 器物是借物 雖都雅可觀 皆非已有此物 東隣借用 西隣借用 何足稱也 余觀靖節集 卽自做出來 所以難學 今之論詩 不過借物 而善鋪排無罅漏也 又或有借物而顛倒錯亂之者 益可笑”

이익은 〈陶詩自做〉에서 자신의 창작이 아닌 것을 비판하였다. 거친 시골에서 나온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 표현이 남의 것을 빌려서 우아하고 세련되게 표현한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비록 빈틈없이 잘 구성해 놓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의 작품으로 스스로 지어내는 과정이 비록 배우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후와 본말이 바뀌게 되어 가소롭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사람들에게, “무릇 시(詩) 치고 진부(陳腐)하지 않은 것은 없다. 혹시라도 이것이 옛날에 없었던 것이라 한다면 그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가 하늘 이야기하는 격이다.” 하였다. 66)

〈奪胎換骨〉에서 시는 복고적인 면이 있어서 옛날을 이야기하는 면이 있으니 시라는 것은 진부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현재의 것이 옛날에 없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보지도 않고 현대의 것은 없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한 것으로 보았다.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하지도 않으면서 있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옛날에 해 오던 것만 익숙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 세계를 직접 보지 않고 옛날에 써오던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세계를 보고도 옛날에 쓰던 시어, 익숙한 말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매하다는 것이다. 결국 현실을 위주로 하여 눈에 보이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익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고금의 문장을 수목(樹木)에 비유한다면, 당우(唐虞)·삼대(三代)의 문은, 첫

66) 李瀾, 『星湖僊說』 卷29, 詩文門, 〈奪胎換骨〉, “余嘗語人曰 詩莫非陳腐 或以爲古無者 井蛙之談天也.”

여름에 꽃과 잎이 극히 무성하여 한 가지도 말라붙은 것이 없이 모두 찬란해서
 불 만한 것과 같고, 진(秦)·한(漢) 시대의 문은, 가을과 겨울 이후에 꽃도 지고
 열매도 떨어져 진형(眞形)만 그대로 있는 것과 같고, 후세의 문은, 단청(丹青)과
 회화(繪畫)로서 모양을 그려낸 것은 비록 근사하다 하겠지만 생생한 맛은 소상
 한 것과 같으며, 우리나라의 문은, 향사(鄕社)의 화사(畫師)가 실지의 물건은 보
 지 못하고 단지 전모(傳模)만을 의방하여 어렴풋이 복숭아나무에다 버드나무
 가지·살구나무 잎·아가위나무 꽃을 그려서 타원의 모습이 실지와 틀리고 색
 깔에 표준이 없으므로 결국 무슨 물건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⁶⁷⁾

이익은 〈古今文章〉에서 글에 있어서 과장과 수식을 지양하고 있다. 고금
 의 문장을 비유하자면 당우(唐虞)·삼대(三代)의 문장이 가장 찬란하고 후세
 의 문장은 근사한 것 같지만 생생한 맛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실제의 물건을
 보지 않고 단지 모방하고 그린 것은 결국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다며
 실제로 보고 그것을 사실적 묘사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 그려내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무릇 사물(事物)의 진경(眞境)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것이 듣는 것만 못하고
 듣는 것이 직접 보는 것만 못하지만, 혹시 백대의 전이나 천리 밖의 것이라면
 무슨 재주로 그 실상을 목도할 수 있겠는가? 오직 문자(文字)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글월을 심화(心畵)라 이르는 것이니, 그 상황과 용모를 그려내어 거
 의 그것을 보고서 그 실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일에 유익되게 하는 까닭이
 다. 그런데 혹시 헛된 글로 꾸며서 능히 십 분의 진실을 형용해 내지 못한다면,
 무슨 보탬이 될 수 있으랴?⁶⁸⁾

67) 李瀼, 『星湖僿說』 卷30, 詩文門, 〈古今文章〉, “古今文章 以樹木取比 唐虞三代之文 如方夏花葉極盛 無一條枯槁 而燦然可觀也 秦漢之文 如秋冬以後華實 摧落而眞形自在也 後世之文 如丹青繪畫摸狀 雖逼 而生意颯爾也 我東之文 如鄕社畫師不見其物 但憑傳摸依係 彷彿桃身柳枝杏葉棠花 圓楮違眞 丹碧無準 不審其何物也”

〈諫用兵書〉에서는 생각하는 것 보다 듣는 것, 이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낫지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면 실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음을 말하였다. 그래서 글을 心畫 라고 이르는데 헛된 글로 꾸며서 진실을 형용해 내지 못한다면 이익이 될 수 없다며 사물의 진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자를 사용하여 전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靑)·적(赤)·백(白)·흑(黑)은 동서남북 사방의 정색(正色)으로 빛나고 어리비쳐 안목을 어른거리게 하므로, 시가(詩家)들이 가져다 광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백(李白)의 모든 작품 같은 것도 반드시 금옥(金玉)·화조(花鳥)·금수(錦繡)·운하(雲霞) 등의 물건들을 사용하여 장점(粧點)해서 색태를 돋보이게 하였기 때문에, 읽어보면 자연 마음이 명랑해지고 눈이 즐거워진다. 그 이소(離騷)의 남은 뜻을 얻은 이는 오직 이백뿐이라 하겠다.

두보의 시에,

江碧鳥逾白 강물이 새파라니 새는 더욱 하얗고
山靑花欲燃 산이 푸르니 꽃은 불에 타는 듯하네

라 한 것을, 그 홍·백(紅白)이 청·벽(靑碧)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광채와 색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니 대개 말 만드는 묘법이다.

……

소동파에 이르러는,

春水蘆根看鶴立 봄물의 갈대 사이 학이 홀로 서 있고
夕陽楓葉見鴉翻 석양의 단풍잎에 갈가마귀 번득이네

라고 하였으니, 여섯 가지 물건을 합쳤으나 그 색태를 드러내지 않았으니, 더

68) 李漢, 『星湖僿說』 卷30, 詩文門, 〈諫用兵書〉, “凡事物之眞境 思不如聞 聞不如見 或百世之前 千里之外 何得以目觀其實狀 惟付在文字 故曰書心畫也 畫出狀貌庶幾其彷彿 見之而有益于事也 或虛文飾彩 不能形容說出於十分眞實 何補之有”

욱 정밀한 단련을 보겠다. 이는 곧 암호같은 종류의 표현이다.⁶⁹⁾

이익은 〈詩家增光〉에서 이백과 두보의 작품을 통해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있는 그대로의 풍광을 색채감을 살려서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익은 시에 있어서 두보, 이백과 같이 대상의 모습과 색채를 돋보이게 하여 사실적이면서도 회화성을 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것이 시인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회화적 이미지의 강조를 위한 색채적 표현은 시의 사실성을 높이며 이익의 자연시에서도 다양한 감각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를 논하자면, 반드시 그 작자의 처지 내에서 궁구해야만 비로소 무슨 뜻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읽는 자는 마땅히 두보로 두보를 풀이해야 한다.⁷⁰⁾

이익은 〈以杜釋杜〉에서 시에는 당시의 작가가 처한 현실에 중심을 두고 작품이 이루어지며 그 당시의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에 있어서도 작가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익은 문학이 實과 합치되는 그림이어야 하고, 實과 합치되는 詩文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기 위해서 그는 좋은 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시를 실제 그 삶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두보의 시는 두보의 삶 속

69) 李漢, 『星湖僿說』 卷30, 詩文門, 〈詩家增光〉, “靑赤白黑 四方之正色 輝映眩目 詩家以之增光 如李白 諸作 必用金玉花鳥錦繡雲雪等物 粧點生態 故讀之爲之心明眼悅 其得離騷餘意者 惟白也 杜甫詩 江碧鳥 逾白 山靑花欲燃 以其紅白在靑碧之間 故其光色益鮮 造語之妙也 … 至東坡則 曰春水蘆根看鶴立 夕陽楓 葉見雅纖 合六物而不露其色 尤見精琢 卽暗謎之類也”

70) 李漢, 『星湖僿說』 卷28, 詩文門, 〈以杜釋杜〉, “論詩 必於其人 究之方見造意之如何 … 讀者 宜以杜 釋杜”

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문학이 가지는 수식적 기교 보다는 작가가 살고 있는 삶의 맥락 내부에서 詩文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 현실 지향의 시각은 현재 보여지는 세계, 보여지는 사물을 시화하는 것이 중요시 되어 일상이 詩化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일상의 시화는 내 주위, 현실에 대한 생각과 의식이 우리 것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나게 되고 자주적 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3. 自主 意識의 발현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학문적 공통점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점이다. 성호 이익은 주자학을 따르는 사대부이면서 당시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실질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실학적 사상으로 인하여 反中華 세계관이 확대되며 이익의 자주적인 역사 인식은 그의 역사관이면서 글에 있어서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지금 중국이라는 것이 대지 가운데의 한 조각 땅에 불과하다 …… 그리니 지구의 전체 지도를 가지고 보는 것만 못하다. …… 그러나 각 지방에서 거주하는 데마다 해가 뜨는 곳을 동쪽, 해가 지는 곳을 서쪽이라 할 터이니 사방의 위치가 고정되지 못할 듯하다.⁷¹⁾

이익은 〈分野〉에서 중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적인 관점을 중시

71) 李瀾, 『星湖僊說』 卷2, 天地門, 〈分野〉, “今中國者 不過大地中一片土 … 然不若以大地全圖 … 然各方所住 必以日出爲東 日入爲西 疑若四方之不定”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선에 실증적이며 고증적인 학문과 서학이 유입되며 그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대지의 한 조각 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구 전체 지도를 가지고 보아야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각 지방의 거주하는 곳에서 바라보게 되면 사방이 고정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상대적 시각을 알게 되어 중국도 세상의 한 지역에 불과하다며 중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역사 서술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星湖僊說』의 글과 『星湖全集』에서의 안정복과의 서신의 내용을 통해 구체적 내용과 그의 역사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은 동방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유독 동방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누가 읽겠는가.”라고까지 말하니, 사리에 어긋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우리나라일 뿐이어서 제도와 형세가 자연히 중국의 역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대(事大)하고 교린(交隣)하는 가운데 옛일에서 증험해 보고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진실로 헤아려 보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이것에 대해 몽매합니다. 이것에 대해 더욱 설(說)을 세워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72)

객관적 사실을 통한 실증적 접근은 기존의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것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게 되었으며 역사 서술에서도 객관적이고 비판적이며 실증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믿었다. 이익은 안정복의 서신에 답하며 지금 사람들이 동방에 태어났으면서도 동방의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우리나라는 본래 우리나라일 뿐이라

72) 李瀾, 『星湖全集』 卷25, 511c면, 〈答安百順 乙亥〉, “今人生乎東邦 惟東事全不省覺 至曰東國通鑑 有誰讀之 其乖戾如此 東國自東國 其規制體勢 自與中史有別 其事大交鄰之間 驗古準今 誠有不可不商量者 東人蓋昧昧然也 此尤合立說而分曉之也”

서 제도와 형세가 중국의 역사와는 차이가 있으니 우리의 역사의 이론을 세워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자주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뜻을 두고 계시다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가 번쩍 뜨이게 합니다. 늙은 나는 기력이 이미 미칠 수 없습니다. …… 조선 역시 문명한 나라인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어찌 역사를 서술할 만한 선비 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일에는 반드시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한(馬韓)의 주근(周勤)과 고려의 조위충(趙位寵) 같은 사람은 반역자의 반열에 있지 않아야 할 듯하니 이와 같은 부류의 사례에 대해 마땅히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⁷³⁾

이 서신에서 그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논할 시기가 되었다면서 역사의 구체적 사례들을 검증하며 조선의 문명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저술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三韓正統論〉으로 이익의 역사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소중화(小中華)’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열국(列國)이 대적할 수 없는 점이다. 그렇다면 길흉과 성쇠가 비슷하게 귀착되는 것은 또한 그러한 이치가 있어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한이 바로 동국의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다.⁷⁴⁾

이익은 우리나라를 중국에 대하여 小中華라고 부르는 것으로 열국에 대적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고조선의 정통이 삼한(三韓)

73) 李漢, 『星湖全集』 卷25, 503a면, 〈答安百順 乙亥〉, “留意東史 令人耳惺 老夫力已不可及 … 朝鮮亦冠紳之國 上下累數千年 豈無一執簡士哉 意者事必有待也耶 如馬韓周勤麗時趙位寵 恐不在反逆之科 此類宜在商量”

74) 李漢, 『星湖全集』 卷47, 363c면, 〈三韓正統論〉, “說者 必曰小中華 此列國之所不得與抗 則吉凶汗隆 彷彿同歸 亦或有其理在也 余故曰馬韓者 卽東國之正統也.”

가운데 마한(馬韓)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독자적이며 자주적인 역사의식은 후대 안정복에게 이어져서 그의 저술인 『東史綱目』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 역사의식은 당시의 우리나라의 구체적 명칭에 대한 영역으로 의론을 확대한다.

다음은 〈別紙〉의 내용이다.

우리나라 군국(郡國)과 산수의 명칭은 뒤섞여서 밝히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칠어서 본국의 역사를 믿지 않고 매번 중국 역대의 지지(地誌)를 근거 삼아 그것을 따다 쓰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혹시 전해 들은 것으로 인하여 근거를 삼더라도 수천 수만 리 밖의 일을 어떻게 하나 하나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사람마다 각각 이름이 있는데, 외부 사람이 만약 갑(甲)을 을(乙)이라고 부른다면 자기가 갑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도리어 을이 아닐까 의심하는 것과 같으니, 매우 우습습니다. 내가 압록(鴨綠)을 격수(溟水), 청천(淸川)을 산수(澗水), 대동(大同)을 열수(洌水), 저탄(豬灘)을 패수(溟水), 한강(漢江)을 대수(帶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 백두산 일대 또한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강역이 되어 우리나라가 가장 동쪽의 나라가 되었으니, 조선이라는 명칭은 그 형세가 의당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대략이고, 소소하게 합치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예로 삼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⁷⁵⁾

이익은 객관적 자료와 고증을 통해 우리의 역사에 이어 지명과 산수의 명칭에까지 의견을 이어나가 그 연원을 밝힌다. 우리나라 지명과 산수의 명칭이 뒤섞여 밝히기 어려우며 그것은 우리의 역사를 믿지 않고 중국 역대의

75) 李瀼, 『星湖全集』 卷20, 421d면, 〈答尹幼章 丙子〉, ‘別紙’, “我國郡國山水之名 錯互難明 東人魯莽不信本史 每據上國歷代地誌而攙錄之 所以尤難 上國人或因傳聞爲證 千萬里外事 如何能一一明著耶 比如人各有名 而外人或呼甲爲乙則不信己之爲甲 而反疑其爲乙也 甚可笑也 吾以爲鴨綠爲溟水 淸川爲澗水 大同爲洌水 豬灘爲溟水 漢江爲帶水 此則無疑 … 白頭之幹 亦自此而來 爲我邦域 爲最東之國 朝鮮之稱 其勢宜然 此其大較也 小小不合 宜以此例看”

기록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라 하며 누구나 부르는 이름이라는 비근한 예로 이해를 돕는다. 전혀 상관없는 중국의 史家인 제삼자는 제대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며 우리의 명칭을 우리가 밝혀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의 실증적 고찰을 통해 확인한 지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조선 땅과 백두산의 명칭과 형세를 정립하였다. 이렇게 그의 우리 땅에 대한 자주적 의식은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의견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세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객관적 사실을 통한 자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자주적 의식의 확대라는 근대적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여러 작품에 반영되어 드러나는데 이익은 『星湖僿說』에서 우리나라의 백두산, 금강산, 울릉도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이익의 詩에서도 북한산, 금강산, 치악산, 관악산, 아차산 등 우리나라 곳곳의 지명을 소재로 하여 그곳의 아름다움과 특색을 자부심을 가지고 표현하여 그의 자주적 의식을 보여준다.⁷⁶⁾

그의 시문이 실용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은 360개 가량의 우리나라 속담을 8언으로 漢譯한 한역속담집 『百彥解』에서 드러난다. 다음은 『百彥解』 발문이다.

속담이란 비속한 말이다. 여자나 어린아이의 입에서 만들어져 향간에 유행되고 있으나, 인정을 살피고 사리에 정협함으로써 뺏속 깊이 들어가 털끝처럼 미세한 부분까지 파고드는 점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처럼 널리 유포되어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겠는가. 『시경』에 이르기를 “나무꾼에게도 물어보라. [詢于芻蕘]”라고 하였다. 나무꾼이 하는 말은 본디 경전의 뜻을 인용하거나 화려하게 꾸며대어 듣기 좋게 하거나 기분 좋게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그 말을 채용하였으니, 어찌면 실제 일어나는 일들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 나는 일찍이 뒷골목에서 듣거나 길 가다 들은

76) 제 4장 시세계에서 ‘4. 산수경물에 대한 애호’의 내용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속담이 있으면 그때마다 수시로 기록해 두었다. 얼마 후 한 시대에 통행된 방언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혹 가리키는 바가 혼동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 이에 몇 마디 말을 덧붙여 그 뜻을 풀이해 놓았다. 그리고 그 제목을 『백언해(百彦解)』라 하였다. 백(百)이라는 것은 많다는 것이다.⁷⁷⁾

속담은 비속한 말로 민가에서 향간에 유포되어진 말이며 이것은 사람의 眞情이 드러나 있어서 오랫동안 전해지며 마치 詩經과 같으며 비유하였다. 詩經이 비록 화려하게 꾸미진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사실의 반영이므로 실제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世敎의 效用이 있다고 여겨서 중국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속담을 찾고 직접 말을 채집하여 기록해 두었다. 당시에 현실에 사용된 방언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뜻을 풀이하고 『百彦解』라고 지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뒷골목에서 사용된 방언 하나하나를 『詩經』에 비유하며 기록한 것은 여항의 말이 시경의 국풍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익의 『百彦解』는 그의 재도적 관점과 현실 지향의 의식이 함께 반영되어 드러난 것이며, 특히 우리의 방언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우리 것에 대한 자주적 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다음의 〈八方風〉에서도 드러난다.

나는 농어촌(農漁村)에 살고 있어서 그들의 속담을 많이 들어 알고 있다. 비가 오고 바람 불 것을 미리 점치는데 바람의 이름이 각각 다르다. 동풍을 셋이라 하는데 곧 명서풍(明庶風)으로 『이아』의 곡풍(谷風)이라는 것이요, 동북풍을 늙새바람이라 하니 곧 조풍(條風)이요, 남풍을 마파람이라 하니 곧 경풍(景風)으로 『이아』에 개풍(凱風)이라는 것이요 …… 이것들은 모두 시(詩)짓는

77) 李瀾, 『星湖全集』 卷56, 542a면, 〈百諺解跋〉, “諺者 粗俗之談也 成於婦孺之吻 行於委巷之間 察之人情 驗之事理 有刺骨入髓 覈究乎毫芒之細者 不然其何能流而布之 傳久而不泯若是哉 詩曰詢于芻蕘 芻蕘之爲言 固無據典引義 增華飾彩 可以悅耳而賞心者 然且採之 豈非蹈于實而適乎務哉 … 余嘗有聞於閭井 聞於行道 輒隨而錄之 既而又懼夫一時方言 久或迷指 於是加之數語爲之解 目之曰百諺解 百者大數也.”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⁷⁸⁾

자신이 농어촌에 살고 있어서 민가의 속담을 많이 알 수 있으며 바람의 이름이 모두 각기 다른데 시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가에서 말하는 바람 이름조차도 하나하나 확인하여 기록으로 설명하는 실증적인 모습과 이 모든 것을 시의 소재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은 그의 현실 중시에 대한 강조임과 더불어 우리 것에 대한 의식의 확대이며 자주적 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의 것을 주체적으로 찾아가는 의식은 그의 〈海東樂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악부는 고려 중엽에 유입이 되었으며 고려말 신진사대부 계층에 의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고려말의 민가적 성격을 지닌 악부시는 조선 전기에 본격적으로 출현하며 조선후기의 詠史樂府로 진행된다. 악부시에는 우리의 풍속과 서민적 애환이 그려져 있으며 후기 영사악부는 민족적인 감정을 읊게 된다.⁷⁹⁾

이익은 대략 1,200여 수의 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서도 〈海東樂府〉 119수는 그의 문학관이 드러난 결과이다. 이익의 〈海東樂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조 광해군 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에서 특이한 사건에 관계된 사물·인물 등을 시제(詩題)로 내세워 사건의 내용과 감상을 묘사하여 서술한 영사시(詠史詩)이다. 이 작품에서는 이익의 우리 역사에 대한 애착과 지식이 돋보이며 우리 역사에 대한 그의 자주적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형식적인 면에서 〈海東樂府〉는 서사적인 시이므로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하는 근체시로는 짓기가 어려워 고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선 후기는 문학론에서 근체시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그러다 보니 시인으로 하여금 진솔한 감정

78) 李瀛, 『星湖僿說』 卷2, 〈八方風〉, “余處耕漁之間 多詢俚語氓俗 候雨占風 名號各殊 東風謂之沙 卽明庶風 爾雅謂之谷風也 東北風謂之高沙 卽條風也 南風謂之麻 卽景風 爾雅謂之凱風也 … 皆可以入詩料”
79) 박명희, 앞의 논문, 10-12면.

의 표현을 위하여 고시의 창작을 선호하게 하였다. 이익은 앞서 〈詩家藻繪〉에서 고시와 근체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에 대하여 뜻이 발하여 드러난 것으로 보았다. 말이 있고 뜻은 있는데 말은 마칠 수 있으나 뜻은 다할 수가 없어서 시를 짓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를 써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고시를 추구하게 되며 글자가 많아지고 꾸밈이 많아지는 근체시의 폐단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익은 이러한 자유로운 표현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상고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악부체로 지어서 〈海東樂府〉를 편찬하였고 詩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역사와 지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등 자주적인 의식이 면면히 드러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익의 문학관은 성리학적인 견해를 수용하여 재도주의 문학관을 수용하면서도 그의 실학적 사유로 인하여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현실을 지향하고 있고 우리의 것을 수용하는 자주 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이러한 그의 문학관이 시세계와 어떠한 연결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 작품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다.

IV. 詩世界

일반적으로 작가의 작품은 작가의 삶과 의식에 영향을 받고 이는 작품 속에 투영이 되게 된다. 작가가 소통하고 살았던 시대적·공간적 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문학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성호 이익 역시 〈以杜釋杜〉에서 시에는 작가가 처한 현실에 중심을 두고 작품이 이루어지며 당시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가 두보의 시를 두보로 풀이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이익의 시를 논하자면, 반드시 그의 처지 내에서 살펴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⁸⁰⁾

이익이 살았던 조선 후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잠재되어 있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시기였으며 새로운 학문의 유입으로 사대부 의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치적으로 각 정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집안의 화를 겪으며 이익은 세속에 환멸을 느껴 모든 것을 떠나 안산의 성호장에 칩거한다. 그리고 재야에서 선비이자 학자로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립하게 된다.

당시 사대부라면 마땅히 出處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세상에 대한 염증 그리고 평소 이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던 이익은 處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학문과 후학양성, 저술 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옛날 도연명과 같이 자연을 벗하는 隱者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자신의 학문과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삼고 정신적 도야와 학문적 실천에 힘썼다.

80) 李瀾, 『星湖僊說』 卷28, 詩文門, 〈以杜釋杜〉, “讀者 宜以杜釋杜”

.....

懿歎彼賢智	훌륭하여라 저 지혜로운 성현들은
立身何其雄	몸가짐이 그 얼마나 웅대했던가
處約恒達權	곤궁한 처지에도 늘 권도에 통달해
緬然有餘風	유유히 여유로운 풍모 있었네
在物志常伸	사물에 있어서 뜻을 늘 펼치니
何必苦諱窮	곤궁함을 숨길 필요 어디 있으랴
勸哉吾黨人	힘쓰라 우리 학문하는 사람들이여
努力萬籜中	만 권의 책 속에서 노력하여라 ⁸¹⁾

이익은 도연명의 시에 차운하며 자신 역시 옛 지혜로운 성인의 웅대한 자취를 본받아 여유로운 풍모로 곤궁함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쳐 더욱 학문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가난과 질병으로 인한 현실의 삶은 녹록치 않았으며, 농촌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백성의 고단한 삶과 사회 제도의 모순, 현실에 대한 의식은 그를 끊임 없이 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 주었다. 학문적 성취와 성찰을 통해 그의 의식은 더욱 확대되어 나갔고 농촌의 삶 속에서 백성의 삶에 대하여 학자로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구안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자신이 당장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식인 이익은 그가 인식한 세상의 부조리와 문제점에 대하여 글을 통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갔다. 이러한 의식적 자각과 실행을 위한 노력이 이익을 현실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학문, 곧 實學으로 이끌게 된 것이다.

문학에 있어서 실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대부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대부 문학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특히 18세기 새로운 학문 경향과 사상

81) 李瀾, 『星湖全集』 卷1, 052d면, 〈次陶淵明詩 三首〉 중 2수

의 조류로 성립된 성호학파는 주로 ‘經世致用的 學’을 위주로 하였으며 실학적인 현실 인식을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는데⁸²⁾ 이러한 점들이 이익의 시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재야의 선비이자 학자로서, 그가 바라본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실학에 대한 입장이 그의 문학 특히 시세계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크게 만시와 교류시, 생활시와 자연시의 네 주제로 구분하여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성호 이익의 개별 시작품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접근을 통해 그의 인간적인 감성과 시인으로서의 의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挽詩에 드러난 의식의 지향

이익은 그의 일생에 걸쳐 135제 251수의 만시를 지었다. 만시(挽詩)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글로 만사(挽詞), 만장(輓章)이라고도 한다. 한시사에서는 죽음을 소재로 한 시들이 계속 창작되어 왔는데 만시는 죽음의 비애와 인생의 무상함, 죽은 이를 보내는 남은 이들의 서술이라는 특징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학덕, 이력, 선행, 문장, 직위 등에 대한 칭송과 친분관계, 평소의 추억, 인생의 허무 등이 표현된다.⁸³⁾ 형식은 일정하지 않으며 오언절구와 오언율시 또는 칠언절구와 칠언율시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고시체, 4자체로 쓰는 경우도 있다. 만시는 조선 시대에 활발하게 창작되었는데 대상과 소재에 있어서도 이 전에 비해서

82) 임영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420면.

83) 주기평, 「中國 挽歌詩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대한 一考察」, 『中國文學』 Vol.60, 한국중국어문학회, 2009, 35면.

확대되었다.⁸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 후기를 살아간 성호 이익의 만시를 중심으로 그의 작품의 특징과 의식의 지향을 살펴보겠다.

다음은 『星湖全集』에 수록되어 있는 挽詩의 개황이다.

	권1	권2	권3	권4	권5	권6	합계
편제(수)	9(19)	23(43)	28(55)	17(33)	30(48)	28(53)	135(251)

『星湖全集』에는 卷1~卷6에 한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전체 631제 1,178수 중 만시의 수는 135제 251수로 약 21%를 차지한다. 이익은 스스로가 시인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평생에 걸쳐 많은 시를 남겼고, 그 중에서도 만시의 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 시대 선비로서 시는 당연히 익혀야 하는 필수적인 교양이었으며 특히 죽음 앞에서 쓰는 만시는 스스로 또는 주위의 부탁으로 짓게 되는데 이익은 벼슬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야 학자로서 꾸준히 만시를 써왔다. 이를 통해 이익이 당시에 주위에 만시를 써줄 만큼 많은 명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가 문장과 더불어 시적인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星湖全集』 卷1 소재 만시의 형식과 대상인물

연번	『星湖全集』 卷1 (차례)	시제	형식	대상인물
1	5	挽坡隱朴先生 浩 三首	칠언절구	朴浩(선생)
2	10	挽洪進士敍翰 二首	칠언율시	洪敍翰
3	20	哀紺岳處士	오언고시	紺岳處士(벗)
4	37	輓權伯臨進士 三首	칠언율시	權伯臨
5	42	輓咸卿	칠언고시	咸卿(재종질)
6	72	挽權參判 珪	오언고시	權珪

84) 하정승, 「김삿갓의 挽詩類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특질」, 『漢文古典研究』 Vol.29, No.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4, 225면.

7	82	挽趙進士 命迪 三首	칠언절구	趙命迪
8	91	挽權同知 晚 二首	칠언절구	權晚
9	93	挽宋僉知 三首	칠언절구	宋僉知

<표3> 『星湖全集』 卷2 소재 만시의 형식과 대상인물

연번	『星湖全集』 卷2	시제	형식	대상인물
1	5	挽尹處士 侏 二首	칠언율시	尹侏
2	10	挽人 姓名逸 後并全	칠언율시	人 姓名逸
3	15	挽權修撰 斗經 三首	칠언율시	權斗經
4	17	挽鄭進士 規柱 三首	칠언율시	鄭規柱(벗)
5	46	挽洪判書 萬朝 三首	칠언절구	洪萬朝
6	47	挽朴教官 繹 五首	칠언절구	朴繹
7	53	挽鄭進士 漢周	칠언율시	鄭漢周
8	54	挽許進士 煜 三首	칠언율시	許煜(벗)
9	55	挽洪承旨 重禹	칠언율시	洪重禹
10	57	挽申左尹 慶濟	칠언고시	申慶濟
11	58	挽鄭判事 行五	칠언고시	鄭行五
12	59	挽李斯文 光道	칠언율시	李光道
13	60	挽沈斯文 得萬 二首	칠언율시	沈得萬(벗)
14	61	挽韓直長 德師	칠언율시	韓德師
15	62	挽趙牙山 九輅	칠언율시	趙九輅
16	72	挽李畏菴 栻 四首	칠언율시	李栻(선생)
17	73	挽崔進士 四首	칠언절구	崔進士
18	77	挽趙都事 九鼎	칠언율시	趙九鼎
19	92	挽蔡參判 彭胤	칠언율시	蔡彭胤
20	95	挽許天安 源	칠언율시	許源
21	106	挽許參奉 極	오언고시	許極
22	111	挽尹處士 伉	잡언체	尹伉
23	112	挽李同知 潤	칠언고시	李潤

<표4> 『星湖全集』 卷3 소재 만시의 형식과 대상인물

연번	『星湖全集』 卷3	시제	형식	대상인물
1	6	挽息山李先生 萬敷 三首	칠언율시	息山李萬敷(선생)

2	10	挽李持平說道 憲 三首	오언절구	李憲
3	11	挽李進士華卿	칠언율시	李華卿(미상)
4	12	挽仁叔令公 三首	칠언절구	仁叔令公(재종질)
5	13	挽人	칠언율시	人(벗)
6	14	挽人 三首	칠언절구	人(벗)
7	16	挽姜主簿 世貞 二首	칠언율시	姜世貞(벗)
8	26	挽洪一兼 六首	칠언절구	洪一兼(벗)
9	29	挽吳佐郎 大觀 三首	오언고시	吳大觀
10	30	挽尹平叔	칠언율시	尹平叔(벗)
11	47	挽金騎省天叔	칠언율시	金天叔
12	49	挽李光遠 二首	칠언율시	李光遠(벗)
13	51	悼尹復春 東軫	칠언절구	尹東軫
14	55	悼聖肯	오언율시	聖肯(족질)
15	60	挽洪參奉 重旭	칠언고시	洪重旭(미상)
16	61	挽人 四首	오언절구	人(미상)
17	62	挽金益山 二首	오언율시	金益山(미상)
18	66	哀族人載道 二首	오언고시	族人載道 (재종증손, 제자)
19	86	挽吳都正 二首	칠언율시	吳都正(선배, 미상)
20	96	挽申騎省日新 二首	오언율시	申日新
21	97	挽金上舍 泰潤	칠언율시	金泰潤
22	98	挽人	오언고시	人
23	99	挽陸藍浦士懋 三首	칠언절구	陸士懋
24	101	挽崔季亮 明瑞	칠언율시	崔明瑞
25	102	沈判書遷葬挽	칠언율시	沈遷
26	106	挽李燕歧汝淨 二首	칠언율시	李汝淨(벗)
27	107	挽韓進士晦叔	칠언율시	韓晦叔(벗)
28	109	挽鄭東望	칠언율시	鄭東望

<표5> 『星湖全集』 卷4 소재 만시의 형식과 대상인물

연번	『星湖全集』 卷4	시제	형식	대상인물
1	1	挽人 二首	칠언율시	人
2	7	挽李都正 弘模 二首	칠언율시	李弘模
3	8	挽許美叔	오언고시	許美叔

4	12	挽鄭承旨 宇柱 二首	칠언율시	鄭宇柱
5	16	挽柳進士 珩 二首	칠언율시	柳珩
6	31	挽黃大叟 四首	칠언율시	黃大叟
7	38	挽金進士仲鎮 華潤	칠언율시	金華潤(벗)
8	39	挽李養中	칠언율시	李養中
9	41	挽閔斯文 鈺 五首	사언고시	閔鈺
10	53	挽安參奉 憲增	칠언율시	安憲增(벗)
11	54	挽權承旨 始經	칠언율시	權始經
12	55	挽金潭陽 得大 三首	칠언율시	金得大(벗)
13	58	挽趙進士 漢師	칠언율시	趙漢師
14	60	挽李正言 濰 三首	사언고시	李濰(중친)
15	63	挽尹進士 弼重 二首	칠언절구	尹弼重
16	67	挽姜僉知	칠언율시	姜僉知(미상)
17	68	挽人	칠언율시	人(벗)

<표6> 『星湖全集』 卷5 소재 만시의 형식과 대상인물

연번	『星湖全集』 卷5	시제	형식	대상인물
1	2	挽申僉知	칠언고시	申僉知(인척)
2	8	挽鄭獻納叔瞻 五首	칠언절구	鄭叔瞻(벗)
3	9	挽韓參奉 處相 二首	칠언율시	韓處相(벗)
4	10	挽趙斯文 守德 二首	칠언율시	趙守德
5	14	挽李斯文 善恒	칠언율시	李善恒
6	16	挽李進士元賓	칠언율시	李元賓
7	22	哀洪天老	오언고시	洪天老 (미상, 제자로 추정)
8	24	挽閔僉正汝和 二首	칠언율시	閔汝和(벗)
9	26	挽尹進士巨源 三首	칠언절구	尹巨源
10	35	挽李同知 徵台 二首	칠언율시	李徵台
11	36	挽權同知 諫 二首	칠언율시	權諫(친척)
12	37	挽許處士 潤 二首	칠언율시	許潤
13	39	挽鄭華玉 二首	오언고시	鄭華玉
14	42	挽柳進士來卿 二首	칠언율시	柳來卿
15	48	挽趙主簿 守弘 二首	칠언율시	趙守弘(벗)
16	49	挽李掌令來慶 三首	칠언절구	李來慶

17	57	挽李虞侯 奉周	칠언율시	李奉周(중친)
18	62	挽沈進士 得三	칠언율시	沈得三
19	68	挽李進士象之	칠언율시	李象之
20	90	挽洪僉正 尙輔	칠언율시	洪尙輔(벗)
21	91	挽李僉樞 漢謙	칠언율시	李漢謙
22	92	挽尹同知 僞	칠언율시	尹僞
23	94	挽李砥平 彦基	칠언율시	李彦基
24	98	挽丁進士 志濂	칠언율시	丁志濂
25	110	挽李斯文 景翼 二首	칠언율시	李景翼(벗)
26	111	挽尹處士聖仲	칠언율시	尹聖仲 (李澈의 문인,미상)
27	112	挽趙斯文伯曾	칠언율시	趙伯曾
28	119	挽權進士 洞	칠언율시	權洞
29	120	挽李進士 彙升	칠언율시	李彙升(벗)
30	123	挽鄭僉知汝逸	칠언율시	鄭汝逸(벗)

<표7> 『星湖全集』 卷6 소재 만시의 형식과 대상인물

연번	『星湖全集』 卷6	시제	형식	대상인물
1	1	挽囿春 四首	칠언율시	囿春(족손)
2	2	挽洪都正亮卿 重寅 四首	칠언절구	洪重寅
3	3	挽韓斯文用晦 三首	칠언율시	韓用晦
4	4	挽鄭斯文 昌聞	칠언율시	鄭昌聞(벗)
5	5	挽洪處士 重熙	칠언율시	洪重熙(처사)
6	6	哀中行 三首	칠언절구	權貴經(외종사촌)
7	7	挽汝謙	칠언율시	汝謙(李澈의 문인)
8	10	挽洪天老	칠언율시	洪天老(벗,미상)
9	15	挽李致和 國春	칠언고시	李國春
10	22	挽李正言 宗延	칠언율시	李宗延
11	25	挽申進士 史權	칠언율시	申史權
12	31	挽李志新	칠언절구	李志新(의원)
13	32	哀族人君西 載華	칠언율시	族人君西 載華(족손)
14	37	悼亡 三首	칠언절구	제자
15	41	挽李進士汝久 二首	칠언율시	李汝久(벗,인척)
16	42	挽鄭進士時中 三首	칠언율시	鄭時中(친족)

17	43	挽洪徵士德海 三首	칠언율시	洪德海(벗)
18	44	悼黃進士靜叔	오언고시	黃靜叔
19	47	挽李典簿 世翼	칠언율시	李世翼(벗)
20	48	追挽李洗馬 光庭 二首	칠언율시	李光庭
21	50	挽岵雲翁柳 德章 四首	칠언절구	柳德章(벗)
22	55	挽洪聖文 昌輔	칠언율시	洪昌輔(벗)
23	56	挽金執義仲綏	오언고시	金仲綏(벗)
24	66	挽鄭參議 重器	칠언율시	鄭重器
25	67	挽權長水淸之	칠언율시	權淸之(벗)
26	68	挽權知事台仲 相一 三首	칠언율시	權相一
27	72	挽洪判書錫余 二首	칠언절구	洪錫余
28	73	挽朴西溪 二首	칠언율시	朴西溪

성호 이익의 만시는 권1에 9제, 권2에 23제, 권3에 28제, 권4에 17제, 권5에 30제, 권6에 28제가 있으며, 만시 중에 연작시는 권1 6제, 권2 9제, 권3 15제, 권4 9제, 권5 13제, 권6 13제이다. 이익이 평생에 걸쳐 꾸준하게 만시를 지었으며 연작시로도 적지 않게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만시는 죽음을 애도하는 시이다. 고인을 추모하고 슬픔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고인에 대한 추억과 관계가 드러나며 이를 통해 성호 이익의 어떠한 인물과 교류하였는지 그가 추존하는 인물이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성호 이익이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를 통해서 이익의 인품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점을 추출할 수 있는 관점에서 만시를 보려 한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만시는 애도시로써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게 되며 이익 역시 자신의 감정을 시안에 녹여내고 있다. 만시가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남은 이들이 얼마나 슬프냐 혹은 어떻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지, 얼마나 문학적인지, 그 슬픔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 해 내는지가 기존 논문의 서술 포인트였다면, 이익의 만시는 대상 인물에 대한 인품, 어떠한 인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서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식적인 면을 살펴보면 전체에서 칠언율시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칠언율시는 만시의 일반적인 형태로 그 외에 칠언절구, 오언절구, 고시, 잡언체 등 다양한 형식이 보인다. 이익 만시의 대상 역시 친인척, 선후배, 성호장 주변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교류하던 인물에서부터 제자, 벗, 학문적 동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렇다면 이익의 만시의 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단지 교류하는 사람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의 시적 능력과 더불어 그가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시가 가지고 있는 죽음과 헤어짐이라는 상황에 대하여 이익이 생각하는 죽음은 일반적인 슬픔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다음 만시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聖肯來問疾	성궁 그대 나에게 문병 왔을 땐
怪我或慮死	죽음 생각하는 나를 이상타더니
催歸便不起	서둘러 돌아가선 못 일어났으니
存沒果如此	삶과 죽음 과연 이와 같구나
我生日夜苦	나는 살아 밤낮으로 고통 받는데
君歸順天理	그대는 순리대로 돌아갔구나
以此持比彼	산 나와 죽은 그델 비교해 보면
未知孰樂耳	누가 더 즐거운지 모르겠어라 ⁸⁵⁾

죽질인 이당휴의 자는 성공으로 『星湖全集』에 여러 차례 시를 통해 교류한 내용이 보여⁸⁶⁾ 매우 가까이 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친족으로서 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며 지냈던 이당휴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감정과 삶과 죽음의 허망함에 대하여 읊고 있다. 그렇게나 가까운 이

85) 李瀾, 『星湖全集』 卷3, 099c면, 〈悼聖肯〉

86) 李瀾, 『星湖全集』 卷2, 071b면, 〈謝族姪聖肯 堂休 惠竹帚〉, 074a면 〈送聖肯〉, 075d면 〈復次聖肯宗會韻 二首〉에 이당휴와 시를 통한 교류의 내용이 보인다.

에 대한 죽음의 시선을 통해 유자로서 그의 죽음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시의 수련과 함련에서는 고인의 생전 모습을 회상한다. 자신에게 문병을 왔을 때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에게 괴이하다고 했던 이가 먼저 죽은 것에 대하여 삶과 죽음이 허망함을 말한다. 경련과 미련에서 자신은 살아서 병들어 밤낮으로 고통받는데 자신을 위로하던 그 사람은 순리에 따라 갔을 뿐이라며 살아있는 자신과 죽은 이당휴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즐거운지 모르겠다며 되묻고 있다. 고통받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산 자와 죽은 자 중 누가 더 즐거운지 모르겠다라는 반문은 오히려 영결의 안타까움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된 감정 속에서 담담하게 남은 이의 슬픔이 배어 나오는 悲壯美를 느끼게 한다.⁸⁷⁾ 그래서 만시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슬픔의 표현보다는 순리로서의 삶과 죽음이며 이에 대해 숙명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것이 바탕에 있어 가능한 것이다. 세상을 떠난 네가 순리고 내가 살아서 늙어 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과연 즐거운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반문을 담고 있는 것이다. 슬픔의 감정이 상당히 절제된 상태로 드러나며 죽음에 대한 인식이 만시의 장르에 충실하면서도 그의 만시에는 철학적, 유자적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리어 그는 죽음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더욱 안타까워 한다. ‘무엇보다 한스러운 것은 재주를 품고서 이루지 못한 것’⁸⁸⁾이라는 그의 탄식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보여주며 재주가 있으나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하여 시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 것은 그가 그토록 많은 만시를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87) 윤재환, 앞의 논문, 2011, 14면.

88) 李瀾, 『星湖全集』 卷3, 131b면, 〈哀洪天老〉, ‘然惟最關恨 有才不成器’

1) 眞儒의 발굴

이익의 죽음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인해 그의 만시에서는 대상인 그 인물을 잘 들여다보게 만든다. 사람에 대하여 그 자체를 그려주고 그로 인해 관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만시 속에는 그가 교류한 인물에 대한 인품과 그에 대한 구체적 표현을 통해 이익이 지향하는 의식의 경향성을 엿볼 수 있다. 성호 이익은 재야 선비로서 삶을 살면서 친인척, 관료, 학자, 중인 등 여러 인사들과 교류를 하며 만시를 쓰게 된다. 그는 학자로서 평생을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교류한 인물들 중에는 학문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하며 학자로서의 삶을 살다간 이들이 많았다. 이러한 지점에서 이익의 만시 작품에서 보여주는 문학과 시적인 감동에 더불어 그의 특징적 표현의 하나는 참된 선비[眞儒]에 대한 추구하고 묘사이다. 특히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유자로서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서술이 드러나며 학자, 군자, 처사 등 다각적인 면에서의 참된 선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드러난다.

이익은 퇴계 이황을 존숭하여 聖人이라 하였으며 퇴계의 선비정신을 따르고자 하였다. 眞儒는 유학의 정도를 지키는 참된 선비를 말하는데 그는 식산 이만부 선생에 대한 만시에서 眞儒로서의 퇴계와 그를 잇는 후학을 조명하고 있다.

數腴顏色稱臞形
山澤精神想典刑
大嶺以南存法度
眞儒去後敝門庭
文將天喪三分在
道與心通一點靈
百世何人能有眼

선생의 환한 안색 청고한 유자에 걸맞고
산림 은거 그 정신 본보기가 될 만하다
조령 남쪽 영남 땅에 법도 보존되었으나
참된 유자 가신 뒤엔 그 문정 쓸쓸했지
하늘이 문장 잃을까 삼할을 남겼는데
도와 마음 통하여 영명함을 만들었네
후세에 어떤 이가 안목 갖추어

남인 산림의 거장인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 1664~1732)에 대한 만시 3수 중 1수로 참된 유자로서의 삶을 살다간 그의 모습을 생각하며 추모하고 있다.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의 문인인 이만부는 남인계 학자로서 이익의 집안과 교류가 있었으며, 『星湖全集』의 학문, 예법에 관한 편지글⁹⁰⁾을 통해 이익이 그에 대하여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익은 이 시에서 고인의 청고한 유자로서의 인품과 가신 후의 쓸쓸함을 전하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수련에서는 유자로서 삶을 살다간 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고인의 평소 환한 안색에 청고한 모습, 산림에 은거한 그의 정신에서 眞儒로서의 본모습을 찾고 있다. 이익은 평소 퇴계 이황을 존송하였으며 그를 眞儒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만부의 삶을 생각하며 퇴계를 잇는 유자로 조명하였다. 퇴계의 학문이 영남 땅에 보존이 되었으나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쓸쓸하게 되었고, 하늘이 문장을 잃을까 식산에게 삼할을 남겼으며 퇴계의 道와 마음이 고인과 통하여 영령함이 그에게 다 모였다면서 고인에 대한 존송을 드러내고 있다. 미련에서는 후학이 천지간에 남긴 그의 맑은 향을 알아주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참된 안목을 갖춘 후학을 기다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고 있다. 그 안목을 이어받아 천지에 남긴 글의 문향을 알아줄 이가 되고자 하는 이익에게 다짐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이를 통해 이익이 바라는 인품과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고인의 용모와 정신 그리고 가신 후의 쓸쓸함과 그의 영향에 대하여 2수에서는 큰 선비[碩儒], 참군자[眞君子], 대장부[大丈夫]라 칭하며⁹¹⁾ 그

89) 李瀾, 『星湖全集』 卷3, 088d면, 〈挽息山李先生 萬敷 三首〉

90) 李瀾, 『星湖全集』 卷9, 199b면, 〈答息山李先生 甲辰〉, 201a면, 〈上息山〉

91) 李瀾, 『星湖全集』 卷3, 088d면, 〈挽息山李先生 萬敷〉, ‘名德家庭挺碩儒 文章天與耀南隅 味無味作眞

의 명성을 높이며 드러낸다. 학자로서 높은 인품과 인격, 학문적 성취를 만시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이익이 만시를 통해서 인물들의 삶을 조명해 놓은 대상은 참으로 다양하다. 이렇게 학자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도 있고 관직을 지내면서 참사대부(眞士大夫)의 삶을 산 인물도 있다.

吾友堂堂氣有鋒	내 친구 당당하여 기세 대단하였으며
平生不芥磊隗胸	평생 잔달지 않고 마음 호방하였어라
俄歸郡紱嗟懸磬	한동안 고을 맡아 집이 비기도 하였고
強戴朝冠聽曉鍾	조정애 출근하느라 새벽 종소리 들었지
鉅室風流羞寂寞	대갓집 풍류는 적막 꺼리는 법이지만
故人情意喜從容	친구의 내심에는 조용한 걸 좋아했네
佗時灑泣貞陵過	훗날 눈물 흘리며 정릉동을 찾아가도
無復淸宵挈榼從	다시는 맑은 밤에 술잔 나눌 이 없네 ⁹²⁾

담양 부사를 지낸 김득대(金得大)에 대한 만시 3수 중 2수로 이익은 1수에서 담양 부사를 지낸 김득대를 진정한 사대부(眞士大夫)⁹³⁾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칭하며 그의 삶을 조명하고 2수에서 그의 구체적 모습을 회상하였다. 수련에서는 자신의 친구로서 늘 당당한 삶, 기세 있는 모습, 평생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호방한 모습을 지닌 그의 풍모를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김득대가 큰 뜻을 가졌던 사대부였음을 알 수 있다. 함련에서는 벼슬을 맡아 지방관직을 다니며 조정에 출사한 내용을 말한다. 외직에 나아갔기 때문에 때로 집을 비우기도 하고,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조정에 출근하여 나라일을 살피는 그의 부지런한 모습에서 사대부로서 관직 생활을 살펴볼 수

君子 居廣居稱大丈夫’

92) 李瀾, 『星湖全集』 卷4, 117c면, 〈挽金潭陽 得大 三首〉 중 2수

93) 李瀾, 『星湖全集』 卷4, 117c면, 〈挽金潭陽 得大 三首〉 중 1수, ‘舊卿相宅寧無主 眞士大夫果有人’

있다. 그렇게 벼슬을 지내고 호방한 모습의 고인이지만 내심으로는 평생 조용한 것을 좋아한 품성이 아마도 이익과 통하는 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 밤에 술잔을 나누며 정릉동에서 함께한 추억을 생각하고 다시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조정에 출근하면서도 조용함을 좋아하는 벗의 모습을 보며 이익은 벼슬을 하지 않고, 못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 그러는 가운데 현실에 순응하며 수양을 통해 본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자신을 알아주고 함께 했던 이의 죽음으로 홀로 남아 상심하는 슬픔이 그대로 전해진다. 이렇게 이 시에서는 망인의 풍모를 중심으로 만시를 읊어서 眞士大夫로 살다간 고인의 인품을 드러냄으로써 이러한 인물과 교류한 이익의 인품 역시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은 敦寧府 都正을 지낸 이홍모에 대한 만시를 살펴보겠다.

衰世難回遼古淳	옛날의 순박함 찾기 어려운 세상이나
吾知夫子亦清真	공이 지닌 清真함 내 분명 알고 있네
詩情往往江山助	詩情은 종종 절경을 만나 도움 받고
意想恢恢物我均	생각은 넓고 커서 몰아일체 경지였지
笑語尙懷春氣像	담소는 봄기운 닮아서 그림고
風儀留與月精神	풍모는 맑은 정신 남겼어라
佗年地誌評賢德	훗날 지리지에 현자 실려 있으면
試覓金枝玉葉人	금지옥엽같은 공의 이름 있는지 찾아보리 ⁹⁴⁾

만시 2수 중 1수로 이홍모(李弘模)의 풍모를 그리워하는 작자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전반에 고인의 풍모가 드러난다. 옛날의 순박함과 순수함을 찾기 어려운 세상에서 고인은 맑고 깨끗한 옛날의 순박함과 참됨(眞)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시적인 흥취가 있어 산수의 풍경에 젖게 되면 좋은 시를

94) 李瀾, 『星湖全集』 卷4, 109b면, 〈挽李都正 弘模 二首〉

짓고 생각은 넓고 커서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며 고인의 풍모를 섬세하게 묘사하며 그리워한다. 온화한 봄날의 기운 품은 담소, 달처럼 맑고 맑은 정신세계는 모두 그의 인품에 대한 표현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어질고 덕이 있어 賢德으로 평가하며 귀한 金枝玉葉으로 마무리한다. 일반적인 만시에 비해 망인의 풍모에 중점을 두어 만시가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훌륭한 인품으로 관직을 지내고 온화하고 맑은 모습의 이홍모가 이 만시를 통해 더욱 드러나게 되며 그와 함께 교류한 성호의 인물됨을 추측할 수 있다.

이익 만시의 대상들은 관직을 지낸 인물들도 있지만 초야에서 대단한 벼슬을 하지 않았던 선비들이 있다. 다음은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한 홍처사에 대한 만시이다.

唐城一曲閉門居	남양 고을 한 귀퉁이 문을 닫고 살면서
嘿養吾年七十餘	조용히 수양한 세월이 칠십여 년이라네
動息自由人不見	행동거지 자유로워 남이 알지 못하였고
身心以外念都虛	내 몸과 마음 밖의 생각은 모두 비웠노라
鄉閭共說圭無玷	향리에선 모두 흠결 없는 옥이라 일컬었거니
寤寐惟知刀有書	자나 깨나 서책을 읽는 것밖에 몰랐다네
處士藏名今始觀	처사가 이름 숨긴 것을 이제야 비로소 보이니
怡然乘化果誰如	기꺼이 조화로 돌아감이 누가 그대만 하랴 ⁹⁵⁾

평생을 은거하며 학문에 힘쓴 홍중희(洪重熙, 1678~1753)를 추모하는 만시이다. 작자는 흠결이 없는 옥 같은 인품과 처사로서 삶을 살아간 고인을 생각한다. 수련과 함련에서는 그의 삶을 조망한다. 당성은 지금의 화성시 남양동으로 이곳에서 문을 닫고 살면서 대단한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70여 년간 조용히 수양한 고인의 삶을 기린다. 홍중희는 살아생전의 행동은 자유로

95) 李瀾, 『星湖全集』 卷6, 148d면, 〈挽洪處士 重熙〉

웠으나 남이 알지 못하였고 몸과 마음 밖의 것은 모두 비웠으니 욕심 없이 깨끗한 은자의 모습일 것이다.

경련에서는 향리에서 모두가 흠결 없는 옥이라 칭송하는 고인의 깨끗하고 고결한 인품과 자나 깨나 서책을 읽는 학자로서의 모습을 조명한다. 처사로서 모두 칭송해 마지않으니 이는 마치 재야의 학자로서 살고 있는 이익 자신의 삶과 모습을 비취보게 하기도 한다. 이름을 숨기고 산 것이 이제야 드러나게 되었다며 자연의 조화로 기꺼이 돌아간 그를 기린다. 역시 죽음에 대하여 이익은 자연의 조화로 보고 있으며 다만 처사로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을 안타까워한다. 대단한 벼슬을 하지 않았기에 묻혀질 수 있는 그들의 인품과 학자적 면모를 통해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의 인생을 드러나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진사 이원빈에 대한 만시를 살펴보자

芳年進士盛名傳	젊은 나이로 진사가 되어 명성이 자자했고
奇氣靑霞老不瀟	드높은 기상은 늙도록 변함이 없었지
飢走荒原書在手	굶주리며 초야에서 책을 손에 놓지 않았고
臥看星斗夜無眠	누워서 별을 보며 밤새도록 잠 못 이뤘네
山高上黨圍蓬屋	산 높은 상당에다 쭉대 두른 집을 짓고
天壓滄浪闊釣船	하늘 담긴 푸른 강물에 낚싯배를 띄웠어라
一死非哀哀子命	한번 죽음 슬픈 것 아니고 그대 운명 슬프니
修文誰復覓窮泉	수문랑 되자고 누가 다시 황천 찾나 ⁹⁶⁾

이서관(李瑞觀, 1677~1745)은 자가 元賓으로 이 시에서는 평소 책을 가까이하는 그의 모습을 회상하며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수련과 함련에서는 그의 명성과 기상을 말한다. 젊은 나이에 진사가 되어 명성을 날린 앞

96) 李瀾, 『星湖全集』 卷5, 130b면, 〈挽李進士元賓〉

날의 창창함과 높은 기상을 그리며 늙어서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거친 초야에서 굶주리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면학의 모습을 칭송하고 누워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도 잠 못 이루며 늘 학문을 가까이하는 그를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우함을 이겨내며 늘 변함없는 그의 학문적 열의와 높은 기상을 통해 고인의 인품과 삶이 드러난다.

경련에서는 상당(上黨) 곧 청주의 높은 산에 쭈대를 두른 보잘 것 없는 집에 살면서도 큰 포부를 지닌 그의 풍모가 드러난다. 하늘이 담긴 푸른 강물에 낚시 배를 띄우고 때를 기다리는 태공망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미련에서는 한 번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세상에 뜻을 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함이 슬프다며 안타까워한다. 이원빈이 글재주가 빼어나니 죽어서 황천에서 글을 짓는 수문랑이 되자고 황천으로 돌아간 것 일 거라고 그를 추켜세운다.

충명한 자질과 높은 기상, 굶주림에도 변하지 않는 학문적 열정이 있는 진정한 유자로서의 삶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뜻을 펴지 못한 불우함을 이익은 한편의 만시 속에 담아서 보여주고 있다. 뛰어난 인물로서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떠난 이의 인생을 시안에 녹여 현실에 드러내면서 고인이 저승에서 뜻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라는 이익의 마음이 전해진다.

다음은 최명서에 대한 만시이다.

寧州文獻季方賢
同病相憐死獨先
離別雖長猶待日
幽明已隔奈終天
十年用拙功夫大
萬事灰心靜養便
此道情知君自有

영주를 대표하는 학덕을 지닌 그대
같은 병 가없더니 홀로 먼저 떠나갔네
생전엔 이별 길어도 만날 기약 있더니
이젠 유명 달리해 영결하게 되었구나
십 년간 줄성 지켜 그대 공부 높아졌고
만사를 내려놓고 편히 정심 수양했지
이 도를 깊이 알아 그대 체득하였으니

영주는 지금의 충청도 천안(天安)을 말하는데 이익은 고인을 영주를 대표하는 학덕을 지닌 인재라고 칭송하며 그를 기리고 있다. 『星湖全集』에 예법에 관하여 최명서에게 답하는 편지가 있어⁹⁸⁾ 학문적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수련에서는 학문에 있어 고인이 영주를 대표하는 뛰어난 인재로 같은 병을 앓아 서로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홀로 먼저 떠나갔다고 안타까워한다. 함련에서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을 말한다. 살아 있을 때에는 이별이 길어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기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유명을 달리해 삶과 죽음의 거리가 멀어 영원히 만날 수 없음을 슬퍼한다.

경련에서는 그의 삶을 보여준다. 그는 십년간 흔들림 없이 공부하여 크게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고 만사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편히 淨心을 수양했다. 미련에서는 그가 이러한 도를 깊이 알아 체득하였으므로 그 가르침이 자손에게 넉넉하게 전해지게 될 것이라며 기약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집중하고 마음을 수양하는 그의 삶을 통해 진정한 선비의 삶과 고인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음은 진사 이휘승에 대한 만시이다.

求友當年相彼鳴
居然遲暮葆真情
詩書在腹飢如飽
珠璧騰聲弟及兄
顏色猶疑瞻月滿
談諧不復見風生
門前驚殺帷幃過

벗 구하던 그 해에 저 우는 새를 보았는데
문득 닥친 노년에도 참된 마음을 지녔도다
시서가 배 속에 있어 굶주려도 배부른 듯
진주 벽옥처럼 명성 높은 아우와 형이로다
그대 얼굴인가 싶어 둥근 달을 바라보나
활기차게 담소하던 모습 다시 볼 수 없네
대문 앞을 지나는 상여 보고 깜짝 놀랐거니

97) 李瀾, 『星湖全集』 卷3, 106d면, 〈挽崔季亮 明瑞〉

98) 李瀾, 『星湖全集』 卷28, 561d면, 〈答崔季亮〉

이 시에서는 이휘승(李彙升, 1682~?)에 대해 추억하고 이별을 안타까워한다. 수련에서 『詩經』의 〈伐木〉를 인용하는데 이익은 考據로서 시경을 자주 인용하였다.¹⁰⁰⁾ 먼저 처음 사귄 때를 추억하며 진정한 마음의 벗을 사귀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이 참된 마음[眞情]을 가진 그를 칭송한다. 함련에서는 고인의 인품이 그려진다. 고인은 詩書가 배 속에 있어 굶주려도 배부른 듯하다며 그의 면학을 칭송하고 있고 형제 모두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한 보물인 진주, 벽옥과 같다며 맑고 깨끗한 인품 뛰어난 인품과 명성을 칭찬하고 있다. 경련에서 작가는 둥근달을 보며 고인을 생각한다. 달을 바라보며 달 같이 환하고 밝은 그의 풍모를 생각하고 생전의 담소하며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미련에서 현실의 상여를 보고 놀라며 눈물로 보내는 이별의 마음을 적고 있다. 고인을 기리는 만시를 통해 그가 교류한 이들의 인품과 학자적 경향을 살펴볼 수 있고 다시 돌이켜 그들과 교우를 맺는 이익의 맑고 깨끗한 인품과 학문에 대한 열정, 참된 유자로서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익은 다양한 인물들과 교류를 했기 때문의 그의 만시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에 대하여 당연하게 표현이 되고 있으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높은 관직을 지내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명성이 많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알려지지 않은 학자들을 만시를 통해 들여다보게 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들에게 동질감, 동료 의식을 갖고 글로써 그들의 삶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익이 진정으로 바라고 존중하는 선비의 면모가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묻혀질 수 있는 인물들을

99) 李漢, 『星湖全集』 卷5, 147a면, 〈挽李進士 彙升〉

100) 이종묵, 「退溪와 星湖의 詩學」, 『국학연구』 No.23, 한국국학진흥원 2013, 92-93면.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그의 만시가 가지는 특징이며 유독 누구보다도 만시를 많이 지었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유명한 이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의하여 만시를 지으면서 그들과 서로 교류 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조명해 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익 만시의 중요한 특징일 것이다.

2) 儒仙에의 동경

이익은 만사에서 고인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인물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며 훌륭한 인품을 높여 드러나게 한다. 이러한 만시를 통해 우리는 이익이 교류한 인물들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만사에서 드러나는 고인의 온화한 인품, 검소한 생활과 더불어 신선과 같은 모습을 찬양하였으며 그들을 儒仙이라 하였다. 儒仙은 유학에 근거를 두면서도 신선의 풍모를 지녀 풍류와 여유를 즐기며 신선의 삶을 추구하는 선비를 말한다. 보통 崔致遠을 일컫는 말로 쓰이는데 그가 난세를 피하여 伽倻山 홍류동에 들어가 은거했던 까닭에 이렇게 일컫는 것이다. 후대의 많은 시인들이 그의 발자취를 그리며 유선으로 표현하였다. 이익은 이러한 儒仙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만시를 통해 다양한 표현과 의미로 그려서 드러내고 있다.

이익의 시에서 儒仙의 용어는 『星湖全集』의 〈寄梁山使君鶴臯子金仲綏履萬〉에서 보인다.

.....

吏隱何妨塵裏迹

이은이라서 흥진자취 무슨 방해될 것 있나

儒仙元是嶺中身
傳聞百里淳風挽
剛喜賢勞在作新

신선 같은 선비 원래 고개 기슭에 살고 있는데
양산 경내 풍속 순화 이끌었다 들었거나
그대의 노력으로 진작되어 흐뭇하다¹⁰¹⁾

이 시는 노년까지 친하게 지낸 양산 군수 김이만에게 주는 시로 시 곳곳에 그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익은 김이만이 관직에 있으면서도 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吏隱이라 세속의 자취가 그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세속에 산다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한다. 워낙 신선의 풍모를 지니고 있는 선비 곧 儒仙이라 원래 산 고개 기슭에 살고 사람이라 하였으니 더더욱 신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수로 벼슬을 살면서도 김이만의 인품과 노력으로 인해 양산의 풍속이 순화되었다고 하며 그의 어짐과 노력으로 새롭게 변화한 고을의 모습에 기쁜 마음을 전한다. 세상에 나와 유자로서 백성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면서도 신선의 풍모가 있는 그의 인품과 삶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의 삶을 보여주는 압축적인 단어가 바로 吏隱과 儒仙일 것이며 이러한 시적 교류를 통해 김이만과 이익이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익은 만시에서도 여러 작품을 통해 신선의 풍모가 있으면서도 선비로서의 삶을 살아간 儒仙을 그리고 있으며 고인이 죽은 후에 신선의 세계에 갈 것이라며 한편으로 그들의 삶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세속에서 신선처럼 살다간 강 침지에 대한 만시이다.

生平八十五年遐
養壽功程老轉加
福履將成兒滿眼
封塋瞻掃日登阿

한평생 팔십오 년 장수를 누렸는데
양생하는 공부가 늙을수록 더하였지
큰 복을 많이 누려 자손들 가득하여
무덤 쓸고 살피러 날마다 올라가네

101) 李瀼, 『星湖全集』 卷4, 112a면, 〈寄梁山使君鶴臯子金仲綏 履萬〉

僉樞誥牒吾何有
 煙火神仙事足誇
 小弟鄰居均皓髮
 相攜歸向玉泉家

첩지의 첩지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세속 신선 그대가 자랑할 만했지
 똑같이 백발인 이웃 사는 작은 아우
 둘이 서로 손잡고 구천으로 돌아갔네¹⁰²⁾

만시에서는 죽음 앞에서 대상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드러내 준다. 수련에서는 과거 고인의 삶이 드러나는데 85년을 장수하며 세속에 살면서도 신선처럼 양생에 힘쓴 강첩지의 생활을 말하고 함련에서는 복을 받아 자손이 가득하여 날마다 무덤을 살피러 올라가는 자손들의 효성스러운 현재의 모습까지 연결시키며 높여준다. 다시 경련에서는 과거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린다. 첩지의 첩지란 팔십 이상의 장수를 누렸으므로 국가에서 수직(壽職)으로 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의 첩지를 말한다.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며 세속에 연연해하지 않는 평소의 그의 당당한 태도와 도리어 세속에서 신선으로 살아온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를 이익은 인정한다. 그리고 미련에서는 이웃에 살던 백발의 작은 아우와 함께 구천으로 돌아갔다고 비슷한 시기에 죽은 동생과 함께여서 외롭지 않겠다고 다독인다.

이 만시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익의 의식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죽음을 괴롭고 슬픈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장이며 신선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그의 깨끗한 삶이 다시 자손에게 복으로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익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현재의 연장이며 신선 세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시에서 적극적인 슬픔이 보이지 않는다. 고인의 평소의 행적을 통해, 또 그러한 인품을 가진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이익의 인품, 곧 세속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작자의 의식 세계의 지향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 시 역시 신선과 같은 삶을 살아간 권만에 대한 만시이다.

102) 李瀼, 『星湖全集』 卷4, 119c면, 〈挽姜僉知〉

優優九十有餘年
生死聽天聽自然
白首諸郎扳紉哭
靑山一片葬神仙

구십여 세 넉넉한 장수를 누리면서
생사가 하늘을 따라 모두 자연스러웠네
백발의 아들들이 상여 끈 잡고 곡하면서
청산 한 조각 땅에 신선을 묻는구나¹⁰³⁾

이 시는 중추부의 동지(同知)를 지낸 권만(權晩, 1615~?)의 만시 2수 중 1수이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90여세를 살며 넉넉히 장수를 누리고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에 따라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살다 간 권만의 모습을 회상한다. 전구에서는 현재의 장례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권만이 장수를 하였으니 아들들도 모두 나이가 있어 백발이며 상여 끈을 잡고서 곡을 하고 있다. 함께 모여 장례를 치루는 백발의 자손에게서 효성스럽고 맑은 모습을 그려내서 절구에서는 장례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신선의 세계와 연결시킨다. 푸른 산 한 조각 땅에 신선을 묻는다며 평소의 그의 인품을 짐작케 하고 어찌면 진정한 신선의 세계로 갔을 그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늘에 순응하며 살아 自然으로 표현되는 고인의 삶, 그리고 靑山 한 조각 땅으로 가는 고인의 맑고 깨끗하며 소박한 모습이 절로 느껴지며 시 전 반의 분위기를 지배한다. 그의 삶 자체는 모두 자연스러웠고 그가 가는 청산의 한 조각의 땅, 백발의 자손의 맑은 모습까지 너무나 신선과 같은 고인의 삶을 통해 이익의 지향과 동경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이징태에 대한 만시 2수 중 2수이다.

八十年長貫始終
莫誣人世有夫公
挾霜談屑三屨服

팔십 년 한평생을 시종일관 사셨으니
세상에 공 같은 분 계심을 속일 수 없도다
서릿발 위엄 담론하면 나약한 이 굴복했고

103) 李瀼, 『星湖全集』 卷1, 066d면, 〈挽權同知 晩 二首〉 중 1수

104) 李瀼, 『星湖全集』 卷5, 134a면, 〈挽李同知 徵台 二首〉 중 2수

較日心靈一點通
謬降尊嚴容少伴
幸從煙火識仙翁
至今搔白窮山下
寤寐難忘出壑風

해처럼 밝은 심령은 한 점으로 통하였네
존엄함을 잘못 급혀 어린 벗을 용납하니
다행히도 속세에서 선옹을 알게 됐네
지금은 백발 굵적이며 산골에 사는 신세
골짜기 나서던 그 풍모를 자나 깨나 못 잊겠네¹⁰⁴⁾

이동지(李同知)는 이정태(李徵台, 1668~1747)로 이 시에서는 속세에서 仙翁으로 살다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시 전반에 고인의 풍모에 대한 묘사가 보이며 팔십 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그의 모습을 높인다. 고인은 서릿발 같은 위엄으로 답론을 하여 무능하고 나약한 선비를 굴복하게 하였고 해처럼 빛나는 마음은 하나로 이익 자신과 통하였다. 해처럼 밝은 그의 심령은 유자의 모습이면서도 신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완전히 신선이기만 했으면 유학과의 접점을 찾기 어려웠으나 심령이 깨끗하여 구속이 없다고 하며 신선적 이면서도 확 트여 마음이 해처럼 밝은 것은 『大學』의 明明德을 연상시키며 유자적 마음이 기본으로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릿발 같은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나이와 상관없이 따지지 않고 자신을 벗으로 받아주심에 은근하게 자부심을 내비치기도 한다. 고인은 대단한 분이지만 너그러워 자기 같은 어린 사람을 받아주는 넉넉한 신선의 풍모를 생각하며 그런 것까지도 존경하고 있다는 이익의 마음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결국은 이익 자신이 많은 이들과 교류하며 널리 두루 통하고 학식이 대단하며 너그럽고 포용할 수 있는 인물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익은 만시를 통해 유자로서 선비의식을 갖고 살면서도 신선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인 儒仙을 기리면서 그 정신을 존중하고 있는데서 그가 바라는 지향점을 알 수 있다.

2. 交流詩에 나타난 의식

교류시가 만사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대상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그의 폭넓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가 추구하는 인간상, 그의 삶의 방향을 살펴보고 시를 통해 나타나는 의식과 시적 감성을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익이 여러 인물과 교류한 시 속에는 평소 그의 생활과 사상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오랜 기간 여러 인물과의 시적 교류를 통해 드러난 그의 교류의 양상과 인간적인 면모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星湖全集』에 수록되어 있는 교류시를 주고 받은 대상 인물과 관계에 대한 표이다.

<표8> 『星湖全集』 소재 교류시의 대상인물과 관계

연번	대상인물	관계	권	권차레	시제
1	姜世貞		1	75	次寄習忘齋
2	公瑞	재종질	2	29	送再從姪公瑞 徵休
3	郭生		1	56	送郭生
4	權敬甫	친척(미상)	3	23	謝權敬甫惠紙
5	權貴經	내제(외사촌)	5	29	內弟中行見和 復步前韻
6	權基彥	벗	4	30	寄謝文城使君權士恢
7			5	55	送權士恢出倅任實縣 二首
8			5	80	寄謝權士恢
9			3	46	謝權都事士恢遺丁公藤歌
10	權世楹	인척(손자 李九煥의 장인)	5	75	示壽伯
11	金光澈		6	57	贈別金進士 光澈
12	金得大	벗	3	88	送金君鎮出宰潭陽
13			3	94	寄謝潭陽使君
14			4	9	次金潭陽壽親宴韻 二首
15			4	48	送金君鎮出宰順興
16	金履萬	종질(벗)	4	24	寄梁山使君鶴臯子金仲綏 履萬
17			4	40	和梁山使君

18			4	47	和金仲綏使君 三首
19			4	57	簡仲綏
20			4	106	寄仲綏
21			5	96	和金瑞山寄來韻 二首
22			6	9	步金判監寄來韻 四首
23			6	12	復次金仲綏寄來韻 四首
24	金子遊		1	14	送金子遊
25	金晦仲		2	7	送金晦仲
26	南夏行	문인	4	23	謝南聖時 夏行 惠祕色胡盧盞盤
27			5	103	謝桐泉子惠錫
28	奴	노비	5	3	在原州送奴遊雉岳
29	桃谷	미상	2	24	寄題桃谷壁上韻用其韻 二首
30	東明	이웃	4	77	別東明
31	柳徠	벗	1	27	次柳子山寄贈魯論及庸學三書韻 三首
32	明谷	미상	5	66	簡明谷
33	明谷	미상	5	82	簡明谷
34	睦時敬		3	89	別藍浦使君睦士懋 時敬
35	閔應洙		1	74	敬次梧軒寄來韻
36	聖肯 堂休	족질	2	20	謝族姪聖肯 堂休 惠竹帚
37	孫思翼	벗	6	30	謝孫進士 思翼 惠紋竹杖
38	宋和伯		2	75	別宋和伯
39	申思爽	벗(은자)	5	30	次龍淵堂韻 二首
40			5	31	申子常惠砂朱一封 以詩報之 二首
41			6	17	寄龍淵亭 三首
42			6	29	謝申子常惠雉 二首
43	申上舍	미상	5	54	謝申上舍惠蕨
44	愼後冊一	문인	3	108	送愼耳老 後冊 西行
45			4	36	謝愼耳老惠蔗酒暇脩
46	安景漸, 安朋之	문인	6	52	寄涑河安秀才正進 景漸, 朋之 樂重
47	養中		1	43	送養中
48	囿春 東煥	족손	2	104	送族孫囿春 東煥 出宰扶安 二首
49	尹龜相一	斯文	2	96	次尹著卿 龜相 寄來韻
50			2	115	寄尹著卿
51	尹東奎	문인	1	19	送尹幼章 東奎
52			1	23	和尹幼章寄來韻 二首
53			1	40	次尹幼章新春韻 三首
54			1	59	和尹幼章寄來韻
55	李沃(李萬敷의 부친)의 후손	미상	5	117	寄足閑亭 三首
56	李景煥	족손	2	21	寄族孫行甫 景煥
57			3	9	伏枕寄同病者行甫

58			4	29	送行甫
59	李匡煥	족손	2	85	題族孫明瑞 匡煥 易安齋。用其韻。
60	李龜休	재종질	1	41	簡再從姪仲暉 龜休
61			1	44	次希善齋八詠韻
62			1	46	再次希善齋八詠韻
63			2	82	送仲暉敬差之行
64			3	15	送仲暉令公赴中和府
65	李國休	재종질	1	17	送再從姪咸卿 國休 經歷之任開府
66	李克誠	사위	4	18	示李甥
67			4	19	懷李甥 三首
68			4	65	聞德中進士疾瘳
69			4	78	懷李甥
70			5	77	賀德中生男
71			3	75	贖李甥德中 克誠
72			3	77	寄示德中
73			3	80	示李甥 二首
74	李堂休	족질	3	25	謝聖肯惠紙
75			2	42	送聖肯
76			2	50	復次聖肯宗會韻 二首
77	尹平叔	미상	3	3	奉別尹平叔 二首
78			2	113	和尹平叔
79	李東煥	족손(벗)	5	6	簡寄園春 二首
80			5	11	次園春持平寄來韻 二首
81			5	27	謝園春惠嘉蔬 并後敘
82			5	121	寄楊江 二首
83	李大休	재종질(벗)	2	28	別再從姪來卿 大休
84			3	87	送李來慶出宰咸安
85			4	21	謝咸安使君惠扇
86	李令公	미상	5	56	賀李令公陞同知樞府 二首
87	李萬宏	李萬敷의 종제	5	104	海松博山 李進士 萬宏 自嶺南寄來
88	李萬維		2	101	寄李持國 萬維 修撰濟州謫居
89	李萬咸	나사(懶士) 이숙의 서자	4	114	次李生萬咸韻
90	李明煥	족손	4	42	謝李晦叔惠酒
91	李秉休	從子	6	14	示從子秉休
92	李復休	재종질	2	63	寄再從姪仁叔 復休 水使
93			2	93	寄謝仁叔兵使惠扇
94	李福休	族子	6	11	賀心休進士 二首
95	李鳳煥	족손	4	108	聞族孫儀瑞 鳳煥 長子載顯登第 以詩賀之 三首
96	李鳳煥	족손	4	111	再和儀瑞進士
97	李瑞觀	李萬植의 아들	4	64	和李上舍元賓

98	李星煥	족손	1	67	簡族孫天章 星煥
99	李聖休, 李東煥	재종질	4	50	簡楊山老仙 仍示再從姪千一 聖休 囿春諸公
100	李世熙	李弘模의 아들	5	115	次李永叔寄來韻 十首
101	李承卿	미상	2	86	謝李承卿惠盛水滴
102			5	81	贈李承卿
103	李養源		5	69	送李和順浩然之任
104	李陽煥	족손	5	13	簡寄檀軒
105	李億休	재종질	4	4	小會次長卿韻 七首
106			4	5	長卿見和復次 三首
107	李永冑	인척	3	76	次李進士汝久
108			3	74	次李進士汝久 永冑 寄來韻
109			4	15	簡李汝久
110			4	33	次李汝久寄來韻
111			4	61	次李進士汝久寄來韻
112			4	91	又次李汝久 二首
113			4	92	謹步前韻 七首
114			5	45	次李汝久寄來韻
115			5	78	和李汝久志喜 二首
116			5	79	再次 二首
117	李應鼎	교유(미상)	1	48	送李應鼎用古韻 二首
118	李益熙	벗(옥동의 문인)	3	84	汝謙久痾始痊 撫琴哦詩 日爲樂 又遍求和章 爲之喜甚 聞卽走筆 分韻得巖字
119			3	95	次汝謙寄來韻
120			3	100	次汝謙寄來韻 二首
121			4	2	次李汝謙寄來韻 三首
122	李璋休	족질	4	113	別族姪聖玉 璋休
123	李載顯	족증손	4	110	再和孟揚先達 載顯 三首
124			5	109	別孟揚之陽德縣任
125	李載厚	족증손	5	18	族人元博 載厚 正言錄示金剛詩 步其韻 五首
174			5	19	次元博韻 二首
126	李禎休	족질	1	66	與族姪國瑞 禎休 諸人同賦 次古韻
127	李齊筦	화가	5	34	送李仁仲
128			5	64	謝李仁仲惠梨
129	李重珥	현자	2	114	和李重珥秀才
130	李重煥	족손(문인)	1	18	族孫輝祖 重煥 有惠物 以詩答寄
131			4	11	復次輝祖楓溪韻
132			6	19	次輝祖佐郎陸秩韻
133	李之晦		6	58	和李希朱 之晦 志喜韻
134	李嘉煥	종손(문인)	6	46	賀從孫吉甫 嘉煥 生男
135	李學休	재종질	4	107	賀思卿二子成進士
136			5	7	次思卿韻

137			6	33	次思卿 三首
138			6	62	和庇寒齋韻
139	李玄煥	족손(李學休의 아들, 문인)	5	74	送族孫星叟 玄煥
140	李亨煥	족손	3	78	柔文見和又次韻寄示
141			3	79	再和
142	李彙晉	벗	1	63	次李來慶 彙晉 韻 奉賀宋丈人壽陞通政階 四首
143			3	42	送李來慶赴鏡城 三首
144			4	44	簡咸安李使君
145			3	56	寄鏡城李通判來慶
146			4	101	別咸鏡都事
147	仁叔	재종질	2	102	謝仁叔兵使惠鑿鑿鏡
148	長卿 億休, 囿春, 雲 仲 陽煥	재종질, 족손(동갑)	3	31	再從姪長卿 億休 囿春 族孫雲仲 陽煥 與我同辛酉 生而今五十四歲矣 四人將期會於海上 先以詩寄之 二首
149	鄭君則	은자	1	7	送鄭君則
150			4	59	聽鄭生彈琴 四首
151			1	26	戲語寄鄭君則
152	鄭尙驥	벗	4	71	鄭汝逸 尙驥 有書
153			5	107	別鄭僉知汝逸 尙驥
154	貞叔		2	32	謝貞叔攜酒來訪
155			2	34	貞叔攜燒酒來飲
156	鄭叔瞻		4	66	別鄭判官叔瞻赴鏡城 二首
157	鄭舜熙	생질	1	79	送鄭甥舜熙
158	鄭恒齡	벗(鄭尙驥)의 아들	5	108	別鄭玄老 恒齡
159	鄭熙夔	친족(벗)	1	28	次鄭時中 熙夔 寄來韻 二首
160			1	51	嘉邨送時中寄示大猷 二首
161			1	78	送鄭幼章
162			5	17	和鄭時中寄來韻 三首
163	趙錫梯	인척	3	48	次趙僉知 錫梯 重牢宴韻
164	趙守誼	벗	6	36	謝趙正叔 守誼 寄曆
165			6	61	送趙正叔赴連山
166			6	64	次連山倅趙正叔韻
167	趙重普		2	84	題趙進士奎輔 重普 最高亭 用其韻
168	仲明 庚煥 李學休	족손, 재종질	3	36	族孫仲明 庚煥 來訪 再從姪思卿 學休 繼至 次古 韻 十八首
169	仲解		2	33	謝仲解攜壺山春來飲
170	仲暉	재종질	2	43	次仲暉
171			2	107	賀仲暉超擢拜承宣 二首○并小序

172	蔡膺全	인척(미상)	3	18	別蔡思彦
173	崔芝山	미상	3	44	次崔參奉芝山別業韻 二首
175	崔參奉	미상	3	64	次芝山寄來韻 二首
176	崔七七	화가	5	40	送崔七七之日本 三首
177	韓德龍		4	6	奉別韓士雲 德龍
178	韓斯文	斯文	4	94	次韓斯文投贈韻 二首
179	韓埏		1	15	送韓義興 埏 之任
180	韓用晦	미상	4	105	謝韓用晦寄惠烏竹杖
181	韓必壽		6	70	謝韓察訪仁叟有饋
182	許參奉	은자	2	64	寄許參奉杏亭幽居
183	亨伯 泰休	재종질	2	37	玉峴留別再從姪亨伯 泰休
184	洪大老	미상	6	23	寄洪大老
185	洪尙輔	벗	3	91	贈洪和順聖望 二首
186			4	32	寄洪聖望
187			4	72	別洪聖望之任韓山
188	洪相朝	이만부의 문인	5	44	寄洪古阜敍一 相朝 次東坡水調歌頭
189	洪沃輔		4	26	送洪進士啓心 沃輔
190	洪儒漢	벗(洪聖文)의 아들, 문인	4	97	別洪士良 儒漢
191			5	21	謝洪士良寄唐柚子
192	洪重達	벗(心交)	1	36	和洪一兼 重達 寄來韻
193			2	81	寄洪一兼教官
194	洪重潤	벗(은자)	2	89	寄洪德海 重潤
195	洪重徵	벗	5	113	呈洪右尹錫余 重徵 棣軒 三首
196			5	118	答洪右尹錫余 二首
197			6	26	次洪水部錫余韻 三首
198			6	27	復次洪水部寄來詩 三首
199			6	35	謝錫余判書寄曆
200			6	53	謝洪水部寄新曆
201			6	60	和洪判書錫余韻
202			6	71	聞洪判書錫余致仕
203	洪重孝		6	59	和洪諫議聖源 重孝 韻
204	洪僉正		4	69	簡洪僉正壽席
205	洪瞻漢	문인	5	87	示洪生希倬
206			6	69	謝洪希倬餉柿語
207	華瑞	미상	6	8	謝華瑞惠篋
208	華瑞進士		4	37	平涼笠歌 寄謝華瑞進士
209	黃運大	문인	5	114	次黃得甫 運大 遊山韻 五首
210	黃翼再	벗	2	13	黃靈光再叟 翼再 寄扇有詩
211	黃靜叔	벗(은자, 미상)	2	44	次黃靜叔 七首
212			3	21	次黃靜叔寄來韻 三首

213			3	27	再和鵝谷寄來韻 三首
214			3	70	簡黃靜叔
215	黃千之	벗(미상)	3	32	次黃千之獨翠軒韻
216			3	35	復和獨翠軒韻 三首
217			3	37	復次獨翠軒韻 三首
218		조카	2	36	南塘題贈姪兒
219		內兄	2	39	金谷題贈內兄
220		문중	5	1	聲邨小會分韻得文字
221		종회	2	69	宗會次家集韻
222		은자	2	108	奉和樂齋韻 二首
223		은자(미상)	3	105	次樵隱亭韻
224		은자(미상)	4	17	次花谷靜窩韻
225	人		4	79	寄人
226		벗(미상)	5	12	寄杏村
227			5	46	寄東牀 二首
228	人	人(미상)	2	80	送人
229	人	벗(미상)	3	5	次人 二首
230	人	벗(미상)	5	15	次人 二首
231	人	미상	5	59	次人
232	人		5	122	送人入金剛

위 표를 통해서 이익이 친족과 문인, 벗 등 다양한 많은 인물들과 교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만시 외 교류시의 편수는 232제 371수로 전체 시의 약 36%에 해당한다. 상당한 양으로 평생에 걸쳐 교류의 내용이 시로 표현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면에서 폭넓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⁵⁾

여기에서는 교류시에 드러나는 이익의 의식의 흐름과 감성적 경향이 어떠한지 교류 관계의 시 중에서 송별시와 증여시를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지로 떠나는 이들에게 보내는 시에서 조선 후기를 살아가는 유자로서의 그의 현실 인식과 백성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주고받은 시에서 드러나는 너무도 인간적인 감정을 기다림과 그리움이라는 감성적 측면에서 살펴 인간 이익의 모습을 입

105) II장의 2. 교류관계에서 소략하게 했던 것을 작품과 같이 표기하였다.

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1) 愛民의식의 발로

이익은 經世濟民의 뜻을 품고 공부를 하였으나 벼슬을 접고 안산의 성호장에 은거하면서 평생을 학문에 몰두하였다. 조선 후기 이후 남인 계열의 문인들은 전통적인 載道之器의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대의 혼란과 어지러움을 문학을 통해서 바로잡는 부분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 사회적인 차원으로의 확대라는 면에서 조선 전기와는 차이가 있으며 현실에서의 불만이 문학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고¹⁰⁶⁾ 이러한 점은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의 학문적 호기심과 현실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저작에서 드러난다. 그는 『星湖僿說』의 〈조선의 여덟가지 병폐[我朝八弊]〉¹⁰⁷⁾에서 조선의 정치기구, 관료조직의 병폐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제도의 정비를 제안하였고, 〈유민을 구제하는 방법[流民還集]〉¹⁰⁸⁾에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변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관리의 포학한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 그의 심중에서 백성을 교화하고 현실에 반영하고자 하는 응혼한 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좌절된 현실 속에서 재야 선비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며 그 안에서 학자로서 독서와 저술 활동을 하며 많은 이들과 교류하며 의견을 나누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이익은 자신이 속한 ‘士’에 대한 자각과 사회적 위상에 대한 성찰을 하였

106) 윤재환, 「玉洞 李滉와 星湖 李瀼의 比較를 통해 본 星湖家 詩世界의 一樣相」, 『韓民族語文學』 Vol.62, 한민족어문학회, 2012, 486-489면.

107) 李瀼, 『星湖僿說』 卷14, 人事門, 〈我朝八弊〉

108) 李瀼, 『星湖僿說』 卷14, 人事門, 〈流民還集〉, “이른 바 백성의 사는 것은 근(勤)에 있으니 근하면 궁핍하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런데도 사망에서 모면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포학한 정사에 시달려 살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所謂 民生在勤 勤則不匱也 其不免於死亾者 皆困於虐政 勢不能存也)”

으며 그의 士의식에서는 중세적 질서의 해체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각성된 모습이 드러난다.¹⁰⁹⁾ 이익은 그러한 지식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임지로 떠나는 이들에게 송별의 마음을 시로써 전하였다. 다음 시를 통해 임지로 떠나는 이들을 전송하는 시에 나타나는 이별의 마음과 그의 의식을 살펴보고 도록 하겠다.

瑞興和順著能聲	서흥과 화순에서 명성을 드러내더니
又作韓山郡守行	이번엔 또 한산의 군수로 가게 됐네
製錦前功微更熟	수령의 전공으로 능력이 정렘됐으나
還珠舊事未宜輕	진주 다시 캔일 쉽게 보면 안되리
荒年佇待神明宰	흉년엔 지혜로운 수령 기다리거니
西日遙懸送別情	석양 녘에 멀리 송별의 정을 부친다
鴨野熊津將問訊	압야와 웅진에서 장차 한번 물어보라
風謠猶誦牧翁名	풍요에 아직도 목은 이름 칭송되리 ¹¹⁰⁾

성망(聖望)은 홍상보(洪尙輔, 1683~?)의 자로 『星湖全集』에 홍상보와 교류한 시가 보이며¹¹¹⁾ 그와 가깝게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는 한산의 임지로 가는 홍상보와 이별하며 송별의 정과 당부를 담고 있다.

수련에서는 홍상보의 능력과 명성이 드러난다. 홍상보가 서흥과 화순에서 명성이 드러나 두 지역에서 수령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번에는 또 한산의 군수로 가게 되었으니 그는 능력이 있는 관리이다. 함련에서 수령의 전공으로 능력은 정렘이 되었으나 진주를 다시 캔 옛 고사를 되새기며 임지로 떠나는 홍상보에게 당부를 전한다. ‘還珠舊事’는 『後漢書』에 나오는 고사로 수령들의 학정으로 지역의 특산물인 진주가 나오지 않았다가 후에 맹상(孟嘗)이

109) 김남형, 앞의 책, 222-224면.

110) 李瀼, 『星湖全集』 卷4, 120b면, 〈別洪聖望之任韓山〉

111) 李瀼, 『星湖全集』 卷3, 105a면, 〈贈洪和順聖望 二首〉, 卷4, 114b면, 〈寄洪聖望〉

태수로 부임하여 청렴한 정치를 펼쳐 1년 만에 진주가 다시 나오게 된 일을 말한다.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하며 홍상보에게 전보다 더욱 노력하여 어질고 청렴한 정치를 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경련과 미련에서도 다시 관리의 역할을 말하는데 흥년에 백성들은 지혜로운 수령을 기다린다고 강조하며 석별의 정을 전한다. 임지로 보내는 여정을 드러내며 서흥(瑞興), 화순(和順), 한산(韓山), 압야(鴨野), 웅진(熊津) 등의 우리나라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훌륭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던 牧隱을 칭송하며 목은 같은 지혜로운 지방관으로서의 역할을 권면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곳곳에 관리의식이 드러나며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당부는 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이익이 관리의 역할 곧 백성을 위한 선정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 시 〈送韓義興 之任〉을 살펴보자.

明離筵罷夢三刀	명리의 연회 끝나고 삼도를 꿈꾸었으니
製錦才高屬望勞	제금의 재주 높아 촉망을 몹시 받았어라
大嶺維南猶古俗	대령 이남에는 아직도 풍속이 예스러우니
武城以後又時髦	무성 이후에 또 걸출한 원님이 나오겠네
曉天星拱應懸望	새벽하늘 못별 향한 것 보면 임금을 생각할 테고
朝鏡霜添爲下膏	아침 거울에 백발 는 건 백성 위한 노고 때문
告別惻惻煩折簡	충충히 고별하며 이렇게 서신을 보내 주셨으니
離愁一夜徧江皐	이별 시름 하룻밤에 강 언덕에 가득하구려 ¹¹²⁾

이 시는 임지로 떠나는 한연(韓堦, 1656~?)을 보내며 지은 시이다. 수련에서는 한연의 뛰어난 재주를 말한다. 세자를 책봉하는 연회를 끝내고 고을 수령으로 나갈 꿈을 꾸었으며 재주가 있어 임금의 촉망을 받아 떠난다며 선

112) 李瀾, 『星湖全集』 卷1, 055d면, 〈送韓義興 堦 之任〉

정을 베풀 것을 기대한다. 함련에서는 임지의 분위기와 한련의 역할에 대하여 말한다. 그곳은 아직도 풍속이 옛날과 같아 아직 예스러우며 옛날 孔子의 제자 子游가 무성(武城)에서 禮樂으로 고을을 교화한 것을 비유하며 한련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 고을에 걸출한 원님이 나오겠다며 추켜세운다. 경련에서는 그곳에서 생활할 모습을 상상한다. 새벽하늘에 별들이 북두성을 향한 것을 보며 임금님을 생각할 것이고 아침저녁으로 흰 머리가 느는 것은 백성을 위한 노고 때문일 것이라며 수고롭게 힘쓸 것을 권한다. 관리의 역할과 백성을 생각하는 이익의 마음이 드러나 있으며 미련에서는 시를 보내준 이에게 답하며 시름이 온밤 내내 강 언덕에 가득하다고 이별의 아쉬움을 담아 마무리 한다. 관리로서는 궁궐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것이 최고일 수 있으나 한련이 지금 임지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라며 치켜주고 다독이며 이별의 안타까움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헤어짐은 안타까우나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를 하면서도 그 안에 백성에 대한 관리의 역할 역시 당부한다.

駢駢驅傳敬差程	역마를 달리고 달려가는 경차관 여정
威令全羅道內行	위령이 전라도 안에 두루 행해지겠지
北極星辰應掛夢	북극의 성신은 응당 꿈속에 보이고
南方草木使知名	남방의 초목들도 이름을 알게 되리
盈豐喜聽無前頌	풍년이 전에 없단 칭송 기쁘게 들을 테고
旁澤須看益下評	은택을 아래에 더해 준단 평을 필시 보게 되리
記得仙庵留句語	선암에 남긴 시구의 말을 기억하노니
憑君掃壁一題成	그대 가거든 벽을 쓸고 한 수 적어주시게 ¹¹³⁾

이 시는 경차관으로 가는 이귀휴(李龜休, 1675~?)를 보내며 지은 시이다. 수련에서는 역마를 타고 달려가는 경차관의 여정이 생동감 있게 드러나며

113) 李灑, 『星湖全集』 卷2, 081c면, 〈送仲暉敬差之行〉

임금의 명령이 전라도 안에서 두루 행하여질 것이라며 기대한다. 함련에서는 북극의 성신이 당연히 꿈속에 보일 것이라며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을 읊고 남방의 초목이 모두 이귀휴의 이름을 알게 되리라며 권면한다.

경련에서는 그가 경차관으로 가게 되면 백성을 위해 하게 될 일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농사가 풍년을 이루어 전에 없다는 칭송을 기쁘게 듣게 될 것이고 임금의 은택이 아래에까지 이르러 더해 준다는 평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켜 세움으로서 보다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자신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지만 위정자가 해야 할 일을 이익은 알고 있으며, 이귀휴에게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미련에서는 예전에 자신이 선암에 기록해 두었던 시구를 말하며 벽을 쓸고 한 수 적어줄 것을 기대한다. 이익이 보내는 시와 그곳으로 가는 이귀휴, 시간을 흘러 보게 되는 글귀를 통해서 이익과 이귀휴의 의식이 이어지며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의 연결을 통해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며 격려하고 있다.

다음은 담양 부사로 가는 김득대를 보내며 지은 시이다.

明時製錦屬其人
也識懸刀入夢頻
聽說年來凋瘵足
誰知此去櫛爬新
故人心事瞻雲慣
良宰風流按轡親
想到貞陵連夜語
賢勞判不負斯民

밝은 시대 수령 자리 적임에게 맡겨지니
칼이 걸린 꿈을 자주 꾸었음을 알겠네
근래 백성 고달픔이 더해진다 들었는데
누가 알라 이번에 가 폐해를 일신할지
친구의 심정이야 구름을 익히 보겠지만
어진 수령 풍모로 말고삐 친히 당기겠지
정릉에서 지새우며 그대 한 말 생각하니
고생돼도 분명코 백성 아니 저버리리¹¹⁴⁾

114) 李瀼, 『星湖全集』 卷3, 104c면, 〈送金君鎮出宰潭陽〉

군진(君鎭)은 김득대(金得大, 1685~?)의 자이다. 이익은 벗으로서 그와 시적인 교류가 있었으며¹¹⁵⁾ 이 시는 그를 담양 부사로 보내며 지은 것이다.

수련에서는 『春秋左氏傳』 子產 고사와 쯤의 王濬의 고사를 인용하여 밝은 시대에 수령 자리가 적임인 인물에게 맡겨졌다 하면서 김득대가 수령으로 자주 나가게 됨을 말하고 있다. 김득대는 관리로서의 능력이 있고 어디가서나 인정받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함련에서는 부임하는 친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근래에 백성의 고달픔이 더해진다는 것을 들었다고 걱정하며 이번에 김득대가 부임하여 폐해를 일신할 것을 기대한다. 이를 통해 이익이 학자로 있으면서도 당시 백성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련에서도 지방관으로 가는 여정과 관리로서의 당부가 이어진다. 김득대가 수령으로 자주 이동을 하다 보니 그의 마음은 익숙하게 구름을 보며 부임하겠지만 어진 수령의 품모로 말고삐를 잡고 천하를 맑게 하려는 뜻을 품고 지방관으로 갈 것이라며 선정을 펼치기를 기원한다. 미련에서는 그와 함께 했던 과거를 회상한다. 벗과 함께 정릉에서 밤을 지새우며 함께 백성을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백성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격려한다.

이익은 평소 선비 의식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하였다.¹¹⁶⁾ 비록 이익 자신이 관리는 아니지만 할 수 없어서 안 할 뿐이지 관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 시에서는 관료로서 지방관으로서 떠나는 벗에게 관리의식을 가지고 백성을 위한 수령의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고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의 愛民의 생각이 나타난다. 그는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지로 가는

115) 李漢, 『星湖全集』 卷3, 105d면, 〈寄謝潭陽使君〉, 卷4, 109d면, 〈次金潭陽壽親宴韻 二首〉

116) 李漢, 『星湖僊說』, 〈人事門〉, 卷7 ‘백성을 구휼함(拯救)’, 卷11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정책(荒政)’, 卷16 ‘백성이 가난함(民貧)’

이에게 잘 할 수 있으리라, 잘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연산에 부임하는 조정숙을 전송하며 지은 시이다.

連山縣小號屏官	연산현 협소하여 궁색한 고을이라 부르지만
聖主憂治趁在寬	성상께서 정사를 근심하시니 관대한 은혜 베풀어야지
聽說此離鴻失澤	듣자니 백성들은 못을 잃은 기러기처럼 유랑하고
爭言掎克虎能冠	가림(苛斂)자들 관을 쓴 범 같다 다투어 말하네
極知天借仁風便	하늘이 인후한 바람을 빌려줄 걸 잘 알거니
未信時行霈雨難	큰 단비는 제때 내리기 어렵단 말 믿지 않노라
近得龍洲封事讀	근래에 용주 선생 올린 봉사를 얻어서 읽어 보고
爲君三復待民安	그대를 위해 거듭 외며 백성의 안락을 기대하네 ¹¹⁷⁾

조수의(趙守誼, 1699~1769)는 자가 정숙으로, 남인의 대표 인물인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동지이자 학우였던 용주(龍洲) 조경(趙綱)의 증손이다. 수련에서는 조수의가 연산현에 가게 된 상황을 말한다. 연산현이 작아 궁색한 고을이라고 하지만 임금께서 나라를 걱정하며 관대한 은혜를 베풀라고 조수의를 그곳으로 보냈다며 그가 능력이 있음을 말한다. 함련에서는 연산현의 참담한 현실이 드러난다. 이익은 『詩經』의 〈鴻雁〉을 인용하며 그곳의 백성들이 연못을 잃은 기러기처럼 유랑하고 있고 그러한 중에 관리들은 학정을 일삼는다는 소식을 계속 듣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탐관오리들을 가리켜 벼슬을 하고 있는 범과 같다 하며 적극적으로 비판한다. 이를 통해 백성을 생각하고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있는 이익의 현실 인식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의 의식에서는 누군가가 곧 하늘, 임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있는데 하늘이 어진 바람을 불어오게 할 것이며 큰 비는 반드시 제때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할 인물이 바로 조정

117) 李瀼, 『星湖全集』 卷6, 158d면, 〈送趙正叔赴連山〉

숙이라는 것이다. 훌륭한 집안의 귀한 인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이익은 기대한다. 미련에서 이익은 옛날 조수의의 증조부인 조정의 封事를 읽으며 후손인 그가 선정을 베풀 것을 기대하고 그대를 위해 거듭 그 글을 외울 것이라며 백성의 안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이익은 임지로 가는 이들에게 보내는 시에서 백성의 고단한 삶을 걱정하며 그들이 관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익 자신이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는 제한된 환경에서도 평생 동안 저술 활동과 다양한 인물과의 교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실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동료와 후학을 권면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백성을 걱정하는 愛民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典雅한 그리움의 표현

이익은 관직에 나가지 않고 평생 학문에 매진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도 실학자로서의 면모가 훨씬 강조되어 드러나 있다. 그러나 『星湖全集』에는 631제 1,178수에 이르는 많은 한시가 남아 있어 시를 통해 감정을 표출하였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많은 이들과 시를 통해 교류하면서 감정을 드러내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시로 써 읊어 내었다.

여기서는 이익의 교류시에 드러나는 그의 그리움의 감성적인 표현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기다림, 그리움, 만남의 기쁨 등 살아가면서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들을 시에 감성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작품을 통해 살펴보겠다. 이익의 시에서는 울동감, 리듬감보다 회화성이 강하게 나타나는데¹¹⁸⁾ 그의 교류시를 통해 확인해 보면서 여러 인물과의 시적 교류를 통해

그의 교류의 양상과 인간적인 면모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홍중달이 부쳐 온 시에 화운한 시이다.

憶昨東驂近峽門	지난번 동쪽 협문 근처 갔을 제 그리노니
離憂隔水竟迷源	물 건너며 이별 근심 끝내 근원 못 찾았지
無從信字應非謾	태만해서 서신을 못 보낸 건 아니고
有感神交果若言	정신적인 교감 있으니 과연 그대 말과 같네
正耐哦懷親白酒	정히 회포 읊으면서 백주 가까이할 만한데
誰知拄杖到黃昏	지팡이 짚고서 황혼에 이를 줄 뉘 알았으랴
祇今夢想山陰棹	지금도 꿈속에 산음 찾던 배 생각하면
何處依然雪裏村	눈 내린 마을 그대로 찾고 있겠지 ¹¹⁹⁾

이 시에서는 친구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한 아쉬움과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수련에서 전에 동쪽 협문 가까이 갔다가 물 너머에 근심스럽게 끝내 근원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벗의 거처를 도화원으로 비유하며 그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한다. 세상과 단절된 곳에 있는 벗의 은자적 삶과 인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선경적 분위기가 보인다. 함련에서는 이익이 서신을 보낼 길이 없었으며 보내지 못한 이유가 태만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며 둘 사이의 정신적인 교감을 주고받는 것은 과연 그대의 말과 같다고 하며 지난번 받은 서신의 내용에 동의하고 서로 변함없이 잘 통하는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진정 회포를 풀기 위해 백주를 함께 마시고 싶으나 벌써 세월이 흘러 지팡이 짚는 황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지나간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다. 미련에서는 자신과 벗과의 관계를 왕휘지(王徽之), 대규(戴逵)의 고사로 비유하며 자신은 꿈속에서라도 벗을 찾고 있을 것이며 벗 또한 그럴 것이라며 그리움의 여운을 주고 있다.

118) 윤재환, 「詩論과 詩세계의 相關關係」, 『漢文學論集』 Vol.46, 근역한문학회, 2017, 194면.

119) 李漢, 『星湖全集』 卷1, 058c면, 〈和洪一兼 重達 寄來韻〉

벗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선경적인 표현을 통해 그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익과 벗의 정신세계와 삶을 보여준다. 시 전편에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며 오랫동안 친구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의 여운이 함께 보여진다. 이익은 아쉬움과 그리움을 고사를 인용하며 애타는 감정이 아닌 담담하면서도 고아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홍상보에게 보내며 지은 시이다.

嘉樹朝陽碧一莖	동산의 아름다운 벽오동 한 가지를
勸君培植近檐楹	권하노니 그대 집 처마 곁에 심게나
佗年疏雨柸罇夜	몇 해 뒤 부슬비 오는 밤 술 마실 때
準擬同聽葉上聲	앞사귀에 빗소리 함께 듣고 싶구나 ¹²⁰⁾

홍상보(洪尙輔, 1683~?)는 자가 성망(聖望)으로 『星湖全集』의 작품을 통해 시적인 교류¹²¹⁾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에서는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절구시 안에 담고 있으며 계절과 비 오는 날의 흥취와 여운이 드러난다. 기구와 승구에서 이익은 친구에게 동산의 벽오동 한 가지를 꺾어 집 처마 곁에 심을 것을 권한다. 벽오동은 나무껍질이 푸르고 잎이 넓은 활엽수로 이익은 벽오동을 바라보며 운치를 느끼고 문득 친구 집에도 심었으면 싶다. 비록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벽오동을 보며 운치를 나누고 싶은 것이다. 이익이 친구에게 전하는 벽오동 한가지는 친구에게 전하는 그리움의 표현이며 벽오동을 통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 전구와 절구에서는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시선이 옮겨진다. 시간이 흘러 몇 해가 지나 부슬비가 내리는 밤에 이익은 벗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기약한다. 이때 많이 자란 벽오동 앞사귀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벗과 함께 술 마시며 듣

120) 李漢, 『星湖全集』 卷4, 114b면, 〈寄洪聖望〉

121) 李漢, 『星湖全集』 卷3, 105a면, 〈贈洪和順聖望 二首〉, 卷4, 120b면, 〈別洪聖望之任韓山〉을 통해 시적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고 싶다고 한다. 푸른 벽오동의 시각적인 심상과, 부슬비가 내리는 촉각적인 심상, 그리고 벽오동 큰 잎에 떨어지는 부슬비 소리의 청각적인 심상이 어우러지면서 매우 운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그 자리에서 이익은 홍상보와 서로 마음을 나누며 술잔을 기울인다. 아직 만나지 못한 서로가 함께 하고 싶은 그리움이 잔잔하게 표현되며 벽오동 잎사귀에 들려오는 열은 빗소리는 시가 끝났음에도 이어지는 여운을 전해준다.

다음은 이만함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雲水菴中種菊人	운수암 안에다가 국화를 심은 사람
飛書問訊語淳淳	편지에 안부 묻는 말이 돈후하구나
鶴黃燕白分餘朵	아름다운 회고 노란 국화 남는 떨기 나눠준다면
來歲花開更覺珍	내년에 꽃이 피면 또한 진귀하게 느껴지리 ¹²²⁾

李萬咸은 懶士 李淑(1658~1693)의 서자이다. 이숙은 명필로 알려진 이익의 셋째 형 玉洞 李滉¹²³⁾의 벗이었으며, 그의 아들 이만함이 아버지의 작품을 정리하며 이익과 교류한 내용이 『星湖全集』에 보인다.¹²⁴⁾ 이 작품은 이만함이 거쳐하는 곳을 묘사하며 주인의 인품을 그리고 있다. 기구에서는 운수암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만함이 그곳에 국화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며, 그가 국화를 좋아하고 가까이하는 모습이 마치 도연명과 같음을 은근하게 비유하고 있다. 승구에서 작자는 그가 편지에 보내온 내용이 맑고 깨끗하며 정성스럽다고 하면서 국화를 좋아하는 모습과 연계하여 그의 맑은 인품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편지 글은 載道論的 文學觀을 가진 이익이 시의 이상으로 강조한 溫柔敦厚¹²⁵⁾와 訊語淳淳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이만함의 인품

122) 李滉, 『星湖全集』 卷4, 126d면, 〈次李生萬咸韻〉

123) 윤재환, 앞의 논문, 2012, 446-447면.

124) 李滉, 『星湖全集』 卷57, 536a면, 〈蘭菊帖跋〉

125) 김동준, 「星湖 李滉의 詩文學 研究」, 『한국한시작가연구』 Vol.16, 한국한시학회, 2012, 14면.

과 편지를 주고받는 이익의 인품까지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전구에서는 운수암에 대한 작가의 상상이 더해진다. 아름다운 회고 노란 국화의 남은 떨기를 나누어 준다면 여기서 피우는 국화의 모습으로 그대 모습을 보는 듯 할 것 같다고 풍성함을 더하여 상상의 흥취로 전환한다. 그리고 절구에서 지금은 비록 국화를 보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보내 준 국화가 이곳에도 피어 더욱 진귀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국화를 함께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상상을 흥취로 전환한다. 이 시에서는 이만함이 운수암에 심은 국화를 통해 그의 인품을 높이면서 진귀한 국화만큼 그리운 벗을 향한 마음을 그림처럼 그려 놓고 있다. 그리고 국화를 함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시에 국화의 향기가 나는 듯하며 그리움과 기대의 여운을 주고 있다.

다음은 홍석여의 시에 차운한 시이다.

時節黃花盡意舒
天教黃色匝仙居
無端借與清風便
一縷香隨滿握書

가을이라 시절 따라 국화 한껏 피어나니
하늘이 노란빛으로 신선의 거처를 내들렀네
무단히 맑은 바람 편에 빌려 보내 주시니
한 줄기 국화 향이 편지 가득 묻어 왔네¹²⁶⁾

이 시는 3수 중 세 번째 수로 절구의 형식 안에 가을 국화의 빼어난 모습과 친구 편지를 받는 반가운 마음이 잘 어우러져 표현되었다. 시에 기쁜 마음으로 홍석여(洪錫余, 1682~1761)의 편지를 읽는 이익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국화를 통한 계절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가을이라 시절에 맞추어 노란 국화가 모두 핀 아름다운 계절에 하늘이 노란빛으로 신선의 거처를 들렀다고 했는데 이는 홍석여의 거처를 말한다. 홍석여의 인품이 신선과 같아 하늘이 노란 국화로 둘러놓았다고 하며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 모습은 편지를 통해 날

126) 李瀾, 『星湖全集』, 卷6, 153c면, 〈次洪水部錫余韻 三首〉 중 3수

아온 소식일 것이다. 그래서 전구와 결구에서는 끝없이 불어오는 가을의 상쾌하고 맑은 바람에 편지가 왔으며 한 줄기 국화 향이 편지에 가득 묻어왔다며 운치 있게 표현한다. 맑은 바람과 한줄기 국화 향은 이익과 벗을 이어주는 매개이며 맑고 깨끗한 그의 인품, 그리고 그와 교류하는 이익의 인품까지 돋보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매개를 통한 벗의 편지는 국화 향 속에서 그리움을 반가움으로 변화시켜 준다. 국화를 즐기는 신선과 같은 홍석여의 모습은 도연명과 오버랩되며 벗의 은자로서의 삶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또 그 친구인 이익 역시 맑은 인품의 소유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도연명을 생각하고 선경을 연상시키며 벗의 편지를 읽는 그리움과 반가움의 표현은 무한한 향기와 흥취를 주며 시를 보는 이에게 감성적으로 다가 가게 한다,

지금까지 교류시 작품을 통해 이익의 시적 감성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학자로서의 면모와 애민이 드러난 모습도 보였지만 지인들을 그리워하는 감성에서 담박하고 전아하게 표현되는 시인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교류 인물을 통해 드러나는 이익의 그리움은 감정의 편폭이 크지는 않으며 격정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으나 담박하면서도 고아한 풍취가 있는 섬세한 감성으로 표현되어 인간 이익의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 그리고 시적 교류 속에 전해지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한편의 동양화 같은 회화적인 표현은 시 전체의 분위기를 더욱 운치 있게 만들고 있어 이를 통해 이익의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3. 日常에의 관심과 自意識의 발현

성호 이익은 조선 후기 학문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실학자이며 여러 글을 통해 이미 후세에 인정을 받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학문적 성취와 더불어 일상에의 관심과 자의식의 발현이라는 주제로 『星湖全集』의 시를 통해 드러나는 그의 삶에서 현실에 대한 인식의 과정과 일상에서의 의식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星湖全集』의 시에서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표현에 있어서 이익의 생각이나 이상이 시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 보인다. 이는 文보다 감각적이고 때로 더욱 역동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시인으로서 인간적이며 정감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의 사상과 감정이 시를 통해서 충분히 표현이 되고 있어서 기존의 자리매김한 정형화된 모습을 벗고 실학 사상가로서의 이익이 아니라 정감적인 모습과 새로운 시인으로서의 모습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를 통해 실학적인 의미로써 실용, 애민, 실천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가 남긴 시 속에 담겨있는 현실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의 시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선비로서 그 자신이 어떠한 처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학문을 연구하며 제자를 키우고 농촌의 현실 속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학자로서 살아가는 데에 기저가 되었을 것이고 그는 자신의 불우한 상황에서 학문에 심취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의 반숙가(半菽歌)에서 ‘나는 군자가 스스로를 잘 달랜다는 것을 안다(自寬)’¹²⁷⁾고 한 것이다. 그의 현실의 삶은 끊임없는 自寬의 과정이었으며 나아가 주위를 돌아보고 백성의 삶을 살피며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127) 李瀼, 『星湖全集』 卷5, 146b면, 〈半菽歌〉, “吾知君子善自寬”

하였다. 이러한 그의 평생에 걸친 학문적 관심과 노력, 백성을 살피는 애민 의식은 바로 그의 실학, 실용의 정신이었다.

이렇게 이익이 현실에 중심을 두고 실학을 개진하기까지 평소 그의 관찰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생활 속에서 관찰을 잘하였으며 그 관찰의 대상을 통해 삶의 이치를 종종 깨닫기도 하였다.

관찰을 잘하는 자는 무엇을 보든 깨닫는 것이 있다. 나도 닭을 먹으면서 편당이 있는 이치를 알았다. …… 사람이 당(黨)에 치우쳐서 다투는 것도 벼슬과 녹봉 때문이다. 때로 혹 죄를 얻어 온갖 고통을 겪는 자도 있으나, 희망하는 것이 오직 벼슬이기 때문에 벼슬 얻기를 도리어 중히 여기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죄는 꺼려하지 않는다. …… 또 사람에게겐 닭만도 못한 것이 있다. 못 닭이 서로 먹을 것을 다퉴 때는 날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못하는 것이 없어 싸우다가도 그 일만 끝나면 서로 다투던 것은 아무 흔적 없이 되고 여전히 좋게 지낸다. 오직 사람만은 그렇지 않고 얼마를 지난 후에도 물이 용솟음치듯이 노여운 모습이 가라앉지 않는다. 반드시 상대자를 죽여 없애 버리려고 하면서 그 잘못을 서로들 뉘우치지 않으니, 또한 이는 차마 못할 일이다.¹²⁸⁾

평소 생활 속의 관찰을 통하여 인간의 이치를 생각하였는데 그가 가장 피해를 입은 당파의 문제에 대하여 그는 생활 속에서 직접 닭을 기르면서 그 움직임을 잘 살피 편당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닭이 모이를 다투어 먹다가 주인이 몰아내면 피하는 것이 마치 당파를 나누어 다투는 것과 같으며 사람들이 당에 몰려 다투는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벼슬과 녹봉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은 오히려 닭보다 더 심하게 당파로 인하여 결국 상대자를 죽여 없애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비판한다.

128) 李滯, 『星湖僊說』 卷6, 萬物門, 〈祝鷄知偏黨〉, “善觀者 觸物有得 余祝鷄而知偏黨之理…偏黨之所爭者 爵祿也 時或得罪者 有矣 罪雖苦 所希得爵 得爵反重 罪有所不憚…亦有人 不如物者 羣鷄之爭食 其飛奔攘奪 無所不至 事已則帖然 無痕依舊和同 人則不然 洗洗餘怒 必欲逞憤殄滅 而無悔 亦忍矣”

이익은 관찰을 통해 현실의 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이치를 궁구하였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는 농촌으로 물러나 학문에 매진하면서 현실과 떨어진 듯 하였지만 오히려 객관적 인식과 학문적 역량의 바탕 위에 정확한 관찰과 판단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관직에 나아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그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끊임없이 고뇌하고 마음을 다잡는 흔적이 시 속에 드러나 있어 더욱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익 자신에 대한 의식, 성찰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과 일상에 대한 관심의 시적 표현을 알아보고, 학자이면서도 인간적인 이익의 모습과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고찰하고자 한다.

1) 現實認識과 선비정신의 표출

이익은 학자로서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문에 대하여 심취하고 경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실적 상황으로 인하여 그는 학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달래며 불우함을 글로 해소하려 하였다. 그는 이미 仲兄 李潛의 참화를 겪으며 세상에 대한 염증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재야인으로 학문에 매진하게 되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은 정치적 상황에 의해 가문의 운명이 좌우되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이었지만 재야 학자로서의 삶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다.

그는 『星湖僿說』의 〈怨天尤人〉에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명(命)이란 내가 받아서 간직한 것이다. 나는 즐겁고 남은 근심할 경우, 내가 남의 즐거움을 가로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며, 남은 즐겁고 나는 근심할 경우도 어찌 남이 나의 즐거움을 가로채서 그런 것이겠는가? 그러나 남은 귀히 되는데 나는 천하고, 남은 부자로 사는데 나는 가난하고, 남은 편안한데 나는

수고로운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남은 장수하는데 나는 요절하고, 남은 건강하는데 나는 약하고, 남은 슬기로운데 나는 어리석은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다. …… 사람마다 아무리 자신을 귀히 만들고 부자로 만들고 편안하게 할 권리는 있지만, 남은 되는데 나는 되지 않는 것은 역시 운명이다. …… 여기에서 곧 자신의 운명은 본래부터 타고난 것이 분명하다. …… 순경(荀卿)이 말한 “자신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원망치 않고, 운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치 않는다.”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옛날에 공자께서 천하를 주유하면서 진·채(陳蔡)의 액을 당할 때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고, 곤욕(困辱)을 당하면서도 남을 탓하지 않으셨다. ……129)

이익은 命은 자신이 받아서 간직하는 것이며 귀천과 부귀, 편안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나 건강과 장수, 지혜는 하늘에 달린 것이라 하였다. 보통의 사람은 근심 걱정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과 하늘을 원망하지만 결국 사람은 자기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은 본래부터 타고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순경과 공자께서 자신의 운명을 알아 다른 사람과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고사를 떠올리며 이익 역시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굳이 세상에 나가는 것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학문에 매진하고 인격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선비다운 삶이지 않을까 결심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운명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 인식하였고 재야에서 학자로서의 삶 역시 자신이 직접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표현은 세상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로 인해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었으며 시적 표현에 있어서

129) 李漢, 『星湖僿說』 卷7, 人事門, 〈怨天尤人〉, “命者 我之所受而有者也 我樂人憂我非替人之樂而爲樂 人樂我憂亦豈人替我之樂者哉 然人貴而我賤 人富而我貧 人逸而我勞此出於人者也 人壽而我夭 人強而我弱 人智而我愚 此出於天者也 … 彼雖有貴之富之逸之之權 其彼有我無者亦天也 … 是吾所本有者 明矣 … 荀卿所謂 自知者不怨人 知命者不怨天是也 昔者 聖人不得位轍環天下 尼窮而不怨 窘辱而無尤…”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며 우회와 비유를 통하여 드러내었다.

이익이 속세를 떠나 학자로서 학문에 전념하게 된 가장 중심적인 사건은 26세에 겪은 형의 죽음이다. 이익의 집안은 남인 계열로 조선 후기 정치적 회오리 속에서 치명적인 화를 입는다. 숙종의 경신환국에서 아버지 李夏鎭이 귀향을 가게 되고 결국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이익은 어머니와 형제들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위의 형인 李潛에게 많은 학문적 가르침을 받게 된다. 이익에게 李潛은 아버지이자 스승과 같은 위치인 것이다. 이잠은 그의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정계에 직접적으로 발을 딛거나 벼슬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세자(훗날 경종)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론과 대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망하게 된다. 이 일은 이익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슬픔과 충격이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이익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재야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의 마음에는 울분이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심하게 되고 형의 가르침을 이어나가고자 하였다.

다음은 그는 형인 李潛을 꿈에서 만난 뒤 세월이 흘러서 그 꿈을 기억해서 시를 지은 것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仲兄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獨鳥橫遠渚	외로운 새는 먼 물가 가로지르고
歸鴻拂蒼昊	돌아가는 기러기는 하늘 높이 난다
延佇吾將返	오래 서성이다가 내 이제 돌아가
爲君結幽草	그대 생각하면서 풀 엮어서 집지으리

堂中有古琴	집 안에 오래된 거문고 있는데
絃絕復誰援	현이 끊어졌으니 누가 다시 연주하라
時有松風入	때때로 솔바람이 불어오니

이익이 자신의 형을 꿈에서 만나고 자신의 불우한 마음과 그리움을 시로 적은 10수 중 4, 6수이다. 이 시의 소서에 나와 있는 丁亥年 孟春은 이익이 27세 되던 봄으로 꿈속에서 1년 전 죽은 중형인 李潛을 만나 그가 읊어 주었다는 절구 열 자를 운으로 하여 절구를 지은 것이다. 10수의 시 전반에 그리움, 슬픔의 감정이 묻어 나온다.

4수에서는 서로 만날 수 없지만 자유로운 곳에 있는 형님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기구와 승구에서의 물가를 가로지르는 외로운 새와 돌아가는 기러기는 이익 자신과 형님을 상징하며 이들은 서로 만날 수 없지만 먼 곳에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 형님을 볼 수 없어서 혼자서 외로운 자신의 심사가 고독하게 드러난다. 돌아가는 기러기는 형님의 모습을 비유하며, 세상을 떠나 훨훨 높이 날아가는 자유스러움에서 형을 기리는 이익의 의식이 보인다. 전구에서는 먼 곳에 있던 시야를 자신에게로 전환하는데 형이 그림고 보고 싶어 서성이다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절구에서는 형의 일로 인하여 속세를 떠나 형의 뜻을 이어받아 초야에 은거하겠다고 다짐하며 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마무리하고 있다.

6수 역시 스승 같았던 형님을 잃은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그려내고 있다. 집안의 오래된 거문고는 이제 주인이 없어 연주할 사람이 없다. 자신이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던 형님을 정치적 싸움으로 잃게 되고 이익은 정치와 환로에 환멸을 느껴 세상사로부터 떠나게 된다. 絶絃의 고사로 마음을 나누던 형님과의 이별과 죽음을 비통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문득 솔바람이 불어와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이를 통해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중형과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맑은 소리에 형님의 넋을 기탁한다며 그

130) 李潛, 『星湖全集』 卷1, 053b면, 〈記夢 十首 并小序〉 중 4, 6수로 小序의 내용이 있다.

리움을 담고 있다. 형님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좌절과 비통 그 자체로 함몰되지 않고 마음을 추스르며 松風, 泠泠을 통해 맑은 기운으로 시를 마무리 하며 중형과 정신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형이 가진 높은 정신을 이어서 재야에 살며 형의 정신을 이어 가겠다는 이익의 마음이 드러난다.

평소 이익은 왕성한 학문적 호기심과 열정이 있었으며 퇴계 이황을 존모해 왔다. 세상에 대한 염증은 그를 초야의 선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였으며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그를 성호장 안에서 더욱 열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슬픔과 안타까움을 자기 성장의 바탕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성호장에서 그는 농촌의 삶을 살며 농부의 생활을 가까이 살펴볼 수 있었고 자신 또한 田園을 벗 삼아 학문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었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학문적 성취는 높아졌다. 다음은 그의 농촌에서의 삶을 볼 수 있는 시이다.

農家不復外經營	농가에선 농사 외엔 경영하지 않으니
多識維資百穀名	많이 아는 것 오직 백곡의 이름일세
四體雖勤心便逸	사지는 피곤하지만 마음 곧 편안하고
一身無累事宜輕	일신에 구속이 없으니 일은 절로 가벼워라
流年晚晚鴻賓逼	흐르는 세월 저물어 기러기 돌아올 때 가까운데
快眺登臨蜃市晴	높은 곳에서 후련히 조망하니 신기루 말끔히 갼어라
何處雲翻兼雨覆	어느 곳에서 구름 뒤집히고 비 쏟아지는가
載書聊主白鷗盟	책보며 백구와 함께하잔 약속 지키리 ¹³¹⁾

구속을 떨쳐버리고 책을 보며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겠다는 이익의 다짐이 보이는 시로 이익이 40세 무렵에 지은 것이다. 이 시에서는 세상을 벗어나 농촌의 삶을 택하고 직접 몸을 움직여 농가의 생활에 전념하며 마음을 가볍게 하고자 하는 그의 의식이 드러난다. 수련에서는 그의 성호장에서의

131) 李滂, 『星湖全集』 卷1, 058b면, 〈閑事 二首〉 중 4, 6수

삶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경영하며 백곡의 이름을 모두 다 알 정도로 농사일에 전념하는 그의 의지가 드러난다. 함련과 경련에서는 농가에서의 구체적인 삶과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다. 몸을 열심히 움직여 피곤하지만 도리어 세상사에서 벗어나 마음은 편안하고 일신에 구속되어 매인 것이 없으니 부담 없이 가볍기만 하다. 흐르는 세월 속 높은 곳에서 조망하는 자신의 마음은 의혹이 없는 상태, 신기루가 깨끗하게 사라진 상태이다. 그리고 『春秋左氏傳』의 진나라 사상자의 재서의 고사를 가져와 백구와의 맹서 곧 염량세태가 싫어서 자연에 은거하며 은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이익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이익은 현실의 삶을 살아가며 불우한 자신의 마음을 자연 속에서 다독이며 학자의 길을 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선비로서 자신이 해야 할 바에 대하여 고민하며 때로 정확히 인식하며 삶의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였다.

岡分南北自成閭	멧부리 남북으로 나뉘 절로 마을 이루어져
世外紛譁夢亦疏	시끄러운 세상일은 꿈속에서 멀어지네
最薄生涯爲本分	검박한 삶 최고라고 본분으로 여기고
稍高言語合全除	조금도 자만의 말 절대하지 말아야지
酒香爭似花香烈	술 향기가 어찌 진한 꽃향기와 다투리오
山色兼將月色舒	산 빛은 달빛과 함께 펼쳐졌구나
頓頓無人聊靜習	인적이 없어 그저 고요히 공부하노라니
窗風時捲讀殘書	창에 부는 바람이 읽던 책장 때로 넘긴다 ¹³²⁾

이 시에서는 마음을 다잡아 독서에 힘쓰며 학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익의 모습이 보인다. 이익은 젊은 시절 정쟁으로 인한 집안의 화를 직접 겪으면서 세상의 모든 일에서 벗어나 성호장에 은거하며 학문에 집중하였다. 그리

132) 李瀼, 『星湖全集』 卷2, 078c면, 〈偶作 二首〉

고 자연 속에서 선비로서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자만을 경계한다. 세상의 모든 일을 벗어나 짙은 꽃향기 속에 산빛, 달빛과 함께 그저 조용하게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놓고 있다. 때로 바람 불어와 바람이 친구인 양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편안하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乖風虐雪助癡寒	거센 눈과 바람이 혹한을 부추기니
定獸棲禽總不安	짐승들도 새들도 모두가 불안한데
獨喜三重茅屋底	나 홀로 기쁘구나 세 겹 이엉 초가에서
靑燈留照蠹書看	푸른 등잔 밝히고 옛 책 보고 있으니 ¹³³⁾

계절의 변화 속에서 혹한의 추위는 자연의 모든 생명에게 불안감을 준다. 현실의 불안함을 초월하고자 하는 그의 의식이 이 시를 통해 드러난다. 기·승구의 매서운 추위와 거센 바람, 사나운 눈이 더하는 설상가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금수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며 외부의 불편함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전·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인 자신이 홀로 안온한 세 겹의 초가 아래에서 푸른 등잔을 밝혀 좀 먹은 옛 책이나 보겠다고 하며 어쩔 수 없는 불편함에서 외부와 단절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힘든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를 달래며 거친 세상에 연연하지 않으며 독서에 심취하고자 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외부의 불안함을 막는 세겹이나 두른 초가와 푸른 등잔이 주는 청명함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 침잠하고 싶어하는 작가의 마음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불편하고 불우한 상황 속에서 自寬하며 마음을 달래는 그의 의식이 드러나 있다.

벼슬살이를 하지 않는 학자의 삶에서 경제적 궁핍함은 때로 삶을 흔들고 현실에서 선비로서 살아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이익은 다시 마음

133) 李瀼, 『星湖全集』 卷3, 096b면, 〈劇寒〉

을 가다듬는다. 다음은 등을 켜지 않은 채 운을 불러 지은 〈無燈呼韻〉이다.

貧家無力辦油燈	가난하여 기름 등잔을 마련할 길 없으니
縱羨何殊夏語冰	구하려 해도 한여름 얼음과 다름없네
惟有此心明較火	그러나 나에게는 등불 같은 마음 있어
煌煌傍燭待晨興	찬란한 빛 옆에서 새벽을 기다린다 ¹³⁴⁾

이익에게 있어서 등불은 어둠에 대비 되는 희망의 빛이다. 등불은 실제의 불이기도 하지만 가난의 어둠과 좌절 속에서 밝히고자 하는 자신의 의식이며 마음의 등불로 이익의 의지와 희망, 그리고 바람이다. 경제적 곤궁함 속에서의 기름 등잔은 한여름 얼음과 같아 마련할 길이 없고 이러한 가난과 어둠 속에서 선비로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생각한다. 전구와 결구에서 마음에 있는 밝은 등불을 켜고 자신은 그 황황하고 찬란한 빛으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둠과 가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빛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자신의 포부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草木知時正待霜	초목은 시절 알아 서리 기다리는데
郊原處處曝秋陽	교외 들판 곳곳에는 가을별이 내리쬐네
粟房紅綻誇先熟	밤송이 붉게 벌어져 먼저 익음을 자랑하고
禾畝黃深恥後嘗	누런 벼가 익어 가니 늦게 맛봄 부끄럽네
土自爲人生穀粟	땅은 절로 사람 위해 곡식을 키워 내고
天能容我臥農桑	하늘은 나를 받아 농사지어 살게 하네
年來技倆輸安分	근래 들어 모든 기량 안분에 쏟아
憂樂無根已兩忘	뿌리 없는 근심 즐거움은 이미 다 잊었노라 ¹³⁵⁾

가을날의 일상 속에서 농촌은 추수로 바쁘고 이익은 가을의 흥취를 느낀

134) 李瀾, 『星湖全集』 卷3, 096c면, 〈無燈呼韻〉

135) 李瀾, 『星湖全集』 卷6, 152d면, 〈秋興〉

다. 이 시에서는 전원의 삶에서 자신의 모든 근심과 즐거움을 잊고 安分知足하고자 하는 이익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서리를 기다리는 가을날 별이 내리 쬐는 들판과 밤송이가 붉게 익어가는 모습, 누런 벼가 익어가는 모습이 시각적 감각을 통해 대자연 색채의 아름다움과 함께 풍요롭게 펼쳐진다. 그러한 자연은 인간을 받아들이는 넉넉한 포용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익 자신을 받아들여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식인으로서의 근심과 즐거움, 노력은 넉넉한 자연 앞에서 스스로 족함을 느끼게 한다. 가을날의 풍요로움과 농사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며 자연에 만족하고 근심을 초월하여 자신을 다독이는 그의 自寬이 보인다.

농촌의 삶에 만족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半菽歌〉에서도 드러난다.

.....

生平不耕亦不耘	평생 밭 갈지 아니하고 김매지도 않았으니
鼓腹含哺計甚差	배 불리 먹으려는 계책 참으로 잘못이지
天生五穀菽居一	하늘이 낸 오곡 중에 콩이 거기 끼었는데
就中赤色尤稱嘉	그 가운데 붉은색 콩이 더욱이 좋다 하네
火旺方生水旺死	화기 왕성할 때 자라서 수기 왕성할 때 소멸하고
恬滑輕軟味更奢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더욱 사치스러워라
貧家乏財善方便	가난한 집이라 없는 재물에 방도를 잘 세워서
賤價易辦此亦多	싼 가격에 쉽게 마련하니 이 또한 많을시고
與米相和得均劑	이 콩을 쌀과 함께 고르게 잘 섞어서
錡釜爛蒸騰成霞	가마솥에 푹 찌면 김이 솟아 안개가 되네
盈杆啓會氣燻人	그릇에 담았다가 뚜껑 열면 향기가 엄습하니
水晶火齊交相加	수정 화제 다채롭게 이리저리 더해진 듯
春風雜花開複疊	봄바람에 온갖 꽃들이 첩첩이 피어날 제
桃紅李白色盪磨	복숭아꽃 오얏꽃이 붉고 희게 뒤섞인 듯
長少分行爭舉匙	어른 아이 나뉘어서 다투어 숟가락 들고

一時咀嚼芬齒牙	한 번에 씹어 먹으니 입 안에 향기 가득하다
爾來肉味忘已久	그 이후로 고기 맛을 잊은 지 오래거니
河鯉松鱸莫相誇	황하 잉어 송강 농어 자랑치 말지니라
請看前村煙未起	앞마을에 연기가 오르지 않는 것 보아하니
此物於我非泰耶	이 음식도 나에게는 과분한 것이 아니겠나
傳聞貴富競豪侈	듣자니 부귀한 자들은 사치를 서로 다투어서
一餐萬錢羶葷羅	한 끼에 만금을 들여 진수성찬 차린다 하네
填胸果腹不肯休	가슴을 채우고 배를 채워도 먹기를 쉬지 않고
剝民充欲其柰何	가림주구하여 욕심을 채우니 이를 어이하리오
吾知君子善自寬	군자란 스스로를 누그러뜨린다는 것을 아노니
半菽何害碩人藹	콩 섞은 밥이 현자의 한가로운 자취에 무슨 방해 되랴
蓬門日月足生涯	오두막에 사는 세월 내 삶에 족하니
六籍在案終朝哦	책상에 놓인 육경(六經)을 아침 내내 읊조리노라 ¹³⁶⁾

이익은 지식인으로서 전원의 삶을 직접 경험하였고 그 안에서 검약한 생활을 즐겨하였다. 평소 콩을 즐겨 먹었으며 『星湖僿說』에서는 콩으로 만든 식품인 두부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기록하고 두부의 의학적 효능을 말하기도 하였다.¹³⁷⁾ 이익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으며 상차림으로 콩을 즐겨 내었는데 사람들을 모아 ‘三豆會’를 만들기도 하였다. ‘三豆會’는 콩으로 죽을 쑤고 콩나물과 된장을 먹는 소박한 상차림을 통하여 친척들과 환담하는 모임이었으며 이를 통해 가난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지식인으로서의 검약한 삶을 몸소 실천하였고 자손들에게도 글을 남겨 경계로 삼았다.¹³⁸⁾ 농촌에서 학자로서 살며 밭을 직접 갈아 농사지은 것은 아니

136) 李瀼, 『星湖全集』 卷5, 146b면, 〈半菽歌〉

137) 李瀼, 『星湖僿說』 卷4, 萬物門, 〈豆腐〉

138) 李瀼, 『星湖僿說』 卷16, 人事門, 〈三豆會〉, ‘余近作三豆會 黃豆爲粥 黃卷爲菹 與豆醬爲三 集親戚而權譏’

므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며 배부르게 먹는 것을 경계하고 콩이 가지는 장점과 콩으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열거하며 다양한 감각과 분위기로 진수성찬 부럽지 않은 음식으로서의 콩을 자랑한다. 그리고 이런 콩 조차 먹을 수 없는 다른 마을의 상황을 살펴보며 도리어 과분하게 생각하고 가난한 삶 속에서 즐거움과 자족을 찾으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사치를 다투며 苛斂誅求하고 끊임없는 욕심을 채우는 부귀한 이들을 비판하고 당장 자신의 힘으로 개선할 수 없는 현실에 스스로를 달래며 성인 또한 그러한 과정을 겪은 것을 거울삼는다. 그리고 다시 애써 농촌의 일상 속에서 독서에 힘쓰고자 한다. 학자로서 검소한 삶 속에서 콩으로 만든 음식을 소재로 하여 자신의 삶에 자족하고자 하는 自寬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이 생활에 만족하고 安分하지만 끊임없이 선비정신을 가지고 백성을 위하려는 의식이 바탕으로 있어 완벽하게 비판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편안하지도 않는 모습이 드러난다. 자족의 생활을 누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그의 생각이 갈등의 국면으로 시에서 드러나고 있다.

세월이 흐름 속에서 농촌의 삶에 자족하고 학문에 매진하며 살아보지만 근심과 질병은 이익을 괴롭게 한다. 다음 시를 살펴보자.

愁病如滄海	시름과 병이 바다처럼 끝이 없어
精魂墮渺茫	정신과 혼은 아득히 떨어지네
幾時寒有盡	언제나 이 추위가 다하려는가
今歲夜偏長	올해에는 밤이 유독 길고 길구나
塵厚書拋閣	시렁에 책은 던져두어 먼지 두터이 쌓이고
盃親酒沃腸	술잔에 술을 부어 배를 축이네
願言乘快馬	원컨대 날랜 말을 타고서
白日走平岡	환한 대낮에 평지를 달려 봤으면 ¹³⁹⁾

139) 李灑, 『星湖全集』 卷5, 143d면, 〈愁 二首〉

이익은 말년에 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했다. 추운 겨울밤 병과 시름은 끝이 없고 정신조차 아득한 상황 속에서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한잔 술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그리고 환한 대낮에 건강한 몸으로 말을 타고 평지를 달리고 싶은 바람을 읊고 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힘차게 세상에 나아가고 싶은 그의 바람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은 이익이 자신의 회포를 읊은 시이다.

回首青山夢不禁	청산을 돌아보매 꿈에서도 못 잊던 곳
桃花逐水武陵深	복숭아꽃 물길 따라 무릉도원 깊어 가네
紅霞蒸處知依舊	붉은 노을 피어나는 곳 예전과 다름없고
黃道眞名說至今	황도진이라 그 이름은 지금까지 회자되네
杜老空悲身世拙	두보는 부질없이 곤궁한 신세 한탄했고
淵明終欠溯洄尋	도잠은 끝내 근원 찾아가지 못하였지
春風廿四吹將過	봄바람이라 입사풍이 불어와 지나가리니
祗恐光陰負素心	다만 세월 속에 본심을 저버릴까 두렵구나 ¹⁴⁰⁾

이익은 이 시에서 자신의 삶과 옛날 두보와 도연명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다. 푸른 산을 돌아보며 도연명의 무릉도원임을 알게 되고 자연은 예전과 다름없음을 말한다. 푸른 산, 복숭아꽃, 붉은 노을, 황도진의 黃까지 다양한 색감을 통하여 자연의 시각적 화사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자연은 옛날과 다름없고 무릉도원의 어부는 이름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두보는 공연히 자신의 곤궁한 신세를 한탄했으며 도연명은 무릉도원을 꿈꿨지만 끝내 무릉도원을 찾지 못했다. 입사풍(廿四風)은 이십사계절에 부는 바람으로 이 바람이 불면 시기별로 다양한 꽃이 번갈아 피게 된다.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 과거의 인물들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왔지만 끝내 이름을 날렸던 것을 기억하며 다

140) 李瀼, 『星湖全集』 卷6, 157d면, 〈有懷〉

만 자신 역시 세월 앞에 본심을 저버릴까 두렵다며 선비의식을 가지고 학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이익의 의지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며 반추하고 다독인다.

一曲星湖社	한 굽이 후미진 성호촌에서
煩心已剷除	번뇌하는 마음을 베어 버렸지
日和蠶養蜜	날 폭하니 벌들은 꿀을 모으고
風靜鳥安居	바람 멧자 새들은 편안히 쉬네
舊事留喬木	옛일은 큰 교목에 다 남아 있고
新知得異書	신지식은 이서에서 얻게 되누나
偶然扶杖出	우연히 지팡이 짚고 밖에 나와서
極目看郊墟	눈길 닿는 데까지 들판을 바라본다 ¹⁴¹⁾

이 시에서는 번뇌하던 마음을 다잡고 안산의 성호촌에 은거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젊은 날 모든 것을 떠나서 성호촌에 정착하며 그는 자신이 선비로서 가야 할 길을 정했다. 자연을 벗하며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 편안히 은거하고자 하였으며 오랜 시간 옛 공부를 하고 새로운 학문과 신지식을 습득해 갔다. 나이가 들어 지팡이를 짚고 들판에 서서 마음을 비우고 자연을 바라보는 모습은 자연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자연과 하나가 된 상태이다. 이익이 재야에서 선비이자 학자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어떻게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여 왔는지 발자취를 그리며 자신의 소회를 읊는다. 이 시에서는 그가 자연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본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다음은 그가 스스로 지은 명정인 〈自題銘旌〉이다.

141) 李瀾, 『星湖全集』 卷4, 124c면, 〈寓興〉

生爲賤士稱徵士	살아서는 천한 선비였는데 징사라 불렀고
迹涉農夫志壯夫	자취는 농부였지만 뜻은 장부였다네
月色風光隨意駕	달빛 풍광 자유롭게 타고서 날면
青天何處不亨衢	푸른 하늘 어느 곳인들 너른 길이 아니더냐 ¹⁴²⁾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살아온 결과를 시로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를 겸양하여 살아서는 벼슬 없는 천한 선비였지만 임금의 부름을 받은 徵士였으며 농부의 삶을 살았지만 壯夫의 뜻을 두었다고 하며 재야의 학자, 선비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강한 자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평생에 걸친 그의 시를 통해 이익 자신의 처지와 이를 대처하는 의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불우하고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비탄에 빠지지 않으며 선비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불우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는 시에서 불우하게 표현하지 않고자 애를 썼으며 학자로서 책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잘 누그러뜨리고자 하였다. 때문에 가난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빛나는 등불을 잡고 끊임없이 독서에 매진하며 학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생 동안 학자로서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가며 세상의 어긋남을 말하였고 시적 표현 안에서도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으나 갈등 자체에 함몰되지는 않았으며 고뇌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아 갔다. 그는 농촌에서 학자로서의 검소한 생활을 하며 그 안에서의 흥취와 자족을 느끼고자 하였고 언젠가 밝은 새벽이 오리라는 희망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그의 시를 통해 인간적인 이익의 모습과 그의 흥취, 정감을 볼 수 있었다.

많은 문인이 자신이 인식한 세계에 대하여 시로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익은 자신이 경험한 현실의 우화적 상황과 소재를 취하여 자신의 감정, 문제의식을 함께 표현하였다. 우화를 통해 드러나는 시적 표현은

142) 李瀼, 『星湖全集』 卷6, 157c면, 〈自題銘旌〉

실제 생활에서 겪은 일처럼 묘사 되기도 하고 자신의 현실에 대한 비판을 비유하여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우화시를 통해서 당대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데에서 뛰어난 작가 의식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지렁이를 보고 세상의 이치를 표현한 <지렁이에 대한 탄식> 이다.

丘引穴蟄何其智	지렁이가 굴에 숨었을 때 얼마나 지혜로웠던가
壤土築階引帶裏	섬돌 아래 흙을 파고서 그 속에 들어가 살았지
萬艱抽身力亦大	천신만고 끝에 몸을 빼냈으니 힘이 또한 크건만
螻蟻十百來橫曳	수십 수백 마리 개미떼 와 이리저리 끌고 가네
蠕蠕轉動蟻愈集	꿈틀꿈틀 몸 뒤틀수록 개미 더욱 모여들고
羣雞刺癘爭窺急	닭들은 쪼아 먹으려 다투어 틈을 엿보네
智力到此無奈何	이에 이르러 지혜와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
嗚呼世事亦同科	슬프다 세상의 일이 또한 이와 꼭 같구나 ¹⁴³⁾

이익은 현실의 생활 속에서 보이는 현상을 통해 자신의 불우한 마음과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냉엄한 세상의 이치를 생각하였다. 이 시는 이익이 47세 무렵에 지은 시로 자신의 불우한 심사를 지렁이에 빗대어 시를 지었다. 이익은 지렁이를 자기 자신 그리고 세태를 개미 떼와 닭에 비유하고 있다. 수련에서는 지렁이의 삶과 지혜에 대한 찬양이다. 지렁이가 굴에 숨어 살았을 때 얼마나 지혜로웠냐며 섬돌 아래 흙을 파고 산 삶을 높여준다. 자신으로 비유하자면 세상을 떠난 은거의 삶일 것이다. 경련과 미련에서는 굴을 나와서 개미와 닭에게 시달리는 지렁이의 모습이 보여진다. 천신만고 끝에 굴에서 빠져나온 것이 힘이 커서였겠지만 개미 수백 마리가 와서 끌고 가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꿈틀거리며 몸을 비틀고 움직일수

143) 李漢 『星湖全集』 卷2, 079a면, <丘引歎>

록 개미는 더욱 모여들기만 할 뿐이다. 게다가 닭들이 쪼아 먹으려 틈을 엿 보고 있다. 의태어를 통한 생동감이 돋보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지렁이가 굴 속에 있는 상황은 지식과 지혜를 갖춘 자신의 모습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많은 이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쪼이게 될 것이다. 미련에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렁이와 이를 통해 작가가 느끼는 감정을 적고 있다. 아무리 지혜와 힘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에 이르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지렁이에게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시를 통해서 이익은 능력 있는 인물이 세상의 공격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모순과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비유하여 말한다. 힘이 있다고 하여도 많은 이들의 공격으로 인해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을 자신은 몸소 겪었기 때문이다. 이익은 세상에 대한 염증을 자연의 생태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혜로운 자가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것에 대해 생각하고 한편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다.

다음은 솔개와 황새가 둥지를 놓고 다투는 것을 보고 장난삼아 지은 〈戲賦鳶鶴爭巢〉이다.

鶴有弊巢鳶作主	황새의 낡은 둥지 솔개가 차지했는데
鶴來尋居鳶反猜	황새가 다시 찾으니 솔개가 싫어하네
彼雖辛勤始開基	황새가 고생하며 터를 먼저 닦았지만
此亦經營功費來	솔개도 수리하느라 공을 많이 들였지
小者輕飛固善攫	솔개 가벼이 날아 후려치길 잘하고
大者利嘴能啄之	황새는 예리한 부리 쪼아 대며 싸우네
嗚呼二物孰是非	아아, 두 짐승 중 누가 옳고 그르던가
仰天一笑吾何知	하늘 우러러 웃을 뿐 내 어찌 알겠나 ¹⁴⁴⁾

144) 李漢, 『星湖全集』 卷3, 097c면, 〈戲賦鳶鶴爭巢〉

이익은 종종 자연의 모습에서 인간사의 이치를 깨닫고 비유적으로 드러내었는데 이 시 역시 당시 정치의 혼란한 싸움을 솔개와 황새가 둥지를 놓고 다투는 것을 통해 풍자하며 비판하고 있다. 시의 내용은 두 마리의 새가 하나의 터를 두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지만 이 안에 있는 관계는 인간 사이의 특히 정치적 상황으로 대치하여 볼 수 있다. 이익은 둥지 하나를 놓고 벌어지는 황새와 솔개의 싸움을 세밀하게 표현한다. 황새의 낯은 둥지를 솔개가 차지하고 황새가 이를 다시 차지하니 솔개는 싫어한다. 낯은 하나의 둥지만 있으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황새와 솔개 모두 터를 닦고 경영한 공이 있으니 저마다 자신의 입장과 이유는 있을 것이다. 싸움은 보다 격렬해 진다. 솔개는 날아서 후려치고 황새는 예리한 부리로 쪼아대며 싸운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작가는 탄식한다. 과연 두 짐승 중에 누가 옳고 그른가? 하늘을 보며 웃을 뿐이라며 한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의식이 보인다.

장난삼아 지었다는 의미로 제목에 희롱하다는 ‘戲’를 넣었지만 그 내용은 장난스럽지 않고 진지하다. 戲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인식의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¹⁴⁵⁾ 자신이 그 안에 속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당시 상황을 가소롭게 생각하며 비판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당쟁의 원인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찰하여 솔개와 황새의 둥지 다툼으로 형상화한 우화시이다.¹⁴⁶⁾ 당쟁에 대한 이익의 입장은 다음 글에서도 볼 수 있다.

지금 열 명이 똑같이 배가 고프다. 밥은 한 그릇인데 모두 손가락을 들이대니 밥그릇을 비우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난다...그렇다면 봉당이라는 것은 어디

145) 신두환, 앞의 논문, 152-153면.

146) 김남형, 앞의 책, 114면.

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과거(科擧)를 너무 자주 보아서 뽑은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며, 임금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편파적으로 하여 벼슬에 오르고 내리는 것에 원칙이 없어졌기 때문이다.¹⁴⁷⁾

이익은 정치에서 적은 수의 관직으로 인하여 각 정당 간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藿憂錄』과 『星湖全集』에서도 朋黨의 문제점과 원인을 찾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그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과 깊은 사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부분이 시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특징적으로 그는 새들의 둥지 쟁탈이라는 당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가져와 자신과 주위에 깨우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화를 통한 현실 문제에 대한 풍자와 비판은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사태를 너무 진지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여 한걸음 물러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대변하기도 한다.

다음은 또 다른 우화시 인 〈술 취한 호랑이에 대한 노래〉이다.

吾聞虎以狗爲酒	내 들건대 호랑이는 개를 술로 삼는다네
吃狗猶醉況膾肥	개 먹어도 취하는데 살찐 돼지 먹음에라
豬鳴哢哢虎攫攫	꽤꽤대는 돼지를 호랑이가 움켜쥐어
一飽醕酌山巖歸	잔뜩 먹고 취해서는 산으로 돌아가네
山虞挾銃火發丸	사냥꾼이 총을 들고 탄환을 발사하자
霹靂應手驚神威	벽력같이 불을 뿜어 호랑이 놀래켰지
穿腸刳肝不復惜	내장 찢고 간 발라도 애석하지 않으니
委棄何異螾與蟻	버려져서 지렁이 개미와 무엇이 다르던가?
童孩狎觀有餘嗔	호랑이 살아 있나 아이들도 와서 보고

147) 李瀛, 『星湖僊說』卷45, 雜著, 〈論朋黨〉, “今有十人共飢 一孟而駢匕 不終器而鬥起 … 然則朋黨何從而有所乎 蓋選舉繁而取人太廣也 愛憎偏而進退無恒也”

撩頭捋鬚無畏忌
 念爾當時恣虐毒
 磨牙殺人行閭里
 哀哀寡獨冤恨長
 聲徹穹壤鬼亦淚
 爾惡既盈誅死迫
 偶然醺酣豈天意
 山中從此深夜行
 百獸號舞假鬼喜
 君不見
 乙辟邪魔晴定魄
 去欲剝取資醫技

기탄없이 머리 치고 수염도 뽑아 보네
 네가 살았을 땐 사납고 악독해서
 날선 이빨로 살인하며 마을을 다녔었지
 불쌍한 과부 독거노인 원한이 깊고 깊어
 그 소리 하늘 통해 귀신도 울었다네
 네 악이 이미 차서 죽을 때 되었으니
 우연히 술 취한 건 아마 하늘 뜻이리라
 이제는 깊은 밤 산속 다닐 수 있으니
 모든 짐승 춤을 추고 창귀도 기뻐하리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호랑이 뼈 악귀 막고 그 눈 진정제인 것을
 가서 벗겨 내어 약재를 만들리라¹⁴⁸⁾

이 시에서는 현실에서 일어난 호랑이가 죽은 사건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데 다른 시에 비하여 작가의 감정을 그대로 시에 드러내고 있다. 백성을 괴롭히는 호랑이의 죽음을 통해 백성들의 통쾌한 마음을 대변한다. 虎患으로 당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사람을 죽이는 호랑이에 대한 원한과 복수의 마음이 시 전반에 강렬하게 드러나 있다. 호랑이의 악행을 자세히 드러내면서 이를 잡으려는 사람들의 노력, 그럼에도 피해를 입게 되는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서술한다. 술 취해 죽은 호랑이는 지렁이 개미와 다를 바 없는 힘 없는 동물이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한으로 하늘의 징벌이 호랑이에게 내린 것이라며 죽은 호랑이를 약재로 쓰겠다고 기뻐한다. 시의 구성과 내용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호랑이 자체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탐관오리로 대체되어 우화가 된다. 현실에서의 술 취한 호랑이를 잡은 사건이지만 백성을 괴롭히는 호랑이의 모습은 결국 貪官汚吏의 투영이며

148) 李瀼, 『星湖全集』 卷4, 114c면, 〈醉虎行〉

우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하늘이 기필코 징벌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비판을 현실의 사건과 연계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실감나는 생생한 표현을 위해 형식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歌行體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비판하고 있다.

이익은 시를 통해 자신의 응혼한 포부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다음은 매를 읊은 시이다.

天寒澤國北風驅	추운 날씨 택국에서 북풍이 휘몰아치니
哀壑杈枒夜雪鋪	처량한 골짜기 나뭇가지 밤에 눈 덮였어라
萬丈峯尖睇羽翮	만 길 봉우리 뾰족한데 날개깃 번득이며
千重野色視平蕪	천 겹 들판 경광이라 평평한 초원 보는구나
誰知兔走無全窟	누 알랴 토끼 달아나도 숨을 굴이 없음을
佇待鵬搏有遠圖	대붕은 날개 치며 먼 길 도모 기다리네
百戰爭能行且見	백전의 싸움 기술 장차 보게 될 터인데
攬身只覺似愁胡	몸 솟구쳐 단지 북쪽 땅 그리워하는 듯 ¹⁴⁹⁾

이 시에 등장하는 매를 이익은 『莊子 逍遙遊』에 나오는 大鵬에 비기며 두보가 매 그림을 보고 지은 ‘몸을 솟구쳐 교활한 토끼를 생각하고, 눈을 흘기니 북쪽 땅을 그리워한다’¹⁵⁰⁾는 典故를 인용한다. 택국에서 북풍이 휘몰아치는 추운 날씨, 밤에 눈이 덮인 골짜기는 처량하고 삭막함을 전해준다. 만길이 되는 높은 봉우리 끝에서 천겹의 들판을 바라보며 날개깃을 번득이는 매의 모습은 넓고 큰 세상을 바라보는 이익 자신의 모습이다. 교활한 토끼가 달아나더라도 숨을 곳은 없을 것이고 매는 마치 대붕이 한 번 날아 먼 길을 가는 것처럼 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 날기만 하면 백

149) 李漢, 『星湖全集』 卷2, 087a면, 〈鷹〉

150) 杜甫가 매 그림을 보고 지은 〈畫鷹〉에 “솟구치는 몸은 교활한 토끼를 생각하고, 흘기어 보는 눈은 수심 짓는 오랑캐의 눈과 비슷하네. [攬身思狡兔 側目似愁胡]”라고 하였다. 《補注杜詩 卷18》 고전번역원 주석 참조.

전의 싸움 기술을 발휘할 것이다. 북쪽 땅을 그리워하는 것은 결국 憂國衷情의 마음으로 언젠가 나라를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이 기저에 있으며 몸을 솟구치는 매의 힘찬 모습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 매가 창공을 날아 싸우게 되면 대적할 것이 없을 것이고 높이 멀리 날아갈 것이다. 매의 기상 곧 이익의 기상이 느껴지며 자신이 지금은 비록 초야에 있지만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세상에 쓰이면 크게 되리라는 포부와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天寒, 尖, 雪, 哀壑의 거친 세상과 萬丈峯, 千重野로 표현되는 광활하고 넓은 세상을 묘사하고 매와 대립되는 교활한 토끼는 세상 전체를 알지 못하는 실상은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로 그리고 있다. 그 위를 날 준비를 하고 있는 매를 통해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시에서는 훗날을 도모하여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이익의 포부와 기상이 형상화되어 드러난다. 눈 덮인 날 외로이 창공을 날 준비를 하면서 북쪽 고향을 그리는 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익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시 속에서 현실의 사건, 비유적 우화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당대 사회의 부조리와 현실의 불우함, 가난 속에서 진실을 찾고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의 의식이 시로 드러난다. 이익은 때로 자족하고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난과 절망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독서에 매진하고 희망을 바라며 위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끊임없는 자신을 달래는 자관의 과정일 것이다. 일상에서의 농가의 삶을 통해 현실에 대한 자각은 더욱 두드러지며 그의 백성을 생각하는 애민정신과 선비의식은 이익의 실학적 사고의 바탕이 된다.

2) 日常의 자의식의 詩化

성호 이익은 평생 동안 田園에서 삶을 살며 선비로서 자신의 역할이 세상의 宦路에 나아가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구제하며 이상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그의 처지는 사대부로 세상에서 벼슬길에 나아가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田園의 삶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농촌의 삶 속에서 일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의 실용적인 측면이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시 작품 안에서 살펴보려 한다. 산문, 사상에서 보여지는 실학적인 글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의 실학적 의미로서 일상과 현실의 사물이 어떠한 인식과 의식으로 시작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익은 농촌에 살며 농민들의 고난을 보고 겪으며 농사의 중요성 알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는 평소 그가 직접 보고 느낀 삶의 생생한 현장에서 그는 학문이 공허한 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田家의 삶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자족하며 독서인, 학자로 생활하며 현실에서 보고 느끼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은 그를 좀 더 현실 자체로 눈을 돌리게 하였다. 오랜 가뭄과 가난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옆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며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직접 정치적인 현실에 나서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고뇌하며 글로서 자신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시로써 자신의 마음을 읊는다. 날씨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농사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걱정하며 백성들의 태평한 세월을 기원한다. 이러한 점을 통해 이익의 백성에 대한 애뜻함과 그의 애민정신을 볼 수 있다. 그는 詩에서 농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순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기보다는 농촌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안을 두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으며 선비로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였다. 계절과 날씨의 변화에서도 그가 농사를 생각하며 백성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그의 글과 시 속에 현실에 대한 관심과 실용적인 의식으로 자연스럽게 함께 드러나게 된다.

이익은 『星湖僿說』에서 백성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농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며 백성에게 농사를 짓도록 권장해야 함을 말하였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땅, 방법, 토지제도, 수리사업에 대하여 여러 글을 통해 그의 생각을 남겼다.

대체로 임금의 직분은 백성을 기르는 것이 첫째이니 임금을 돕는 재상의 임무도 역시 백성을 지도하고 기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백성에게 농사는 권장하지 않고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데에만 힘쓴다면 괴이한 일이다.¹⁵¹⁾

이익은 〈勸農〉에서 임금의 직분은 백성을 기르는 것이므로 백성에게 농사를 권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 토지제도에 대한 〈田制〉, 농사꾼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추천하여 등용하자고 주장한 〈薦拔畎畝〉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구체적 백성의 상황을 전하며 정책적인 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익의 일상에서 농사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田溝滲濕〉, 〈壅水溉田〉에서는 가뭄과 장마를 피하기 위한 관개수로의 정비와 농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¹⁵²⁾ 자신이 직접 경험한 농사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제안을 통해 그의 현실 삶에 대한 깊은 관심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드러

151) 李瀼, 『星湖僿說』 卷27, 經史門 〈勸農〉, ‘夫君之職 以養民爲先 則輔相之任 亦不過導養黎庶也 人或農不勸 而務斂粟 則異矣’

152) 李瀼, 『星湖僿說』 卷8 人事門 〈壅水溉田〉, 卷10 人事門 〈田制〉, 〈薦拔畎畝〉, 〈田溝滲濕〉

나는 그의 의식은 학문이 백성의 직접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바탕은 애민의 정신이다. 그리고 자신이 겪는 농촌의 현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시 속에 표현하였다.

憑凌戲魃麥苗枯	기세를 부리는 한발에 보리 싹이 말라
春晚郊原氣未蘇	봄날 저무는 들판 기운이 소생하지 못하네
兩歲乾仍三歲極	두 해의 가뭄 연이어 세 해째 극심하니
一人愁在萬人吁	한 사람 근심하고 만 사람 한숨 있네
田功少試偷天術	농사일에 조금 하늘 힘 훔치는 방법을 쓰니
井牧能行沃地需	정목에서 능히 땅을 적실 수요를 충족하누나
久矣蒼生望霓費	오래로다 창생이 비 오길 바란 지가
可憐筋力盡涎濡	가련해라 근력으로 자신 살길 다하는구나 ¹⁵³⁾

이 시에서는 보리밭에 물을 대며 농촌 가뭄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며 걱정하고 있다. 수련과 함련에서는 가뭄이 들어 보리 싹은 말라 죽고 봄날 들판은 생명이 소생하지 못한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전한다. 임금의 현실을 알아 근심을 하고 백성은 한숨을 쉬며 걱정한다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안쓰러워한다. 그리고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써서 겨우 땅을 적시고 있다며 모든 이들이 비가 오기를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전한다. 백성들이 온몸 다 바쳐 일해서 겨우 근근이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오랜 시간 백성과 함께 생활하며 이를 바라보는 지식인 이익의 마음은 미련의 可憐으로 표현되고 있어 그의 애민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익은 비 오기를 기대하며 백성의 고단한 삶에 대하여 시로 표현하고 있어 그가 일상에서 백성의 생활과 농촌의 상황을 항상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서리가 내려 콩을 죽인 일에 대한 시이다.

153) 李瀼, 『星湖全集』 卷1, 065c면, 〈澆麥〉

魯定元年秋
聖筆書殺菽
菽居五穀一
災比無禾麥
今歲苦旱餘
晏種猶未熟
嚴霜忽滿地
四野無青色
無菽既不可
殺稻又反酷
民飢固不恤
何以供軍國
官府有勘結
謂凶爲豐碩
賦斂豈容欠
逋糴宜敦責
邛邛但袖手
男婦遞相哭
持鎌刈枯苗
百口無一斛
方秋穫未訖
丐者來相續
傳聞百里外
地赤尤堪惻
吾鄉已無前
彼土將奚食
智者思移粟

노나라의 정공 원년 가을에
공자께서 콩을 죽였다 썼네
콩은 오곡 중 하나이니
벼 보리의 흉년과 똑같은 재앙
올해도 지독한 가뭄 끝에서
늦게 심어 채 익지 아니했는데
된서리가 갑자기 땅에 내려서
온들판 푸른빛 하나도 없네
콩 없어도 이미 안 될 일인데
벼까지 죽였으니 혹독하구나
백성들 굶주림을 아니 돌보면
어떻게 나라 수요 마련할 건가
관부에선 마감할 결수가 있어
흉년 두고 풍년이라 말을 한다네
세금 어찌 부족함 용납을 하랴
지체된 환곡 독촉 빚발치누나
마을마다 백성들 손을 놓고서
남녀 모두 번갈아 통곡만 할 뿐
낮 들고 마른 이삭 베어 보지만
백 명 입에 한 섬도 거둘 게 없네
추수철 수확 채 안 끝났는데
빌어먹는 사람들 이어지누나
전하여 듣건대 백 리 밖에는
흉년이 극심해 더 비참하다네
이곳도 전에 없는 기근이지만
그 땅에는 앞으로 무얼 먹을까
지자는 곡식 옮길 생각하지만

.....

이익은 농사에 있어서 콩을 오곡 중 하나로 보고 중요시 하였다. 이 시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흉년에 서리까지 내려 콩과 벼농사까지 망친 참혹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며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관리를 비판하고 백성들의 통곡을 전하고 있다. 1~4구에서 공자의 기록을 전하며 과거에 있던 흉년의 재앙으로 콩이 죽은 일과 오곡 중의 하나인 콩의 중요성을 말한다. 10구까지는 현실의 상황을 보여주듯이 전하는데 가뭄 끝에 콩을 심었는데 서리로 인하여 벼와 콩이 모두 죽어 흑독하다고 하였다. 16구까지는 관부의 상황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흉년을 풍년이라 하며 환곡을 독촉하며 백성의 굶주림을 돌보지 않는 것을 비판한다. 이어서 28구까지 백성의 기근으로 인한 고통과 백 리 밖 지역까지 기근이 심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도적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나라에서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 가뭄으로 인한 흉년에 서리로 인해 콩 농사까지 망친 것을 보고 백성의 고통을 느끼며 선비로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시로써 보여주며 고발하고 위로하고 있다. 엄격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고시의 형식을 사용하여 백성들의 참혹한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볼 수 있다.

농촌의 일상에서 날씨는 한해의 농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소재로 이익은 날씨와 관련된 시를 읊고 있으며 여기에서 그의 애민의식을 볼 수 있다.

다음은 〈雨 二首〉 중 1수이다.

154) 李瀼, 『星湖全集』 卷4, 120b면, 〈隕霜殺菽〉

驟雨蕭蕭屋角鳴	소나기가 후두둑 처마 끝에 울리기에
披襟又得好風輕	옷깃 풀어헤치니 산들바람 불어온다
向來望望枯苗歎	지금껏 하늘 보고 가뭄 탄식했는데
換取西疇叱犢聲	논밭에 소를 모는 소리로 바뀌었다네 ¹⁵⁵⁾

이 시에서는 비를 소재로 하여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소나기 소리에 반가움을 드러내고 있다. 처마 끝에 울리는 소나기 소리를 蕭蕭로 청각적 심상을 통해 표현하며 옷깃에 스치는 비 올 바람의 느낌을 촉감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다양한 심상을 통한 감각적 표현은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하며 가뭄 끝에 내리는 비에 대한 반가움을 배가시킨다. 가뭄에 대한 긴 탄식은 단비로 인하여 논밭의 소를 모는 일상으로 치환되며 모두에게 기쁨을 전해 준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날씨 특히 가뭄을 걱정하고 탄식하며 단비를 기뻐하는 그의 의식에서 평소 이익의 농사를 중요시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애민정신을 알 수 있다.

久矣西郊施未行	오래로다 서교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지
俄看雷雨動還盈	이윽고 보니 우레에 비가 금세 가득 내렸다
隰秧原菽相先後	논의 벼와 밭의 콩이 앞다퉈 기운 차리고
女耨男耕總課程	여자는 김매고 남자는 쟁기질 모두 일하네
郵暇暫須田父祝	우철에선 잠시 농부가 감사 축원하리니
陂渠那復獠奴爭	도랑에서 어찌 다시 물 때문에 하인 다툼 있겠는가
太空無語惟仁覆	하늘은 말없이 오직 인으로 덮어주나니
佇待南訛百種成	여름 농사에 백곡이 잘 되기를 기다리네 ¹⁵⁶⁾

이 시는 <농가의 반가운 비 8수> 중 2수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155) 李漢, 『星湖全集』 卷4, 124b면, <雨 二首> 중 1수

156) 李漢, 『星湖全集』 卷1, 054c면, <田家喜雨 八首> 중 2수

단비가 내리는 것을 기뻐하는 시이다. 수련에서는 비가 오지 않았다가 비가 오는 모습을 묘사한다. 하늘의 우레 소리와 가득 내리는 비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이 된다. 함련과 경련에서는 그 비로 인하여 농부들의 분주한 모습과 논의 벼와 밭의 콩이 다시 자라 남녀 모두 농사일을 하고 있는 신나는 모습이 드러난다. 막사에서는 농부가 감사의 축원을 드려서 백곡이 잘 자라기를 기원하고 있다면서 백성을 생각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다음은 〈閒居雜詠 二十首〉이다.

細細林霏任濕蓑	보슬보슬 내리는 비에 도롱이 젖게 놓아두고
郊田消息問何如	교외의 농사 형편이 어떠한지를 묻노라
近時新得金剛杖	근래에 새로이 금강장을 얻었나니
拄傍青畦看養禾	푸른 밭두둑에 짚고 서서 벼 기르는 것 보리라

비 내리는 날 교외의 농사 형편이 어떤지를 살피기 위해 지팡이를 짚고 직접 나가 농사에 관해 주위에 묻고 돌보는 모습을 통해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농사에 대하여 그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구와 결구에서 새 지팡이를 짚고 푸른 밭두둑에서 벼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그는 이것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을 알기에 잘 자라 한해의 농사가 풍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익은 농촌에 살면서 농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며 농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농촌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 그가 선비로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백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그를 重農의 사상과 實學의 길로 이끌게 된다.

평소 백성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은 〈賦雪〉에서도 드러난다.

仲冬天氣嚴	동짓달에 들어서자 날씨 매섭고
雪積寒風多	눈도 많이 쌓이면서 바람도 차다
寒風多固耳	찬 바람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其奈凍民何	얼어 죽는 백성을 어이할거나
然猶驗豐熟	그래도 눈 많으면 풍년 든다니
無雪亦增嗟	눈 없어도 탄식이 더해진다네
忍住且自慰	꼭 참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佇俟明歲歌	내년의 풍년가를 기다려야지 ¹⁵⁷⁾

.....

이 시에서는 눈을 바라보며 추위에 힘들어하는 백성을 위로하면서도 풍년을 기다리는 마음을 읊고 있다. 눈이 쌓이고 찬 바람이 불어오는 매서운 날씨에 이익은 겨울 날씨가 그러한 것은 당연하지만 얼어 죽는 백성이 있을까 걱정한다. 한편으로는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온다고 하니 눈이 안 오면 역시 백성이 근심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풍년을 기원한다. 이익이 백성의 삶을 위하여 농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걱정하는지가 한 겨울에 쌓인 눈에 대해 쓴 이 시를 통해 드러나 그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의 학문이 공허한 담론이 아닌 현실에 중심을 두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익은 일상의 현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평소 주위의 생활과 관련 있는 것들을 소재로 하여 시로 적었다. 다음은 〈失火〉이다.

157) 李瀾, 『星湖全集』 卷4, 127a면, 〈賦雪〉

回祿爲災若燎原	실화가 재앙이 돼 들판의 불길 같았는데
登時撲滅賴鄉邨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즉시 꺾어라
小懲大戒焉知幸	작은 일로 큰일 경계하니 어찌 다행이 아니라
收拾殘書也自欣	남은 서책 수습하니 또한 다행이구나 ¹⁵⁸⁾

이 시에서는 현실의 사건인 실화를 배경으로 하여 불이 나고 그 불을 끈 과정을 기록하고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 기구에서는 불이 번지는 모습으로 실수로 불이 나 마치 들판에 놓는 불처럼 크게 번지고 있어 이것이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승구에서는 다행히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불을 끄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전구에서는 이번 일을 통한 경계를 적고 있는데 작은 일로 큰일을 경계한다고 하며 실수로 생긴 작은 불을 큰 사상 없이 끄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모두가 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었다며 안도하며 경계로 삼는다. 그리고 결구에서는 자신의 상황으로 돌아와 책이 다 탈것을 걱정했는데 다행히 타고 남은 서책을 수습한 다며 놀란 마음을 다독이고 있다.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가까이에서 실제로 자신이 겪은 ‘화재’를 소재로 사용하여 시로 표현하고 있어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그가 시를 항상 가까이하였음을 알 수 있고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을 시의 소재로 삼고 있어서 주변의 어떤 것이라도 시로 쓸 수 있다는 그의 의식이 보인다.

다음은 안경에 대한 노래인 〈鬢鬚歌〉이다.

野翁衰朽明欲喪	촌 늙은이 노쇠하여 눈이 침침한데
人力能教老變少	인력으로 늙은이를 젊게 바꾸었네
玻瓈雙錢角爲匡	동전 같은 두 유리알 짐승 뿔로 만든 테
持映昏眸發天巧	침침한 눈에 걸쳐 묘한 힘 발휘하네

158) 李瀾, 『星湖全集』 卷1, 063b면, 〈失火〉

羣書滿案炯相對
一一可辨蠅頭小
借問何從得此物
初來遠自歐羅巴
歐羅巴人創新制
金篋括膜還同科
暗室明月豈虛語
寒門燭龍應非過
癡人錯疑眼孔大
少年戲與秋毫爭
吾聞聖人竭目力
繼之規矩傳後名
嗚呼至寶鑿鑿鏡
厥功更大千金輕

책상 가득 쌓인 책 밝게 서로 대하니
파리 머리 같은 작은 글자 하나하나 구분되네
물노니 어디에서 이 물건을 얻었는가
머나먼 구라파에서 처음 들여온 거라네
구라파 사람들이 처음 만든 이 물건
금비로 망막 긁어 수술한 것과 같네
암실에 밝은 달빛 어찌 허언이라
내 집에 축룡 왔대도 과장이 아니라네
어리석은 사람은 눈 커졌나 의심하고
소년들은 작은 것이 보이는지 갖고 다툰다네
내 들으니 성인이 눈의 힘을 다 써서
법도를 전해주어 이름을 남겼는데
아아, 이 안경은 지극한 보배거니
천금보다 그 공이 더 크다 하리라¹⁵⁹⁾

이 시에서 이익은 서양에서 들어온 신문물인 안경을 보고 이에 대하여 고시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읊고 있다. 보통 영물시는 사물의 모양이나 그 내면에 따라서 뜻을 펴게 되는데 物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서 그 물건의 외형이나 내형이 드러나게 하며 그 근본과 변화를 읊는다.¹⁶⁰⁾ 안경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으며 당시 새로운 물건인 안경을 처음 보고 놀라며 섬세하게 관찰하여 표현한 그의 모습에서 호기심과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다.

시의 시작은 안경이 늙은이를 젊게 바꾸어 놓았다고 하며 신기한 물건으로 소개하고 안경의 외형을 설명한다. 안경을 통해 글자가 크게 보이는 것에 놀라워하며 이 물건이 어디서 온 것인지 출처를 궁금해 하고 먼 구라파

159) 李瀛, 『星湖全集』 卷4, 114c면, 〈鑿鑿歌〉

160) 李鍾建, 「詠物詩考」, 『士林語文研究』 Vol.1,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4, 89면.

(유럽)에서 온 것을 소개한다. 안경을 썼을 때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에 대하여 마치 외과적으로 눈을 수술한 것 같다는 놀라움과 감탄을 드러내며 암실에 달빛이 들어오고 촛불을 입에 물고 비취주는 燭龍이 집에 왔다면 안경의 작용에 대하여 신비스러워 한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는데 안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눈이 커졌다 의심하고 소년들은 작은 것이 보이는지 어떠한지에 대해 서로 장난을 친다. 이러한 안경을 처음 접하는 분위기의 생생한 묘사를 통해 이제 막 신문물이 들어오는 조선의 농촌 사람들의 관심을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익살에서 소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익은 옛날 성인이 시력을 다 사용하여 글로 법도를 전해 주어 이름을 남겼다 하며 자신이 안경 덕분에 앞으로 계속해서 글을 보고 쓸 수 있으니 이것이 보배이며 천금보다 더 큰 공이 있다며 칭찬하고 추켜세우고 있다. 시력을 얻게 되어 자신이 학문을 계속하여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느낄 수 있다. 이 시를 통해 이익의 서양 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볼 수 있고 이를 접하는 긍정적인 관점을 알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안경을 소재로 시를 전개하여 소재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의 문학에서 실학적인 접근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익은 자신이 접하는 음식을 종종 시의 소재로 사용하였는데 다음은 생굴을 소재로 한 〈石花〉이다.

無情物發有情花	무정물이 정이 있는 꽃 피웠으니
色苞眞同未綻葩	빛깔과 껍질 진정 피지 않은 꽃잎 같구나
蒼海爲根催長養	푸른 바다 뿌리 되어 잘 자라길 재촉하고
青春無跡尙繁華	푸른 봄은 자취 없이성한 꽃을 피우도다
登槃不必時成實	소반에 올랐으니 제철에 열매 맺을 필요없네
入口偏能助味奢	입에 들어가면 몹시 입맛 돋워주네

細和蕪菁作淹菜
呼來伴酒旺脾家

순무에 잘게 섞어 김치를 만들어서
안주로 술 마시면 더 술맛 돋워주네¹⁶¹⁾

이 시에서는 생활 속의 음식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석화를 꽃으로 비유하여 먹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수련의 첫 구에서 이익은 무정물이 정이 있는 꽃을 피웠다는 모순을 통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석화에 대한 예찬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석화가 피지 않은 꽃과 같으며 자신의 좋아하는 감정을 한껏 드러낸다. 함련에서는 석화가 자라는 과정으로 푸른 바다가 뿌리가 되어 잘 자라게 하고 푸른 봄은 모습 없이 꽃을 피운다며 석화를 진짜 꽃으로 비유하며 설명한다. 푸른 바다와 푸른 봄이 전해주는 색감의 표현과 시원함과 부드러움은 석화를 먹는 과정에 작가의 의식이 반영되어 감정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경련에서 석화는 소반 위에 올라오고 곧 먹게 되는데 석화의 꽃이 이제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을의 열매 맺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재치있게 표현하고 봄철의 입맛을 돋워 준다고 상큼하고 시원한 느낌을 전하였다. 미련의 순무에 잘게 섞어 김치를 만드는 묘사는 마치 눈앞에 요리를 하는 것 같은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술과 함께 안주로 먹으면 소화에도 좋아 비위를 왕성하게 하여 술 맛을 더 돋워준다고 일상의 소재를 사용하여 현실의 생생한 느낌을 함께 어우러지게 잘 전달하여 문학적으로 재치있게 표현하였다. 일반적인 음식인 석화에 대하여 무에서 유를 만들고 무정물이 생물이 된다는 철학적 관점까지 함께 전하며 석화를 찬양하고 있어 이익이 얼마나 석화를 좋아하는지를 느낄 수 있고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는 그의 의식이 보인다.

다음은 음식과 관련된 시로 〈국밥〉이다.

161) 李瀾, 『星湖全集』 卷1, 065b면, 〈石花〉

162) 李瀾, 『星湖全集』 卷2, 082b면, 〈澆饌〉

骨董吾無厭	골동은 내가 싫증내지 않으나
填腸澆饑佳	창자를 채우기는 국밥이 제일일세
下嚥惟己分	목에서 삼키면 바로 소화되니
鼓腹是生涯	배를 두드리는 태평한 생애로세
妄欲輕陶鬲	망녕되이 질그릇과 전어를 가볍게 여겨
聊將當庾鮓	애오라지 청빈하던 유고지와 맞먹자 하네
誰方時混混	누가 시국의 혼란함에 비겼는가
稻菜合清齋	쌀밥과 나물이 맑게 사는 삶에 제격이로세 ¹⁶²⁾

국밥은 서민적인 음식으로 평소 이익이 즐겨 먹는 것을 소재로 하여 시를 지었다. 수련에 나오는 골동(骨董)은 물고기와 육류, 채소 등을 섞은 밥과 국으로 골동반(骨董飯), 골동羹(骨董羹)이라 하며 오늘날의 비빔밥, 육개장과 같다. 조선 중기 문신인 박동량(朴東亮, 1569~1635)의 『寄齋雜記』에는 모든 음식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혼란함을 의미하는 ‘混沌飯’¹⁶³⁾으로 불렀는데 그 의미는 골동(骨董)과 같다. 이익은 골동을 즐겨 먹으며 싫증 내지 않지만 뱃속을 채우기에는 역시 국밥이 제일 이라며 소개한다. 씹을 필요 없이 후루룩 먹으면 바로 뱃속에서 소화가 되고 국물과 함께 먹기 때문에 배부르게 하는 음식인 것이다. 이 때문에 鼓腹擊壤의 고사를 사용하여 태평한 생애임을 말한 것이다.

이익은 검소함을 생활 속에서 늘 실천하였기에 맛있고 좋은 음식은 가볍게 여겨 먹으려 하지 않는다. 남조(南朝) 제(齊)나라 유고지(庾杲之)가 매우 청빈하여 그의 밥상에 늘 부추로 만든 반찬 세 가지 [三韭] 만 있던 것을 어떤 사람이 삼구(三九)와 음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장난삼아 말한 고사를 들어 자신도 그런대로 그러한 청빈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섞어 먹는 음

163) 朴東亮, 『寄齋雜記』卷1, “곧 밥 한 대접에다가 생선과 채소를 섞어 세상에서 말하는 비빔밥과 같이 만들었다. (遂以飯一盆 雜以魚菜 如俗所謂混沌飯)”

식이 의미하는 혼돈이 시국의 혼돈이겠느냐며 자신은 밥과 나물로 맑고 청빈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이 시에서는 당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인 국밥 한 그릇에 태평한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학자로서 청빈하고 검소하게 살고 있는 그의 삶과 다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익은 이렇게 현실에서 접하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시로 표현하였는데 이 외에도 ‘죽’, ‘개떡’, ‘흰 대나무 지팡이’ 164)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익은 농촌의 일상에서 실학적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농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식인으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였다. 날씨를 살피면서 한해의 농사를 생각하고, 가뭄을 걱정하며 단비가 내리는 것을 기뻐한다. 눈이 오면 백성의 고달픈 삶을 근심하면서도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였다. 이렇게 시를 통해 그의 의식에 흐르는 애민의 정신과 현실의 실학적 관심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주위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사건과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시를 짓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소의 섬세한 관찰력과 물건의 의미를 통한 그의 다양한 사고가 보이며 평범하고 작은 소재에서 의미를 찾아 재치 있으면서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그의 시인으로서의 면모와 실학적 정신이 함께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64) 李瀼, 『星湖全集』, 卷6, 156d면, 〈粥 二首〉, 卷4, 120a면, 〈假餅詩〉, 卷6, 123b면, 〈白竹杖〉 참조.

4. 山水景物에 대한 애호

예로부터 많은 문인들이 자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느낀 바를 시로 표현하였다. 조선 후기 유학자인 이익 역시 자연을 소재로 다양한 시를 지었다. 산수 유람을 통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하였고 계절의 변화, 산수 경물 등의 자연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재로 시를 지어 그의 감정을 드러내었다. 이 장에서는 『星湖全集』에 수록된 성호 이익의 시 작품 중에서 자연에 대한 그의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익의 미의식과 관련하여서는 『星湖全集』에 수록된 시를 중심으로 일부 작품을 중심으로 자연을 소재로 한 시와 挽詩, 田家詩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연 친화 의식을 통한 자연미에 중점을 둔 작품과 자연을 주관적이고 관념적으로 해석하여 도덕성, 교훈성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분류하기도 하였고¹⁶⁵⁾ 挽詩에서의 도덕미, 송고미, 비장미와 田家詩에서의 우아미,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긍정, 삶에 대한 애정이라는 도덕적 효용성이란 도덕미로 분류하기도 하였다.¹⁶⁶⁾

본고에서는 『星湖全集』에 수록되어 있는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중에서 그 범위를 우리나라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과 산수·경물에 대한 제화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안에 있는 미의식과 이에 대한 시적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익이 자연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접하며 그것이 작시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 지명이 포함된 자연에 대한 시와 산수 경물 제화시의 미적 표현에 주목하였으며 구체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그가 자연과 산수 경물을 대하며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이를 시작품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식이 반

165) 차충환, 앞의 논문, 54-61면.

166) 윤재환, 앞의 논문, 2011, 14-17면.

영되어 바라보고 있는지 그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자연에 대한 자궁과 제화시에서의 산수 경물의 회화적 표현이라는 두 측면으로 구체적인 분류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였다.

1) 東國勝景에 대한 자궁

조선 후기에는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익이 살았던 17세기 후반은 서양 세력이 동양에 들어오던 시기였으며 이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조선 유학자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북경에 드나드는 사신을 통하여 들어오는 서학서와 서양문물을 접하게 되었고 평소 학문적 호기심이 많았던 이익의 안목은 더욱 넓어졌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생각은 이익의 지리관과 역사관을 자극하였다. 이 시기에는 士大夫 사회에서 산수 유람이 전국에 걸쳐 크게 유행하였는데 15세기부터 꾸준히 등장한 산수 유람 기록이 17세기 중반 이후에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¹⁶⁷⁾ 이러한 가운데 우리 것에 대한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조선풍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퍼지기 전이었다. 이후에는 지식인들에 의해 우리 땅, 우리 역사에 대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여 조선후기 문인의 문화주체의식과 변화된 심미관에 기반한 ‘조선풍’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창작되었으며, 소재에 있어서도 현재적, 조선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¹⁶⁸⁾ 이러한 시기에 이익은 그 변화의 출발선에 있게 된다.

이익은 『星湖僿說』에서 백두산, 금강산, 울릉도, 조선팔도의 물산, 우리

167) 이경순, 「조선후기 遊山記에 나타난 北漢山の 불교」, 『인문과학연구』 Vol.20,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13면.

168) 한윤숙, 「조선풍 한시의 사상적 배경과 성격 연구」, 『동양예술』 Vol.36, 한국동양예술학회, 2017, 337-339면.

나라의 국호, 단군, 발해의 역사 등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며¹⁶⁹⁾ 이를 통해 그의 우리 나라의 지리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우리 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막연한 애국주의적인 감정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방대한 문헌 조사와 면밀한 역사적 고증을 토대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¹⁷⁰⁾

이러한 그의 의식은 비슷한 시기의 謙齋 鄭敷(1676~1759)의 ‘眞景山水畫’로 표현된 우리 것에 대한 의식의 확대와 이어져 있다. 조선 후기 검재는 금강산을 그린 〈金剛全圖〉를 통하여 만물을 품은 경관과 기묘한 바위 봉우리들이 늘어선 천하의 명승지인 우리나라의 실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의 비 온 후 인왕산의 경치를 그린 〈仁王霽色圖〉는 순간을 포착하여 독창적이면서도 대상을 치밀한 필치로 생생하게 살려낸 걸작으로 칭송받는다. 검재의 ‘眞景山水畫’는 우리나라를 그렸다는 사실적 장소성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검재와 이익은 사실적 우리 자연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익의 자주적 의식은 실제적인 것을 중시하는 ‘실학과’, 연암의 ‘조선풍’, 그리고 다산의 ‘조선시 선언’에까지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⁷¹⁾ 따라서 이익은 조선 후기 이러한 의식의 변화와 확대의 시작점에 있는 것이다.

『星湖全集』에 수록되어 있는 자연을 소재로 한 시 작품 중에서 우리 자연,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시들을 살펴보면 북한산, 금강산, 치악산, 관악산, 아차산, 박연, 마포 등 우리나라의 구체적 지명을 詩題로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우리 자연과 지역에 대한 시를 읊었다는 점에서 그의 우리 땅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으며 우리 산수를 읊은 시를 통해 그의

169) 李漢, 『星湖僿說』 卷3, 天地門 〈水根木幹〉, 卷5, 萬物門 〈新羅琴〉, 卷2, 天地門 〈樂浪濊貊〉, 卷26 經史門 〈三聖祠〉 등의 기록이 있다.

170) 김대중 편역, 『성호사설 선집 :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다』, 돌베개, 2010, 68면.

171) 조태성, 「‘조선’ 혹은 ‘조선문학’의 정체성-다산의 〈老人一快事六首效香山體〉 다시 읽기의 의미-」, 『감성연구』 No.1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9, 9-13면.

우리 것에 대한 의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그의 〈七灘亭十六景 并小序〉 중 일부이다.

명망과 덕행이 높은 분이 사시던 곳은 왕왕 산수가 수려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배회하면서 떠나지 못하게 할 정도이다. 아마도 흐르는 물과 우뚝한 산이 빼어난 기운을 온축(蘊蓄)하여 훌륭한 인물들을 키워 냈고, 그분들이 곳곳마다 경승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⁷²⁾

이익은 명망과 덕행이 높은 분들이 살던 곳은 산수가 수려하고 그곳의 빼어난 기운을 통해 훌륭한 인물들이 키워진다고 하며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지는 의미를 그 속에 사는 인물과 연결하고 있다. 자연과 땅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시와 글로써 표현하였고 이를 통해 이익이 우리 자연에 대해 가지는 의식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문화 현령 권사회에게 감사의 뜻을 부쳐 보내는 시이다.

故人昔登太白巔
遺我一枝丁藤杖
故人今宰阿達下
又見雙履中心貺
扶藤躡履出門望
檀君往迹依稀想
神明嶽降終飛昇
至今三聖祠中享

.....

친구가 예전에 태백산에 올랐을 때
나에게 정공등(丁公藤) 지팡이 보내 주었는데
친구가 이번에는 아사달의 아래에서
마음 담아 보내 준 신발 두 짝 받았네
지팡이에 신을 신고 문 나서 바라보니
단군의 지난 자취 아스라이 상상된다
환웅이 산에 내렸다 끝내 올라갔거니
지금까지 삼성사에 제향을 올린다네¹⁷³⁾

172) 李瀼, 『星湖全集』 卷6, 151c면, 〈七灘亭十六景 并小序〉, “其名德棲息之地 往往山佳水麗 令人徘徊不能去 意者流峙蘊秀 養成其人 而步步可以占勝也”

173) 李瀼, 『星湖全集』 卷4, 113d면, 〈寄謝文城使君權士恢〉

이 시에서 이익은 벗인 문화 현령 권사회가 지팡이와 신발을 보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친구의 임지를 따라 태백산과 아사달이라는 지명을 통해 단군의 자취를 생각하며 이익은 환웅의 기록을 시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역사의 기원에 대한 이익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이익이 우리 역사에 대해 가지는 주체성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자연, 우리 땅에 대한 이익의 관심은 『星湖僿說』과 『星湖全集』의 〈遊山記〉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詩作에 있어서도 작품들은 그 배경을 북한산, 금강산, 치악산 등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북한산은 우리 선인들에게 遊山의 대상지로 각광을 받았던 곳이다. 북한산에 대한 기록은 이덕형(李德馨)의 〈中興洞山城形勢〉 보고서, 이정구(李廷龜, 1564~1635)의 〈遊三角山記〉, 이만부(李萬敷)의 〈三角山記〉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익은 정해년(1707년, 숙종 33년) 봄에 서울의 삼각산, 관악산 등을 유람하고 記文을 지었는데 그 내용이 『星湖全集』의 〈遊三角山記〉, 〈遊北漢記〉에 그리고 詩作로는 〈次三角八景韻〉에 남아 있다.

이익 이후 북한산을 유람하고 기록을 남긴 작품으로 宋相琦(1657~1723)의 〈遊北漢記〉, 柳匡天(1732~?)의 〈遊三角山記〉가 있으며, 李重煥(1690~1752), 丁若鏞(1762~1836), 金正喜(1786~1856)은 특히 북한산 산영루의 빼어난 경관에 대하여 시록을 남겼다.¹⁷⁴⁾ 성호 이익의 〈次三角八景韻〉 이후 18세기는 생활 속의 예술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던 시기로 이러한 작품들은 문인 지식인의 지리적 정보에 대한 욕구, 산수유람 예술에

174) 이경순, 「조선후기 遊山記에 나타난 北漢山の 불교」,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 vol.20, 2015, 9-26면.; 이산하, 「조선시대 유산기를 통해 본 삼각산의 경관특성 및 경관체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선희,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삼각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통권 38호, 2009, 132-150면.; 이근호, 「북한산 역사적 가치적립」, 북한산세미나, 한국한중양연구원, 2013. 등 참조.

대한 욕구를 수용하여 시대적 요구에 충실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¹⁷⁵⁾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 많은 시인 묵객 들이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18세기 중엽 李德懋는 북한산을 유람하며 〈山影樓〉라는 시를 남겨 산영루의 옛 풍광을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이익의 〈遊三角山記〉 일부이다.

《국지(國誌)》를 살펴보면 삼각산(三角山)은 일명 부아산(負兒山)이라고 하는데, 부아산은 한성(漢城)의 종산(宗山)이다. 대개 도봉산(道峯山)으로부터 산맥이 뻗어 나와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운봉(白雲峯)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뚝 솟았다. 백운봉의 남쪽에 만경봉(萬景峯)이 있고 동쪽에 인수봉(仁壽峯)이 있는데 모두 높이가 백운봉과 비슷하다. 그중 인수봉은 더욱 깎은 듯이 가파르게 우뚝 솟아서 사람들이 기어오를 수 없고 바라보매 가장 빼어난 절경인데, 실로 오른쪽 두 봉우리와 나란히 우뚝하여 삼각산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다.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노적봉(露積峯)이고 봉우리의 아래가 중흥동(中興洞)인데 중흥사(中興寺)가 거기에 있다. 동쪽에 있는 것이 취봉(鷲峯)이고 남쪽으로 돌아 비스듬히 뻗어 고개를 이룬 것이 석가령(釋迦嶺)이다. 이 고개에서 동쪽 지역을 조계(漕溪)라 하고 조계사(漕溪寺)가 있는데 이 절에는 폭포가 있다. 고개 서쪽 갈래는 나한봉(羅漢峯) 등의 여러 봉우리가 되어서 노적봉의 오른쪽 산기슭과 중흥동 어귀에서 합쳐지니, 이것이 옛 북한성(北漢城)의 터이다. 고개의 바로 남쪽이 보현봉(普賢峯)의 여러 봉우리가 되고 점점 뻗어 가서 인왕산(仁王山)에 들어가는데, 이곳은 만세토록 국조(國朝)의 공고한 기반이니, 지금 감히 다 기록하지 않는다. 보현봉의 서쪽은 문수암(文殊菴)이고 암자의 물이 탕춘대(蕩春臺)를 경유하여 한강에 들어간다.¹⁷⁶⁾

175) 권경록, 「18세기 “三角山”의 문화지형과 공간의 재발견 -柳匡天과 申命顯의 山水遊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7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87-123면.

176) 李漢, 『星湖全集』 卷53, 465c면, 〈遊三角山記〉 “按國誌三角一名負兒 負兒之山 爲漢都宗 蓋自道峯走而南 至白雲峯而始特 白雲之南有萬景 東有仁壽 皆高與白雲齊 而仁壽尤削立巖巖 人不得緣 望之最秀絕 實與右二者並峙而得三角之號者也 西落露積峯 峯之下爲中興洞 中興寺在焉 東爲鷲峯 轉南迤爲嶺 嶺曰釋迦 自嶺以東曰漕溪 漕溪寺在焉 寺有瀑 嶺之西歧爲羅漢諸峯 與露積右麓 結繪於中興洞口 此古北漢

이 기록에는 삼각산의 지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지명과 산맥의 흐름, 봉우리와 지리적 위치까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산맥의 흐름이 결국 우리나라의 굳건한 기반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星湖全集』의 시 중에서 북한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北漢 四首〉, 〈次三角八景韻〉이 있으며 다음은 〈北漢 四首〉 중 1수이다.

老子晨裝輿可知	늙은이 새벽 여장 흥을 알 만한건
西巖寺裏趁良期	서암사 가는 길은 정말 좋은 때라서
三峯直戴媯皇石	삼봉은 하늘 기둥 받침처럼 올곧게 섰고
百朵爭趨聖祖基	온갖 꽃들 궁성 따라 다투어 피었구나
濯足泉清尋有路	물 맑은 탁족천을 길 따라 찾아가고
洗心樓迥坐移時	드높은 세심대에 한참을 앉았다가
諸君正促登高去	여럿이 재촉하여 높은 곳 올라갈 제
把臂相看又一奇	팔을 잡고 서로 보니 한결 같이 기이하다 ¹⁷⁷⁾

북한산 서암사는 고려 후기 문인 민지(1248~1326)가 살았던 곳으로도 알려져 민지사라고도 불렸으며 후에 서암사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조선 숙종 때 승려 광현에 의해 중건되었으며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 중턱에 위치하여 북한산성의 수비를 맡아온 곳이며, 그 규모는 133칸에 이르고 있다. 북한산성에 건립된 11개 사찰 중 하나인 서암사는 위치적 중요성과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19세기 말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城之址也 嶺之直南爲普賢諸峯 駸駸而列仁王山 此國朝萬世鞏基 今不敢盡記 普賢之西爲文殊菴 菴之水由蕩春臺入于漢……”

177) 李瀾, 『星湖全集』 卷3, 101d면, 〈北漢 四首〉 중 1수

이 시에서는 이익이 북한산 서암사로 가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수련에서는 서암사로 가기 위하여 새벽부터 여장을 준비하며 그 설레임을 興, 良期로 드러낸다. 함련에서 삼각산의 세 봉우리가 곧게 서 있는 모습을 태고적 여와씨가 하늘 기둥을 받친 바위와 같다고 표현하며 이에 대우로 좋은 계절 百花가 궁중터를 따라 화려하게 피어있는 모습을 그려 장엄하면서도 화려한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경련의 산을 올라 탁족천과 세심대를 지나며 몸과 마음의 묵은 것을 씻어내는 탈속의 과정을 통해 인간 세상과 다른 淸의 세계로 찾아가는 작자의 여정이 흥이 나서 설레면서 좋은 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 그리고 미련에서 여러 명이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며 느끼는 북한산의 절경은 함께 가는 자신들의 모습까지 그奇異함에 포함하여 표현된 것이기도 하다. 작가가 서암사로 가는 과정이 짜임새 있으면서도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곳곳에 드러나는 삼각산의 절경이 웅장하면서도 청정하게 묘사되고 있다.

다음은 〈北漢 四首〉 중 4수이다.

一度登臨一眼開	한번 올라 볼 때마다 눈이 활짝 열리니
山靈與我默相催	산신령은 말이 없이 오르라 재촉하네
水光上接樓臺迥	강물 빛은 그 위로 먼 누대에 닿아 있고
石氣橫欄日月回	바위 기운 난간 가득 해와 달 번갈아 뜨네
拂袖俄從紅輦出	소매 떨치고 잠시나마 홍진에서 벗어나
扶筇徐踏翠微來	지팡이 짚고 느릿느릿 푸른 산빛 밟았어라
孤僧引到藤蘿外	승려가 인도하여 등라 밖에 다다르니
無限雲嵐照把柸	끝이 없는 구름 이내 술잔에 어리누나 ¹⁷⁸⁾

이 시에서는 북한산 서암사에 다다르는 과정이 드러난다. 수련에서는 북한산의 신령함을 볼 수 있다. 한번 올라 볼 때 마다 눈이 활짝 열리며 마치

178) 李漢, 『星湖全集』 卷3, 101d면, 〈北漢 四首〉 중 4수

산신령이 나와 함께 묵묵히 산에 오르며 서로를 재촉하는 듯하다. 함련에서는 강물 빛은 멀리 이어지며 누대와 닿아 있고 바위의 기운을 가로지르며 해와 달이 돌고 있다.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경관에 오랜 세월을 지나온 바위의 기운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구함을 전하고 있다. 경련에서 이익은 세속을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 신선의 세계로 들어간다. 소매를 떨치고 산에 오르며 속세를 벗어나는 듯하고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올라가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산에 오르는 과정은 인간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 곧 신선세계로 가는 과정이며 북한산은 청정한 신선의 세계인 것이다. 미련에서 작자는 스님이 인도하여 등라 밖 곧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 서암사에 다다른다. 그곳에서는 끝없는 구름이 잔에 비치고 있다며 하늘과 연결된 서암사의 신비한 모습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표현된다. 이 시에서도 북한산의 신령스러움과 탈속의 이미지를 드러내며 山靈, 翠微, 藤蘿 등을 통해 청정함과 신성함을 부각시키고 우리 땅의 아름다움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삼각산에 대한 이익의 다른 시 〈次三角八景韻〉로 삼각산의 절경을 팔경시(八景詩)로 구성하고 있다. 팔경시는 산수시에서 비롯되었으며 산수의 아름다움을 八景으로 표현한다. 특히 한국팔경시는 우리 국토를 대상으로 팔경 이상의 소표제를 갖춘 집경시로 정의할 수 있으며 고려 시대 김극기는 한국 팔경시를 최초로 써서 우리 국토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었다.¹⁷⁹⁾ 그는 〈江陵八景〉에서 관료로서 임무를 띄고 강릉에 가서 흥취를 즐기며 선경 같은 아름다운 경치와 그곳이 한국임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극기는 우리나라 산천에 대한 애정과 역사 전설에 대한 자부심이 두드러진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¹⁸⁰⁾ 이익 역시 우리 자연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익의 〈次三角八景韻〉 역시 한국팔경시로 8가지 소표제는 백운대의 흰

179)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2002, 29-47면.

180) 여운필, 「김극기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1』, 1995, 144면.

구름 [白雲臺白雲], 노적봉의 아침 해 [露積峯朝日], 상운동의 폭포 [祥雲洞瀑流], 서암사의 반석 [西巖寺盤石], 산영루의 갠 달 [山映樓霽月], 용암사의 안개 속에 핀 꽃 [龍巖寺烟花], 국령사의 석문 [國嶺寺石門], 원효암의 낙조 [元曉菴落照] 이다.

북한산은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세 봉우리가 솔밭처럼 나란히 서 있어서 삼각산이라고 불리며 이익은 북한산의 빼어난 경치를 8가지로 꼽아 수려함을 그림처럼 묘사하여 드러내고자 하였다.

山高臨廣土	산이 높아 광야를 굽어보는데
噓氣出無中	허공에선 기운이 뿜어 나오네
膚寸能行雨	퉁게퉁게 구름이 비를 뿌리고서
收回靜籟容	거두고 돌아와 조용히 단장하네 ¹⁸¹⁾

이 시는 〈次三角八景韻〉 중의 1수로 ‘백운대의 흰 구름 [白雲臺白雲]’에 차운하였으며 북한산 백운대의 가장 빼어난 모습인 흰 구름을 묘사하고 있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높은 산이 넓은 땅을 굽어보니 허공에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같다고 하며 높은 백운대에서 큰 시야로 바라보는 압도적인 모습과 웅장함을 표현한다. 전구에서는 그중에 구름이 일어나 비를 내리게 하는 동적인 모습으로 변화를 주었으며 절구에서 구름이 다시 거두어 돌아와서 조용히 단장하는 고요함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백운대의 웅장함과 더불어 구름의 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여 비를 뿌리는 모습과 다시 돌아가는 움직임으로 動과 靜이 교차되며 감각적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되고 있다.

다음은 〈次三角八景韻〉 중 2수이다.

181) 李瀾, 『星湖全集』 卷5, 141c면, 〈次三角八景韻〉, [白雲臺白雲]

夜色收林樾	어스름 밤빛은 숲 속으로 잿아들고
餘霞逗石縫	불그레한 해무리 바위틈 머무는데
銅鈺誰喚出	누가 구리 징을 불러 냈는지
風便動晨鍾	바람결에 새벽 종소리 울려 퍼지네 ¹⁸²⁾

이 시는 북한산 ‘노적봉의 아침 해 [露積峯朝日]’에 차운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출의 과정을 섬세하면서도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다. 밤빛은 숲속에서 사라져가고 불그스름한 아침 노을빛이 바위틈에서 생겨나고 있다. 해가 점점 떠올라 붉은빛이 멈춘 듯 비추는 순간이 섬세하게 묘사되며 작자는 바람이 불면서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면의 순간을 포착한다. 그리고 소식의 전고를 사용하여 누가 구리 징을 불러서 내어 왔냐며 질문하며 태양의 모습을 종소리와 징 소리로 중의적으로 연결시킨다. 시각적인 일출의 장엄한 광경과 절에서 울리는 새벽 종소리의 청각적인 이미지가 서로 조화가 되어 공간을 더욱 장엄하면서 여운을 주며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이 시에서는 우리나라 삼각산 일출에 대한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앞에 삼각산의 위용이 직접 펼쳐지는 것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다음은 〈次三角八景韻〉 중 3수이다.

天紳倚嵌竇	하늘 떠는 암굴 옆에 기대어 있고
鱗甲起潭龍	비늘 갑옷은 못의 용이 솟아오른 듯
濺濺晴飛雨	갠 하늘에 날리는 비처럼 뿌려대더니
拖成一道虹	한 가닥 무지개 끌어다 걸쳤구나 ¹⁸³⁾

이 시는 ‘상운동의 폭포 [祥雲洞瀑流]’에 차운한 것으로 북한산 상운동

182) 李瀼, 『星湖全集』 卷5, 141c면, 〈次三角八景韻〉, [露積峯朝日]

183) 李瀼, 『星湖全集』 卷5, 141c면, 〈次三角八景韻〉, [祥雲洞瀑流]

폭포의 모습을 현장감 있으면서도 상서롭게 보여준다. 이익은 기구에서 폭포와 주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늘의 띠, 곧 폭포는 암굴이 있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고 폭포 주위의 소나무는 비늘 갑옷이 마치 못에서 용이 솟아오른 듯하다. 이어서 濺濺이라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폭포 물이 쏟아져 맑은 하늘에 비처럼 날리는 모습이 산뜻하면서도 청각적인 이미지로 강조한다. 그리고 물이 흩날리며 햇빛에 반사되는 순간 폭포 주위에 한 가닥 무지개가 드러나는 장면을 포착하여 색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天紳, 龍鱗, 虹의 시어를 통해 이익은 삼각산 상운동 폭포의 빼어난 모습을 상서로우면서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다.

다음은 치악산 [雉岳] 이다.

翁今頭白尚幽情	백발노인 뻘어도 정취 아직 남아서
穿盡藤蘿一杖輕	덩굴 헤치며 오르는 지팡이가 가볍다
石氣補天瞻五色	오색 돌로 하늘 받힌 바위 솟아있고
梵聲和月出三清	염불 소리 달과 함께 선계에서 나오누나
會逢眞賞精神王	때마침 이런 절경 만나니 활력 절로 샘솟고
看到參禪意思平	참선하는 모습 보니 심사가 평안하다
無著前蹤重問訊	숨겨진 지난 자취 거듭 물어봤더니
靈龜神馬總留名	신령스런 거북과 말 모두 이름 남겼네 ¹⁸⁴⁾

184) 李漢, 『星湖全集』 卷3, 107a면, 〈雉岳〉, ‘靈龜神馬’는 거북바위에 얽힌 고사와 용마암에 얽힌 전설이다. 치악산 비로봉 아래에 아홉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는데 신라 때 의상대사가 그 용들과 싸워 용들을 모두 물리치고 구룡사를 세웠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절이 퇴락하자 한 노인이 절 입구의 거북바위 때문에 절의 기가 약해진 것이라 하여 혈맥을 끊었으나 이후 절이 더 쇠락해지고 그때 한 도승이 나타나 절이 쇠락한 것은 혈맥을 끊었기 때문이라 하면서 거북바위를 살리는 뜻에서 절 이름을 구룡사로 바꾸었다고 한다. 신령스러운 말은 상원사 용마암에 얽힌 전설로 상원사 동남쪽 제천에 백련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주지가 여자를 좋아하여 용마를 이용해 두절을 오가며 살았다. 사실을 안 본처가 용마를 굶겼고 힘이 없어진 용마등에 탄 스님은 말 잔등에서 떨어지고 말은 바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벼랑으로 떨어져 죽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주지는 소실과 함께 상원사에서 여생을 보내며 불도에 전념했고 지금도 용마의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한다. 한문고전종합DB 주석 참조.

이 시에서는 이익이 치악산을 오르는 과정과 치악산의 절경, 그리고 신령스러운 모습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수련에서는 백발이 되어 정취가 있어 덩굴을 헤치며 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가볍고 상쾌하게 묘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치악산의 신비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대우로 묘사한다. 오색 돌로 하늘을 받친 바위가 솟아있고 그곳에서 들리는 염불소리까지 더해져 달이 뜬 밤은 마치 선계에서 나온 듯 아름답고 신성하다. 전구에서 작자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데 치악산의 뛰어난 절경을 통해 활력이 샘솟고 스님의 모습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절경의 치악산의 신령스러운 거북의 고사와 말의 전설을 결구에 기록한다. 輕, 五色, 三清, 眞, 平, 靈龜神馬 등을 통해 치악산의 신령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선계로서의 신이 함과 감동을 마무리하고 있다.

다음은 황득보 운대의 〈유산〉 시에 차운하다 5수 [次黃得甫 運大 遊山韻 五首] 중 3수이다.

造物搏成詭怪形	조물주가 기괴한 형상을 빚어내었더니
仙遊倏辦壯觀名	신선놀음이라 어느새 장관 명승 찾았구려
干雲玉柱千尋直	구름을 찌르는 옥기둥은 천 길 높이 우뚝하고
殷壑雷車萬輛轟	깊은 계곡 물소리는 만 대 뇌거가 지나는 듯
仰眺蒼崖巢鶴窟	우리르니 푸른 봉우리에 학 둥지 튼 굴이 있고
橫臨玄窟蟄龍泓	옆으로는 검은 웅덩이에 용 숨은 소가 있으리라
聞君腳踏靈源返	그대가 신령한 근원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高興猶堪惹老生	즐거운 흥취가 늙은이를 일으켜 세울 만하구려 ¹⁸⁵⁾

황운대(?~1757)는 본관은 창원 자는 득보(得甫)이며 이익의 문인으로 벼슬을 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서 학문에 몰두하였으며 특히 천문학에 정통하였다. 박연은 개성 북쪽 천마산에 있는沼의 이름으로 이 시는 박연(朴淵)

185) 李瀼, 『星湖全集』 卷5, 145c면, 〈次黃得甫 運大 遊山韻 五首〉

을 두고 읊은 것이다. 전체는 5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1수에서 仙境은 반드시 이름난 고을이라며(吾聞靈境必名州) 신발 두 짝의 힘을 빌려 먼 곳까지 돌아보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흥겹게 노닐었던 젊은 날 遊山의 추억을 회고한다. 그리고 지금은 오랜 병으로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며 운대의 시를 통해 다시 한번 참된 흥취 진취(眞趣)를 얻게 되었다며 그의 시에 화답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시는 5수 중 3수로 이익의 문인인 황운대가 勝景인 박연을 찾아간 것을 생각하며 지었는데 마치 이익 자신이 박연을 찾아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실감 나는 묘사가 돋보인다. 수련에서는 조물주가 괴이한 형상을 빚어냈으니 마치 신선이 되어 장관, 명승지인 이곳을 찾게 되었다며 가는 과정의 기이한 풍경에 감탄한다. 함련과 경련에서는 박연의 모습이 대우를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폭포는 천길 높이로 우뚝하게 구름 높이 서 있고 깊은 계곡의 물소리는 만 대의 전차가 지나가는 듯하다며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리는 폭포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千과 萬의 수사가 만드는 웅장함이 흰 구름의 옥 기둥, 계곡의 물소리와 함께 공간을 채우며 다양한 감각으로 전달한다. 올려보면 푸른 봉우리에 학 둥지가 있고 옆에는 검은 웅덩이에 용이 있을 것이니 신령스러운 박연의 모습을 색감과 함께 전하였으며 그의 놀라움과 흥취는 高興으로 표현되어 나이 든 자신을 일으켜 세울 만큼 즐겁다며 기쁨의 정서를 표현한다. 그는 이 시를 통해 대자연 속에서의 절경인 박연의 모습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면서도 감각적으로 보여주며 박연의 신령한 모습을 함께 전하고 있다.

다음은 이익의 금강산에 대한 기록이다. 금강산은 동해안의 태백산맥 북부의 명산으로 『東國輿地勝覽』에는 금강(金剛)·개골(皆骨)·열반(涅槃)·풍악(楓嶽)·기달(悒怛) 등 다섯 가지 이름을 들고 있다. ‘금강’과 ‘열반’은 불교 용어이며 이 밖의 이름은 금강산이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 풍경이 달라져

색다른 정취를 주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명칭이다. 봄과 여름에는 봉우리에 녹음이 무성하여 봉래(蓬萊)라고 불리운다. 이익은 젊은 시절에 금강산을 여행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기록이 <강세황 광지가 당춘대에서 봄놀이한 시축에 대한 서문>에 남아 있다.

내가 옛적에 동쪽으로 금강산(金剛山)에 가서 비로봉(毗盧峯)과 만폭동(萬瀑洞) 사이를 배회하다가 이어서 북쪽으로 낙민루(樂民樓)에 올라 함흥(咸興)의 거대한 평야를 널리 조망하였는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안(心眼)이 그 덕분에 호방해졌다.¹⁸⁶⁾

당시의 금강산을 기억하고 5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호방한 기운을 가지 있다며 그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조정숙에게 답하는 편지(答趙正叔)>에 보인다.

제가 예전에 총석정(叢石亭)과 사선정(四仙亭)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60년이 되어 가니, 꿈결처럼 아득하기만 합니다. 계온(季溫)은 그곳의 흥취를 담은 시를 지어 멀리 이곳으로 보내어 늙은이의 아득한 그리움을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¹⁸⁷⁾

조수의(趙守誼, 1699~1769)의 자가 정숙이다. 조수의의 아들 조숙이 현령으로 제수된 흠곡현(歙谷縣) 인근에 금강산 총석정(叢石亭)과 사선정(四仙亭)이 있기 때문에 옛 기억을 언급하며 조숙이 그곳의 흥취를 담은 시를 지어 보내주기를 바라며 금강산을 그리워하고 있다.

186) 李瀼, 『星湖全集』 卷52, 458a면, <姜光之 世晃 蕩春臺遊春詩軸序>, “余昔東走楓岳 徘徊於毗盧萬瀑之間 仍北登樂民樓 曠眺咸興鉅野 尙今五十年 心目爲之壯浪”

187) 李瀼, 『星湖全集』 卷17, 352d면, <答趙正叔 乙亥>, “僕嘗一過叢石四仙之間 爾來六甲將回 夢思惟惜 惜矣 季溫能興寄詩成 千里緘封 惹起老子遐想耶”

다음 시는 이익이 〈금강산에 들어가는 사람을 전송하며(送人入金剛)〉 지은 시이다.

念昔登臨五十春	금강산 오른 지 오십 년 세월이 흘렀어도
至今胸海有嶙峋	아직도 가슴속에는 드높은 봉우리가 있네
毗盧屹作擎天柱	비로봉 우뚝 솟아 하늘 받든 기둥이 되니
世亂吾將託此身	세상 어지러워지면 이 몸 장차 의탁하리 ¹⁸⁸⁾

이익은 20세 정도에 금강산을 유람하였는데 이 시에서는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금강산에 들어가는 사람을 전송하고 있다. 자신이 금강산에 올랐던 50년 전의 세월을 추억하고 금강산의 모습을 회상한다. 가슴속에 드높은 비로봉의 봉우리는 우뚝 솟아서 하늘을 받든 기둥과 같다. 그리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장차 몸을 의탁하리라며 금강산의 변함없고 굳건한 기상을 보여 주고 언제든 가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다음은 〈죽인 원박재후 정언이 금강시를 적어서 보여 주기에 그 운을 따라 짓다(族人元博 載厚 正言錄示金剛詩步其韻 五首)〉로 소표체는 보덕굴 [普德窟], 혈성루 [歛惺樓], 구룡연 [九龍淵], 사선정 [四仙亭], 산을 나섬 [出山] 등 5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1수이다.

崑嶠孤柱入青空	높다란 기둥 하나 창공으로 우뚝 솟아
上帝高居迥自通	상제 계신 높은 곳에 아득히 통하누나
陶鑄應須千佛力	도야(陶冶)에는 응당 천불의 힘이 필요하니
鑿開何啻六丁功	개척할 때에 어찌 육정의 공력뿐이었으랴
鎖攀福地寧無鐵	복된 땅을 매어 뚝에 쇠사슬이 없을쏜가
標出扶桑尙有銅	부상 높이 솟아오른 구리 기둥 남아 있네
窟底還藏金世界	동굴 안에다 금세계를 숨겼으니

188) 李瀼, 『星湖全集』 卷5, 147b면, 〈送人入金剛〉

원박은 이익의 족중손 이재후(1698~1773)의 자로 이동환의 아들이다. 이 시는 보덕굴(普德窟)을 두고 읊은 것이다. 보덕굴은 금강산 만폭동 안에 있는 사찰로 고구려 영류왕 때 스님 보덕이 창건했다.

이 시에서는 금강산 보덕굴의 영험한 모습을 웅장하게 묘사하고 있다. 보덕굴이 있는 산의 모습을 높은 돌기둥이 창공에 우뚝 솟아 있어서 마치 상제가 계신 곳까지 통할 것만 같다. 그리고 이러한 기이하고 영험한 모습은 처음 만들어 졌을 때 千佛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여러 신들의 공뿐만이 아니라 신이한 이곳의 풍경을 말한다.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이곳을 복 있는 땅에 매어 두었으니 쇠사슬로 필요했을 것이며 하늘 높이 솟아오른 구리기둥이 그 흔적일 것이라며 태초의 일을 상상하며 웅장하고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구체적인 보덕굴로 시선이 옮겨지며 동굴 안에 금세계를 숨겨 두었으니 작은 한 줄기 빛이 선궁으로 이어졌다면 신성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금강산의 보덕굴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하여 금강산 봉우리의 신비스러운 모습 그리고 천불과 신들이 함께 공력을 이룬 福地, 金世界, 禪宮의 표현을 통해 귀한 땅, 장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금강산의 신령스러움은 다음 시에서도 드러난다.

.....

蓬萊苟有非佗境
仙客云無亦妄評
元化洞天今似古
可憐人事但留情
君爲生客我前蹤

봉래산이 정말 있으니 다른 세상이 아니요
신선이 없다는 것도 망녕된 말이어라
원화동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거늘
가련해라 사람들은 정을 남길 뿐이로다
초행길 나그네로 나의 자취 따라가서

189) 李瀼, 『星湖全集』 卷5, 130c면, 〈族人元博 載厚 正言錄示金剛詩 步其韻 五首〉

牙頰清風慣盪胸
夢作百尋巖上鶴
身騎九級潭中龍

입으로 맑은 바람 뿜어 가슴 익히 씻어 주니
꿈속에 아득한 암벽 위의 학이 되었다가
깊숙한 연못 속의 용을 올라타는도다¹⁹⁰⁾

.....

이 시에서 이익은 금강산에 대하여 봉래산은 정말 있는 산이고 신선이 있을 것이라며 그 신령한 모습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꿈속에서 아득한 암벽 위의 학이 되었다가 깊숙한 연못 속의 용을 올라탄다하며 仙的이며 장엄한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아곡 팔경 시에 차운하다(次鵝谷八景韻)〉로 소표제는 아차산의 새벽안개 [峨嵯曙霧], 관악산의 묵은 구름 [冠岳宿雲], 밤섬의 푸른 초원 [栗島靑蕪], 마포로 돌아오는 돛단배 [麻浦歸帆], 약봉의 붉은 노을 [藥峯殘照], 부령의 밝은 달 [鮒嶺霽月], 도곡의 안개 낀 숲 [桃谷霧樹], 목멱산의 저녁 봉화 [木覓夕烽]로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 8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아차산의 새벽안개’이다.

空際玄岑露數層
時看山氣忽平凝
葱籠一帶生紅暈
知道祥雲瑞日昇

하늘가에 작은 산봉 몇 겹이 보이는데
때로 문득 나직하게 운무가 엉기누나
거기에 한 줄기 붉은빛이 생겨나니
상운 속에 아침 해 솟는 것을 알겠네¹⁹¹⁾

이 시는 아곡 팔경에 차운한 작품 중 첫 번째 시로 ‘아차산의 새벽안개 [峨嵯曙霧]’를 읊은 것이다. 아차산은 지금의 서울과 구리시에 걸쳐 있으며 한강과 어우러진 수려한 풍경을 자랑한다. 하늘가에 작은 산봉우리가 몇 겹이 보이며 평평한 운무가 엉기고 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운무를 바라보

190) 李瀼, 『星湖全集』 卷5, 132a면, 〈題元博金剛詩後 二首 并後敘〉

191) 李瀼, 『星湖全集』 卷3, 105c면, 〈次鵝谷八景韻〉, [峨嵯曙霧]

던 중에 한 줄기 붉은빛이 생기며 상서로운 구름 속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순간의 장면을 포착하여 신이하면서도 상서로운 기운을 전하고 있다.

다음 시는 〈次鵝谷八景韻〉 중 세 번째 시로 밤섬의 푸른 초원 [栗島靑燕] 을 읊은 것이다.

澹澹長湖一林橫	담담하게 흘러가는 한 줄기 긴 강물
水光渾似草光平	그 물빛이 온통 풀빛처럼 푸르르다
欲知孤嶼春風意	외딴 섬 봄바람의 마음 알려 한다면
看取鷗邊夕照明	백구 옆 붉게 타는 저녁놀 바라보라 ¹⁹²⁾

이 시에서는 운치 있는 밤섬의 모습이 드러난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밤섬과 강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담담하게 한 줄기 긴 강물이 흘러가고 있으며 주위의 물빛은 모두 풀빛처럼 푸르다. 눈에 펼쳐지는 경관의 색감과 구도가 매치 되며 감각적으로 들어온다. 전구에서 작가 의식의 자각이 드러나는데 외딴 섬 봄바람을 맞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다시 시간의 흐름을 느낀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다시 밤섬의 기러기와 붉게 타는 저녁노을 속에서 환기된다. 밤섬에 대한 시각적 묘사가 매우 뛰어나며 다양한 감각이 동원되어 상서로운 기운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다.

다음 시는 〈次最閑園八景韻〉 으로 마포의 안개 낀 백사장 [麻浦煙沙], 행촌의 안개 낀 나무 [杏邨霧樹], 동령의 과녁 [東嶺射帳], 서계의 깎이는 풍경 [西溪浣紗], 안현의 저녁 봉화 [鞍峴夕烽], 관악산의 아침 이내 [冠嶽朝嵐], 취교의 농부가 [鷺郊農謳], 휴암의 나무꾼 노랫소리 [鵠巖樵歌] 등 총 8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수는 다음과 같다.

192) 李瀾, 『星湖全集』 卷3, 105c면, 〈次鵝谷八景韻〉, [栗島靑燕]

193) 李瀾, 『星湖全集』 卷3, 090c면, 〈次最閑園八景韻〉, [麻浦煙沙]

十里晴沙岸	맑게 갠 십리 백사장 언덕
江光迥接天	강물 빛이 저 멀리 하늘과 맞닿았네
漁翁底閒意	고기 잡는 어부의 한가로운 저 마음
衝過一汀煙	물가에 서린 안개 헤치고 지나가네 ¹⁹³⁾

이 시는 마포의 안개 낀 백사장(麻浦煙沙)을 읊은 것으로 백사장의 모습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다. 안개는 맑은 백사장 언덕에서부터 십 리까지 이어져 있으며 하늘과의 경계가 흐릿하여 마치 강물 빛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것과 같다. 실경을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이러한 느릿한 시선의 정적인 움직임의 모습에서 출발하여 전구에서는 고기 잡는 어부에게로 시선이 변화하고 있다. 이익은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에서 그의 한가로운 마음을 느끼게 된다. 분명하게는 알 수 없지만 고기 잡는 어부의 마음을 짐작한 이익의 마음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물가의 한줄기 안개를 헤치고 지나가는 어부의 모습이 정에서 동으로 변화되어 마치 눈에 보이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우리나라 곳곳의 절경을 표현하는 이익의 눈을 따라가며 당시의 절경이 눈에 그려지는 듯하다.

다음은 〈次最閒園八景韻〉의 5수 ‘관악산의 아침 이내 [冠嶽朝嵐]’이다. 『星湖全集』에는 그가 관악산을 유람한 〈遊冠岳山記〉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해 2월 갑자 날에 삼각산에서 방향을 돌려 관악산(冠岳山)에 들어갔다. 관동(冠童) 두서너 명과 함께 동강(東岡)을 넘어서 불성암(佛成菴)에 이르러 노승(老僧)과 이야기하였는데, 산승(山僧)이 말하기를, “관악산은 영주대(靈珠臺)가 실로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산의 승경(勝景)이 이보다 뛰어난 곳이 없습니다. …… 관악사(冠岳寺)와 원각사(圓覺寺) 두 절을 지나서 영주대 아래에 이르러

영주암(靈珠菴) 터에서 쉬고, 마침내 대에 올랐다. 돌을 뚫어서 층계를 만들었는데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바위틈을 따라서 가장자리를 붙잡고 조금씩 올라가 빙 돌아서 대의 꼭대기에 이르니, 삼면은 막힘없이 전부 바라보이고 서쪽에는 깎아지른 벽이 서 있었다. 벽에는 불상(佛像)이 새겨져 있고 다시 돌로 처마를 만들어 불상을 덮었다. 바위에 의지하여 단(壇)을 쌓았는데 돌을 쌓고 흙을 채워서 50여 명은 앉을 만하였으며, 바위 머리에 또 구멍을 파 등불 밝힐 곳을 만들어서 성중(城中)에 통지할 수 있었다. ……194)

이 기록에서는 이익이 실제 관악산을 올라가는 과정이 상세히 드러나 있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관악산의 형세과 구체적 지형,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통해 관악산 곳곳의 勝景의 빼어남을 기록한다.

우리 자연에 대한 시를 통한 관악산의 모습은 더 감성적이며 깊이 있게 다가오게 한다. 다음은 ‘관악산의 아침 이내 [冠嶽朝嵐]’로 관악산의 웅장하고 빼어난 모습을 시로 읊고 있는 작품이다.

嶽勢撐天立	산악의 형세가 하늘 높이 솟아서는
峩峩上挂冠	그 위에 우람하게 갓을 쓰고 있는 듯
半腰藏積氣	허리에 푸른 기운 서려있는데
濃綠合成團	짙은 녹음과 한 덩이를 이루었네 ¹⁹⁵⁾

이익은 이 시에서 산을 조망하는 넓은 시선으로 관악산의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관악산의 지명과 연결한 산세의 모습이 드러난다. 관악산 연주대의 기암절벽이 하늘 높이 솟아 있고 산의 형상이

194) 李漢, 『星湖全集』 卷53, 466a면, 〈遊冠岳山記〉 “是歲仲春甲子 自三角轉入冠岳 與冠童數人 逾東岡 至佛成菴 與老僧話 山僧曰山有靈珠臺 實最上峯也 勝無高於此 … 過冠岳圓覺二寺 至靈珠臺下 憇靈珠菴 址 遂登臺 鑿石爲梯 遵隙而容人 扳緣漸上 回轉而抵于臺頂 三面通望 西立削壁 壁刻佛像 復爲石簷以庇之 靠巖築壇 累石填土 可坐半百人 巖頭又穹窠爲明燭所 可通照於城中 … ”

195) 李漢, 『星湖全集』 卷3, 090c면, 〈次最閒園八景韻〉

마치 그 위에 우람하게 관을 쓰고 있는 것 같아 冠岳이라는 이름의 유래하게 된 것으로 시 속에서 공간적인 양감이 느껴진다. 전구에서는 시선이 내려가고 있으며 산허리에 초목의 푸른 기운이 은은히 서려 있는 것을 보다가 절벽에서는 전체적인 시선으로 다시 조망하게 된다. 관악산 위에서의 기암절벽이 산허리의 녹음과 어우러져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었다며 전체적인 하나의 웅장한 기운을 전한다. 관악산이 눈 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생생한 실경이 그의 시를 통해 웅장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익의 시에서는 우리나라 實景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그려내고 있으며 우리의 산수는 신령스럽고 웅장한 모습으로 생생하게 드러난다. 우리 자연에 대한 그의 이러한 관심과 애정은 우리 땅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시를 통해 이익의 자주 의식의 일면이 드러나게 된다. 중국이 아닌 우리 山水 絶景의 사실적 모습과 웅장함을 담아 내어 우리 땅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익의 자연을 주제로 한 시에는 우리의 산수와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다. 는 점에서 기존에 유지하던 면모에서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의 주체적인 자주성의 흔적이 보인다. 중국이 아닌 조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였으며,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 조선의 것을 찾아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익의 자주적 의식을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시에서는 신령하면서도 웅장한 우리의 땅에서 비롯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으며, 감각적이며 감성적인 시적 특성과 조선 땅에 대한 그의 애정이 한껏 부각되고 있다. 이익은 시를 통해서 사실적인 생생한 묘사와 함께 자신의 감성을 감각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2) 詩畫一如의 추구

자연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많은 시인 묵객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으며 표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자연물을 대표하는 것은 山水이며 중국 북송과 남송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이후부터 그 자체의 美로서 감상과 표현의 대상이 되어왔다.¹⁹⁶⁾ 고려말 성리학이 수용된 이후에 산수 경물을 관찰하여 거기에 내재 되어있는 이치[理]를 궁구하는 것이 자연의 올바른 인식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정치,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연관이 변화하게 된다. 산수 유람이 유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17세기에 사신 왕래 과정이나 심양 인질 생활 중에 다량의 중국회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문인들은 이를 대상으로 한 제화시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논하게 되었다.¹⁹⁷⁾ 이익의 부친인 李夏鎭은 사신의 일행으로 중국에서 다녀오며 다양한 도서를 가져와 성호장에는 상당한 양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었다. 학문적 호기심이 많았던 이익은 이러한 자료를 유년시절부터 접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그의 학문적 깊이와 美的 안목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星湖全集』의 자연을 소재로 한 시 중에서 八景詩와 題畫詩를 중심으로 시에서 나타나는 이익의 美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 정취와 감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산수 경물을 접하고 많은 문인들은 아름다움을 시로 읊고 예술작품으로 표현하였다. 山水詩는 산수의 아름다움을 읊은 시이며, 八景詩는 여덟 경치의 아름다움을 읊은 시로 그 연원이 산수시에서 비롯되어 산수를 완상하는 山水美가 드러나게 된다.¹⁹⁸⁾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山水畫는 자연에 대한

196) 여기현, 「李穡의 題山水圖詩 研究」, 『泮橋語文研究』 No.20, 반교어문학회, 2006. 24-26면.

197) 이남면, 「17세기 中國繪畫의 流入과 그 題畫詩」, 『漢文古典研究』 Vol.27,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70-72면.

198) 안장리, 앞의 책, 15-29면.

표현이며 동시에 인간이 자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자연관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山水畫 등의 예술작품을 통하여 회화적 감동과 예술적 감동, 자연미를 느끼게 된다. 회화 감상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문학적 재능을 자랑하고 산수 경물에 자신의 처지를 우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현실의 괴로움을 위로 받으며 예술작품에서 즐거움과 흥취를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시인은 산수화를 보고 그림의 주된 소재와 화가의 의도를 읽어내 시를 창작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보고 그것에 연상하여 지은 시를 ‘題畫詩’라고 하며 팔경시 역시 승경을 대상으로 하여 제화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山水를 주제로 하는 산수도 제화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실경을 기반으로 실경산수와 중국에서 모형화 되어 중세 보편경으로 인식되었던 가상경에 대한 그림인 정형 산수로 구분하기도 하는데¹⁹⁹⁾ 그림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지식인들의 문집에서 제화시는 주로 산수화를 대상으로 나타나며 이때 그림과 시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그림의 공감도를 높여준다. 제화시를 통해 그림으로 다 나타내지 못한 畫意와 창작 동기, 작품에 대한 감상 등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²⁰⁰⁾

제화시는 ‘그림과 한시의 상호 결합’이므로 매체로서의 그림이 지니는 한계를 보충하며 그림이 전달하는 시각 정보를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때의 미적 특징은 그림이 강조하고 있는 소재, 구도에 대하여 전달하고 해석하는 데에서 만들어진다. 제화시에서는 정지되어 있는 화면의 구도를 청각 심상을 활용하여 새로운 미적 효과를 창출해 내고 정지된 순간만을 묘사하는 회화와 달리 서사 요소를 도입하여 회화 감상의 가능성을 넓히게 한다. 이러한 제화시의 미적 특징²⁰¹⁾은 한시의 예술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 박혜영, 「서거정의 산수도 제화시 연구」, 『배달말』 Vol.64, 배달말학회, 2019, 61-66면.

200) 전호균, 「한국화 화제시에 대한 연구」, 군산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7-8면.

201) 구분현, 「題畫詩의 미학적 특징과 구현 원리」, 『東方漢文學』 No.49, 동방한문학회, 2011, 3-9면.

이익은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유학자로서 살아가며 산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위로 받았다. 그리고 산수 경물을 접하고 이에 대한 정서를 시에 담아 감각적으로 읊어 내었다. 이때 작품 안에서 그가 강조한 문학적 표현 방법인 사실적 묘사와 회화성, 현실의 소재, 자신의 뜻을 새롭게 창출하는 신의의 측면이²⁰²⁾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자연을 소재로 한 팔경시와 제화시에 어떠한 특징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의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인 〈次桃谷八景韻〉은 팔경시로 각 수마다 차운한 원래의 시 제목을 제시하였으며 소표제는 ‘도저의 맑은 봄 [桃渚晴春]’, ‘풍암의 만추 [楓巖晚秋]’, ‘금성의 새벽 종소리 [禁城曉鍾]’, ‘여정의 저녁 연기 [閩井暮煙]’, ‘약현의 낙조 [藥峴落照]’, ‘노호의 먼 돛단배 [露湖遠帆]’, ‘남산의 푸른 이내 [南山翠嵐]’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수는 제목이 빠져 있다. 다음 시는 그 중 7수이다.

晴曠嵐氣霧巘岼	햇살 어린 맑은 남기 산봉우리 덮었으니
晚日鉤簾對疊巒	해 질 무렵 발을 걷고 첩첩 산을 마주 본다
時見山禽來故故	때때로 산새가 날아와 지저귄 때
帶將蒼翠入幽欄	푸른 산 기운이 그윽한 난간에 드누나 ²⁰³⁾

桃谷(朴紳, 조선 현종 때의 문신)의 八景 중 ‘남산의 푸른 남기 [南山翠嵐]’에 차운한 시로 전반에 다양한 심상과 더불어 회화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 먼저 시적 화자의 공간과 시간적 배경이 드러난다. 해질 무렵 햇살이 지는 중에 아지랑이가 산봉우리에 덮혀 가고 있고 작가는 발을 걷고 첩첩이 쌓여 있는 산을 마주 바라보고 있다. 산을 바라보며 깊은 산중 봉우리 안개 속에서 맑은 기운을 느낀다. 그 산속은 한 폭의 동양화처럼 묘사되고

202) 이세현, 앞의 논문, 163-166면.

203) 李瀼, 『星湖全集』 卷2, 072a면, 〈次桃谷八景韻〉, [南山翠嵐]

있다. 전구에서는 이러한 정적인 느낌의 공간을 새의 등장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한다. 새소리의 청각적인 심상과 동적인 움직임으로 작가의 시선을 끌며 이를 통해 시 전체에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결구에서는 푸른 산 기운을 띄고 난간에 드는 새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다. 이 시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여 회화적,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한 공간에서 시야를 이동하며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석양 속에서의 한가함과 여유로움이 잘 드러난다.

다음의 〈次梨谷八詠韻〉으로 소표제는 ‘측도의 썰물 [仄島歸潮]’, ‘먼 바다의 돛단배 [遙海風帆]’, ‘옥구의 낙조 [玉丘斜照]’, ‘수악의 맑은 달 [修岳霽月]’, ‘능포의 고기잡이 [鯪浦打魚]’, ‘봉대의 꽃구경 [鳳臺看花]’, ‘연못에 내려앉는 기러기 [荷塘落鴈]’, ‘초호의 신기루 [草湖嘘蜃]’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8수 중 3수이다.

一點螺青露小丘	한 점 푸른 소라고동인 양 작은 산
風帆水鳥共悠悠	바람 받은 돛과 물새가 함께 유유하여라
無端薄暮西軒望	무단히 저물녘 서헌에서 바라보니
百朵紅雲捧日浮	백 송이 붉은 구름이 해를 떠받치고 있네 ²⁰⁴⁾

이 시에서는 낙조를 배경으로 하여 색감이 풍성하게 사용되며 자연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난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옥구의 평온한 모습이다. 한 점 푸른 소라고동 같은 작은 산 아래에 바람을 받은 돛을 단 배와 물새들이 함께 유유히 있는 모습은 모든 것들이 평화로운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킨다. 전구에는 시적 화자가 해가 저무는 모습을 서헌에서 바라보고 있다. 해가 저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석양이 비춘 구름의 모습은 백송이 꽃처럼 아름답

204) 李瀼, 『星湖全集』 卷2, 076a면, 〈次梨谷八詠韻〉, [玉丘斜照]

답고 그 위로 해가 지고 있어 마치 구름이 해를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 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시가 마무리 된다. 이 시에서는 석양을 통해 색감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고요함 속의 작은 움직임, 석양 녘의 순간의 포
 착과 시야의 확대가 절묘하게 이루어져 시를 보는 이로 하여금 석양의 운치
 와 자연의 웅장함을 함께 느끼게 한다. 이 시에서는 이익이 석양을 통해 자
 연의 웅장함 속에서 느끼고 이를 다시 시로써 감각적으로 묘사하며 작은 인
 간이 바라보는 유유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느낄 수 있다.

다음 시는 이성이 산수를 그리다 〈李成畫山水〉이다.

蒼壁中開一道流	푸르른 석벽 속에 물길이 열려 있어
楓林稍稍出孤舟	단풍 숲에 슬슬 배 한 척이 나오누나
山前山後渾相似	산 앞과 산 뒤 풍경 다를 게 없는데
猶自忙心撥棹遊	되레 질로 마음 바빠 노 저어 가노매라 ²⁰⁵⁾

李成(919~967)은 북송시대의 산수화가로 광희와 함께 李郭派의 산수화풍
 을 만들었다. 그의 작품을 보고 제화한 것으로 생각되며 가을 산수의 모습
 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푸른
 석벽 사이에서 물길이 열리며 단풍 숲에서 천천히 배 한 척이 나오고 있다.
 푸른 석벽과 물길, 그리고 단풍의 색감이 서로 대비되며 시의 회화성을 더
 욱 높이고 있다. 여기에 배가 나오는 움직임이 더해져 실경과 같은 현장감
 을 주고 있다. 그리고 상황 속에 등장하는 어부는 온 산이 아름다운 가을
 단풍 속에서 어딘가로 바쁘게 노를 저어 가고 있다. 이 시에서는 이성의 산
 수를 실경처럼 푹진하게 묘사하면서 가을날의 여유로움과 한적한 흥취를 느
 끼는 작가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다음은 원장이 운산을 그리다 〈元章畫雲山〉이다.

205) 李灑, 『星湖全集』 卷4, 122a면, 〈李成畫山水〉

山氣兼將雨意蒸
煙霏雨霧忽蒼騰
若非時露螺鬢出
寧識遮藏碧玉層

산중의 운무에 우기(雨氣)까지 더해져서
멀리 안개 자욱하고 비 아련히 덮였다
가끔씩 산봉우리 아니 드러났더라면
푸른 옥절벽이 숨겨진 줄 몰랐으리²⁰⁶⁾

원장(元章, 1051~1107)은 북송 때 문장과 서화에 뛰어났던 미불의 자이며 그는 채양, 소식, 황정견과 더불어 송나라 四大家로 불리운다. 이시는 원장이 운산을 그린 그림에 대하여 제화하였다. 구름 낀 산 중의 우기 있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시로써 표현하여 그리고 있다. 산중의 운무에 우기가 더해져 멀리 안개는 자욱하고 비가 아련히 덮여있다. 전체적으로 물기 있는 표현의 그림이 시속에 잘 묘사되어 있다. 시속에서 동양화 한 폭이 그대로 전해지며 그러한 신비스러운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속세와는 떨어져 있는 곳일 것이다. 전구에서는 시야가 밝게 띄여 있지 않는 경치 사이로 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시간의 흐름과 운무의 이동에 따라 가끔 산봉우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에서 드러난 산봉우리 사이의 푸른 옥벽의 신비한 모습은 시 전체에 신비스러움 속에 귀한 仙境을 보여준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운무와 우기 사이에 드러나는 푸른 옥절벽은 감탄을 자아내게 하며 색감의 선명성으로 인하여 시야를 트이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익은 畫龍點睛과 같은 산중의 운무 속의 옥절벽을 시의 형식을 통해 강렬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구름 낀 산의 모습이 한폭의 동양화로 잘 묘사되어 있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다음은 〈題長江萬里圖 三絕〉 중 1수이다.

206) 李漢, 『星湖全集』 卷4, 122b면, 〈元章畫雲山〉

207) 李漢, 『星湖全集』 卷4, 121c면, 〈題長江萬里圖 三絕〉

長江一萬里	장강이라 만리 길 지나긴 강물
日夜注東洋	밤낮없이 동쪽 바다 향해 흐르네
我欲孤舟去	나 한번 일엽편주 배를 타고서
窮源見濫觴	근원 찾아 올라가 남상 봤으면 ²⁰⁷⁾

〈長江萬里圖〉는 산수화의 한 화제로 〈長江圖〉라고도 한다. 장강은 중국 양자강을 가리키며 중국 서남쪽 청해성 서남쪽 경계에서 발원하여 12개의 성과 지역을 가로질러 강소성 동쪽을 지나 황해로 흘러들어간다. 예로부터 풍광이 좋아 화폭에 담은 그림이 많았으며 이를 이익은 제화시로 표현하였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장강의 모습을 묘사한다. 장강은 만리 길로 길게 이어져 있고 밤낮으로 동쪽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다. 긴 공간적 배경과 오랜 시간적 배경이 시를 통해 그려지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과 강물의 동적인 흐름을 만들어 시에 사실적 회화성을 느끼게 한다. 전구와 결구에서는 작가의 바람을 드러내며 장강에 자신이 일엽편주 배를 타고 물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남상을 보고 싶어한다. 그리고 장강 같은 길고 큰 강도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술잔을 띄울 정도의 작은 물일 것이라는 濫觴의 고사를 가져와 물의 근원, 곧 학문적 근원을 찾고자 하는 학자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시에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며 先景後情의 구성을 통해 사실적인 묘사로 시공간이 만들어지고 학문적 근원에 대한 동경을 말하고 있다.

다음은 이익의 梅花에 대한 시이다. 예로부터 많은 문인 화가들이 梅蘭菊竹의 四君子를 좋아하였으며 특히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른 봄에 피어나는 군자의 꽃으로 알려져 있다. 퇴계의 매화 사랑은 유난하였고 이익 역시 매화를 매우 사랑하였다. 이익이 꽃을 소재로 하여 읊은 것은 모란, 홍작약과 백작약, 국화 등²⁰⁸⁾이 있으나 차가운 눈을 뚫고 첫봄을 맞이하는 때

208) 李漢, 『星湖全集』 卷2, 〈牧丹〉, 卷5 〈牧丹 三首〉, 卷5 〈紅白芍藥 二首〉, 卷4 〈種菊 二首〉, 卷5 〈菊〉 참조.

화에 대하여 이익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星湖全集』에는 매화와 관련하여 〈詠梅〉, 〈梅花 四首〉, 〈四友帖〉²⁰⁹⁾ 등의 작품을 통해 매화가 가지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애정을 드러내었다.

이 작품은 부채의 매화 그림에 대한 제화시이다.

露浥梅花曉	매화에 이슬이 함초롬히 젖은 새벽
幽禽睡未驚	그윽한 새는 잠에서 깨지 않았어라
莫教人打起	사람이 새를 깨우지 않게 하라
衝落半開英	날다 부딪쳐 반쯤 핀 꽃잎 떨어뜨릴라 ²¹⁰⁾

이 시는 매우 감각적으로 다가오며 매화에 새가 있을까라는 상상을 자극하는 작품이다. 그림에서는 순간을 포착하지만 이익은 시를 통해 시간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매화에 이슬이 맺힌 새벽에 새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고 주위에 새를 깨우지 않도록 주의 시킨다. 그리고 새가 일어나 날아가다가 매화에 부딪히면 반쯤 핀 꽃잎이 떨어질까 걱정하며 부채 그림에서 묘사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시로써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상상의 공간을 두어 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시의 공간에 참여하여 그림을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전하고 있다. 평소 군자의 꽃으로 매화를 사랑하는 이익의 애정이 잘 드러나는 시이다.

다음은 묵매 6수 [墨梅 六首] 중 4수이다.

蓓蕾春陽五出奇	꽃망울이 봄볕에 피어나 다섯 꽃잎 기이하고
天催香雨潤花時	하늘이 향기 비를 재촉하여 꽃잎 적셔 줄 제
硯池輕借乖龍便	연지에다 살짝이 괴룡의 힘을 빌려서는
灑遍南枝與北枝	남쪽 가지와 북쪽 가지를 두루 뿌려 그렸도다 ²¹¹⁾

209) 李漢, 『星湖全集』 卷1, 〈詠梅〉, 〈梅花 四首〉, 卷6 〈四友帖 四首〉 참조.

210) 李漢, 『星湖全集』 卷2, 086b면, 〈題便面畫梅〉

이 시는 묵매를 보고 제화한 6수 중 4수로 묵매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 있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묵매에 대한 묘사이다. 꽃망울이 봄별에 피어나 다섯 꽃잎은 기이하게 아름답다. 하늘에서 향기로운 비를 재촉하여 꽃잎이 반짝이는 그러한 때 매화의 모습인 것이다. 봄별의 따사로움과 향기로운 비를 통한 공감각적인 심상이 촉촉한 물기를 머금은 다섯 꽃잎의 매화를 더욱 기이하게 만들고 있다. 기구와 승구가 매화에 대한 묘사였다면 전구와 결구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대한 표현이다. 전구에서 작자는 붓에 먹을 찍어 살짝 괴룡의 힘을 빌렸다면 힘찬 매화 가지의 신비스럼움을 한층 부각시킨다. 그리고 결구에서는 매화 가지를 치는 화가의 모습을 묘사하며 남쪽가지와 북쪽가지를 두루 먹물을 뿌려 그린 것이라하며 제화를 마무리 한다. 실경의 묘사에서 출발하여 현실의 매화를 치는 구성을 통하여 힘찬 매화가지와 싱싱하고 아름다운 매화꽃 잎으로 표현된 墨梅를 더욱 입체감 있고 운치 있게 전하고 있다.

다음은 그림 부채에 화제한 시이다.

消息三清遠	삼청이라 멀어서 소식조차 먼데
松根憩寂然	솔뿌리에 앉아 고요히 쉴 것이니
一聲雲鶴唳	운학 울음소리 한 번 들리는 듯
飛下藥珠天	예주궁 하늘에서 날아내리네 ²¹²⁾

이 시에서 이익은 신선의 세계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부채 그림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도교(道敎)에서 말하는 삼청(三清)은 선경(仙境)을 말하는데 그림 속의 학 한 마리가 소나무 뿌리에 앉아서 쉬고 있다고 표현한다. 三清과 松根, 寂然의 고요한 정취가 그림의 분위기를 신선이 사는 곳으로 신성하고

211) 李瀼, 『星湖全集』 卷5, 142b, 〈墨梅 六首〉

212) 李瀼, 『星湖全集』 卷6, 157b, 〈題畫扇〉

청정하게 만들고 있다. 전구에서는 구름 속 학의 一聲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며 이러한 청각적인 심상은 시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결구의 雲鶴이 신선이 살고 있는 예주궁 하늘에서 날아 내려온다며 하며 신선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고 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전한다. 소나무와 운학으로 표현하는 색감은 시의 회화성을 높이고 있어서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고 다양한 감각과 신선적 요소를 배치하여 시를 구성해 운치를 더하고 있다.

이익은 평생 동안 관직에 나가지 않으며 자연을 벗하며 학자로서의 삶을 추구하였다. 그의 자연을 소재로 하는 팔경시와 산수 경물 제화시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그가 자연 그 자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포착하고 사실적이며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한 폭의 동양화로 그려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의 시에 드러나는 다양한 감각적 표현은 시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익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시적 정서는 감각적 구성을 통해서 사실적이며 생동감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의 詩作에서 보이는 회화적 감각과 감각적 감성 표현은 예술적 정취와 함께 잘 드러나고 있어서 이를 통해 그의 뛰어난 시적 능력을 볼 수 있다.

V. 文學史的 意義

지금까지 이익의 시세계를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성호 이익의 시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주자학적 명분론 아래 사장과 사림의 대립, 당쟁으로 인한 갈등과 권위주의는 결국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위기를 겪게 되었으며 이를 거치면서 전기의 지배 질서에 대한 회의와 함께 정통한문학에 대한 반성과 동요가 있었다. 양란 이후의 이러한 일련의 반성과 동요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학문적으로 백성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문학에 있어서도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정통한문학에 대한 실질적 개혁론이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성호 이익이 있으며 그의 실학자로서의 사상적 위치는 후대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고 자명하다.

樊巖 蔡濟恭(1720~1799)은 이익의 〈墓碣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저술한 시문(詩文)은 여러 편서(編書)까지 아울러 도합 수백여 권이다. 요약하면 학문은 문식(文飾)을 제거하고 실제에 힘썼으며, 예를 논한 것은 사치를 버리고 절검을 따랐으며, 경세제민(經世濟民)을 논한 것은 위에서 덜어 아래에 보태는 것이다. 모두 본원을 탐구하고 요점을 제시하였으므로 각기 조리가 있어 들어서 시행할 만한 것들이니, 아 성대하다.²¹³⁾

213) 『星湖全集』附錄 卷1, 〈墓碣銘 并序[蔡濟恭]〉, a200_193a, “所著詩文並撰輯諸書 合爲數百餘卷 要之學問則去文而務實 論禮則棄奢而從儉 經濟則損上而益下 皆探本挈要 各有條理 可舉而措之 嗚呼盛矣”

채제공은 이익의 詩文과 저서의 방대함에 감탄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에 힘쓰고 현실의 실용을 따르며 세상과 백성을 위한 그의 생각이 그의 저작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그 위대함을 찬양하였다.

茶山 丁若鏞(1762~1836) 역시 이익의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15세 때에…… 이가환(李家煥)공이 문학으로 한세상에 명성을 떨쳤고, 자부(姊夫) 이승훈(李承薰)이 또 몸을 단속하고 뜻을 가다듬어 모두 성호(星湖) 이익(李瀾)선생의 학문을 조술(祖述)하였다. 내가 성호의 유저(遺著)를 보고는 흔연히 학문하기로 마음먹었다.²¹⁴⁾

정약용은 그의 〈自撰墓誌銘〉에서 자신의 학문적 교우인 李家煥(1742~1801)과 姊夫人 李承薰(1756~1801)이 이익의 학문을 본받았다고 하였다. 이가환은 이용휴의 아들이자 이익의 종손으로 천주교인 이승훈의 외숙이 되는데 문학, 천문학, 수학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정조가 ‘정학사(貞學士)’라 호칭할 만큼 대학자였다.²¹⁵⁾ 정약용 자신 역시 15세에 이익의 유고를 처음으로 읽고 학문에 뜻을 두고 평생 성호를 사숙하였다고 하였으니²¹⁶⁾ 후대에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후에 정약용은 유배 중이던 1801년에 이익의 《百諺解》를 교정하여 《百諺詩》를 엮고, 다시 조목을 수정·보완하여 210구의 속담을 번역하여 《耳談續纂》을 엮는 등²¹⁷⁾ 문학에 있어서도 이익의 저술을 통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兩亂 이후 조선 후기는 다양한 문학론이 제기되었는데 크게 전기의 주자

214) 『與猶堂全書』 第一集詩文集 卷16, 墓誌銘, 〈自撰墓誌銘 集中本〉 a281_339d “十五而…時李公家煥以文學聲振一世 姊夫李承薰又筋躬勵志 皆祖述星湖李先生 瀾之學 鏞得見其遺書 欣然以學問爲意”

215) 고전번역원 DB 주석 참조.

216) 송재소, 『다산의 한평생-사암선생연보』, 창비, 2014, 15면

217) 『定本 與猶堂全書』 해제, 고전번역원 DB 참조.

주의적 문학에 대한 회의와 반성에 이어 실천 개혁 의지를 드러낸 현실적 개혁론과 정통한문학의 규범을 지키고자 했던 보수적 옹호론으로 구분되었다. 여기서의 현실적 개혁은 실제적 응용, 장식적 문학보다는 개성적인 문예미라는 본질적 문학론, 곧 탈주자주의적 문학론을 의미하는데²¹⁸⁾ 이익의 문학은 이전 세대를 이어주면서도 이러한 현실적 개혁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 후기 이후 남인 계열의 문인들은 전통적인 載道主義 문학관을 가지고 시대의 혼란과 어지러움을 문학을 통해서 바로잡는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인 차원으로의 확대라는 면에서 조선 전기와는 차이가 있다. 현실에서의 불만이 문학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고²¹⁹⁾ 이는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실천적 의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중 근기남인은 ‘經世致用’의 학풍을 특색으로 하며 ‘星湖學派’가 그 중심에 있는데 그 근원을 퇴계 이황으로 하여 한강 정구와 미수 허목을 거쳐 성호 이익에 이르고 다산 정약용에게까지 흐른다고 본다. 퇴계 이황은 고향의 陶山書院에서 독서·수양·저술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며 스스로 학문을 이루었으며, 그 학통은 260여 명의 제자에게 전해져 근기남인과 영남남인의 근저가 되었다. 초기에는 학문적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후에 영남남인은 주자학적 기반을 통해 정통성리학을 발전시켰고, 근기남인은 이익을 중심으로 퇴계의 학문적 영향을 받으며 그의 삶을 본받아 실천해 나가려고 하였다.²²⁰⁾ 그러나 이익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현실지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문적 태도는 문학에도 영향을 주어 진실, 정신을 표현하면서도 사실에 기반하여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다.

218) 이병주 외, 『漢文學史』, 새문사, 364-366면.

219) 윤재환, 앞의 논문, 2012. 486-489면.

220) 윤재환, 앞의 논문, 2011. 282-283면.

따라서 이익의 학문은 심성도야의 수양을 넘어서 미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 학술로 넘어가는 면모가 있으며, 문학관에 있어서도 학자로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문학관 자체에서도 그는 시를 수식적으로 잘 써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담아내고 실상에 적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익이 재야에서 처사로서 세상을 교화하는 것은 저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만 오히려 현실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직접적으로 나서서 누군가를 교화하고 세상을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수양하며 저술하고 교류 관계를 통해 교화하면서 제도를 통한 개혁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익의 시는 선비로서 현재의 일상에서 관계를 맺고 생활 속에서의 자신의 삶을 충실히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의 시에서 표현되는 감성과 自寬의 과정은 선비로서 자신의 마음을 시로 드러내고 시가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과정이며, 이러한 생활 속 한시에서는 미적 추구를 통해 학자로서의 삶과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퇴계 이황 이전 시대의 학자들의 심성도야적 한시와 맥을 같이하면서도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시적 교류를 통해 감정을 충실히 드러내는 시라는 점에서 전대와는 차이가 있다. 이익은 학자로서 선비의식을 가지고 시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재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 가고 있는데 이는 일상의 詩化를 통해 삶을 표현해내는 방식으로 학자면서 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의미 구현의 방식인 것이다.

이익의 문학론은 다양한 관점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유학자로서 載道的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문학이 도를 담아야 하는 것으로 진실,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의 만시는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초야에서 드러나지 않는 진정한 선비(眞

儒)인 그들의 삶과 정신을 시로 드러내 주었고, 유선(儒仙)과 같은 삶을 산 고인의 삶과 정신을 시로 표현하여 자신의 의식의 지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익이 수많은 만시를 통해 고인의 삶과 정신을 시로 충실히 구현하여 드러내 주고 있다는 점은 조선 후기 만시사에 의미를 주고 있다.

이익의 시에서 드러나는 애민 정신은 선비 의식의 반영이며 여기에 관찰을 통한 현실 중심의 의식이 더해져 농촌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이 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곁에서 보여지는 농촌의 일상과 백성의 삶, 고난이 시에서 객관적으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주위에서 접하는 일상의 소재를 사용한 그의 詩作은 선비 의식과 함께 실학적 의식이 작품에 반영되고 있다.

이익은 그가 인식한 현실에 대하여 실생활에서의 객관적 관찰을 통해 모티브를 잡아 세상의 부조리에 비유하여 우화시로 비판하고 풍자한다. 이러한 우화의 과정은 비근한 예를 통해 오히려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는 특징적인 면이 있어 그의 작가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학적 표현에 있어서 우화를 통한 시 영역의 확대는 후대에 시로써 상층민을 비판하는 다산의 우화시²²¹⁾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다양한 詩作 활동에서 그리움의 감성적 표현은 학자로서 감정의 편폭이 크지 않으면서도 담박하고 전아하게 드러나 그의 다양한 시적 감성과 함께 시인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시의 형식면에서는 내용의 실질적인 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엄격한 근체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고시를 추구하였으며, 사실에 부합하는 표현의 중요성으로 인해 울동감, 리듬감보다 회화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익의 시에는 우리의 땅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의미있게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사실을 눈에 보이듯 회화적으로

221) 김나혜, 「茶山の 寓話詩연구」, 『퇴계학과 유교 문화』 53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310면.

표현하는 방식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가 싹트는 시대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현실에서 눈에 보여지는 진실한 것을 일상의 관찰을 통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17세기 말~18세기 전반의 白岳詩壇의 ‘眞詩’²²²⁾와 문학적 흐름을 같이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이러한 문학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익의 문학은 후대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18세기 중후반의 새로운 시단을 일으킨 이용휴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18세기 후반 시단은 公安派와 竟陵派의 시풍으로 이를 주도한 중추적인 인물이 李用休와 李德懋이다. 특히 이용휴는 이익의 조카로 그의 시적 특징은 당시 조선의 기존 한시의 격식과 미학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것을 담아내고자 하였고 사실주의적 이었으며 공안파와 경릉파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다.²²³⁾ 모방을 탈피하여 자신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낼 것을 주장한 明末 공안파와 擬古主義를 비판하고 참된 고전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경릉파²²⁴⁾의 수용은 기존 한시와는 다른 새로운 한시를 창작하게 하였다. 이용휴의 시는 소재와 내용에 있어서 載道的이면서도 실용적이며 간결미와 소박미가 있었고, 특히 ‘진실함’을 예술의 근본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眞’은 대상을 진실하게 파악하여 진실되게 묘사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하며 개성 있는 작품을 추구하였다. 이는 18세기의 권위주의를 넘고 격식을 타파하는 참신한 변화의 시풍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이용휴의 만사와 송시가 전체 시의 2/3가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형식적인 글을 생명력 있고 깊이 있는 언어로 바꾸고 있다²²⁵⁾는 점에서 이익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에 인간의 정리를 꺾진하게 묘사하고 한국의 진경을 묘사하려

222) 김형술, 「白嶽詩壇의 眞詩 研究」,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서론.

223) 안대회, 앞의 책, 229-235면.

224) 차주환, 『中國詩論』,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274-281면.

225) 안대회, 앞의 책, 268면.

한 사실적 시풍의 白塔詩派, 이에 대한 ‘朝鮮風’이라고 이컬었던 燕巖 朴趾源(1737~1805년), 더 나아가 茶山 丁若鏞(1762~1836)의 ‘朝鮮詩 宣言’에 이르기까지 실학파의 문학적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성호 이익의 시가 가지는 특징과 시대에 따른 의미를 살펴볼 때 문학사적인 관점에서 학자로서 앞선 세대를 이어주면서도 현실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 열의를 바탕으로 뒷 세대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당대 백성의 삶 속에서 그가 가진 진정한 유자에 대한 개인적 고뇌와 시대적 성찰은 과거를 이으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의 선각자적인 위치를 드러내고 있다.

V. 結 論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성호 이익의 시를 중심으로 그의 시세계와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17세기 후반 조선에 변화의 바람이 불던 시기에 성호 이익의 의식이 『星湖全集』의 개별 시 작품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과 감성,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살펴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文中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그의 정서적인 측면과 시적 특징, 이익의 시가 가지는 문학사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성호 이익은 조선 후기 근기남인 집안에서 태어나 정치적 대립 속에서 아버지 이하진과 중형 이잠이 세상을 떠나자 관직의 길을 버리고 재야 학자로서 평생 동안 저작 활동과 교육에 전념하였다. 이익은 생전에 다양한 저술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經世致用의 실학자로 자리매김 하였고 후대의 실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이익의 업적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시문학 특히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본격적인 작품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 후기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익의 생애를 밝히고 시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교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변화의 과정에서 인간 이익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았다. 그가 다양한 인물들과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 받았으며 이를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넓은 그릇됨과 학문적 포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의 문학관을 분석하였으며 經世的 效用에의

중시, 事實에 기반한 現實지향, 自主 意識의 발현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학자로서 의식의 기본 바탕을 조선 시대를 관통해온 재도주의를 통한 경제적 효용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시문학에서도 뜻, 진실을 전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시대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현실에 중심을 두고 창의적으로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주적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역사와 우리 땅, 우리 것에 대한 주체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학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만시에 드러난 의식의 지향과 교류시에 나타난 의식, 일상에의 관심과 자의식의 발현, 산수경물에 대한 애호로 구분하여 시작품을 분석하였다.

挽詩는 주변 인물들의 죽음에 대한 시로 이를 통해 인간적인 교류와 더불어 그 안에 드러나는 이익 의식의 지향을 살펴보았다. 처사로서의 삶을 살며 초야에서 드러나지 않는 진정한 선비(眞儒)인 그들의 삶과 정신을 시로 드러내 주었고, 유선(儒仙)과 같은 삶을 산 고인의 삶과 정신을 시로 표현하여 자신의 의식의 지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의 교류시를 통해 백성을 생각하는 선비의식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교류를 통한 인간적인 감정 속에는 그의 그리움의 감성이 학자로서 전아하면서도 담박하게 표현되고 있었다.

日常에의 관심과 自意識의 발현에서는 시 안에 있는 이익의 현실 인식과 선비정신, 그의 일상의 생활과 의식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재야의 삶에서 자신의 불우함을 다독이며 학문에 매진하고 스스로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는 인간적 성숙의 과정이 시를 통해 펼쳐지고 있었다. 우화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확인하였다. 일상의 자의식에서는 지식인으로서 농촌 백성들의 가난과 고통을 직접 겪으며 시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을 안타까워하는 그의 애민의식이 드러난다. 이는 주위에 대한 진지한 관찰을 통한 영물에 담겨있는 현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학의 문학적 반영으로 드러나고 있다.

山水景物에 대한 애호에서는 자연을 소재로 한 시를 중심으로 그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시적 표현을 살펴보고, 이를 東國勝景에 대한 자궁과 詩畫一如의 추구로 정리하였다. 이익의 시에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지명이 작품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우리 것에 대한 자주적 인식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다양한 감각과 회화적 표현을 통해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감성과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호 이익 작품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익의 만시에서는 진실, 정신을 강조하고 있어 형식적인 만시를 내용 중심으로 충실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만시사에 의미를 준다. 선비의식을 가지고 일상을 생활시로 드러내는 것은 이전의 심성도야의 한시에서 더 나아가 일상의 시화라는 점에서 18세기 한시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우화시를 통한 현실 비판과 풍자, 詩作에서의 현실적 소재 사용, 농민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전가시, 자주 의식이 드러나는 자연시 등은 실학 의식의 문학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후대 실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사실을 눈에 보이듯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가 싹트는 시대임을 증명하면서 후대에 나오는 다산의 ‘조선시’, 박지원의 ‘조선풍’ 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작을 열었다는데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星湖全集』의 개별 시작품을 네 가지 주제로 세밀히 분석하여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재야인이자 실학자로서의 삶을 살다간 인간 이익의 시세계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성호 이익의

시가 조선 전기를 이어주면서 후기의 시대 변화를 이어주는 출발선에 있다는 문학적 위상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성호 이익의 시문학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익의 시에 대한 다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시인 이익으로서의 모습이 한층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1. 基本資料

- 朴東亮, 『寄齋雜記』 (한국고전번역원)
李 瀾, 『星湖僿說』 (한국고전번역원)
李 瀾, 『星湖全集』 (『韓國文集叢刊』 198-200)
『國譯 星湖僿說』 (한국고전번역원)
『國譯 星湖全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2. 單行本

- 강명수·손용택, 『성호사설의 세계-역사적 사유와 지리적 해석』, 푸른길, 2015.
고정일, 『星湖僿說』, 동서문화사, 2015.
김남형, 『星湖李瀾詩選』, 예문서원, 2004.
김대중 역, 『성호사설 선집-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다』, 돌베개, 2010.
김여주, 『조선후기 여성문학의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김용걸, 『이익 사상의 구조와 사회개혁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민병수, 『韓國漢詩史』, 태학사, 2010.
송재소, 『다산의 한평생-사암선생연보』, 창비, 2014.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 안세현, 『누정기를 통해 본 한국한문산문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5.
-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2002.
- 유약우, 『中國詩學』, 明文堂, 1994.
- 윤재환, 『조선후기 근기남인 시맥의 형성과 전개』, 문예원, 2012.
- 이병주의 4인, 『漢文學史』, 새문사, 1998.
- 이병환,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2.
- 이정신, 『조선후기 조선풍 한시 연구』,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 임영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 민경길, 『북한산 03』, 집문당, 서울, 2004.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90.
- 차주환, 『中國詩論』,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최채기·정영미 역, 『성호집: 현실에서 是를 구하다』, 한국고전번역원, 2017.
- 한국한시학회, 『韓國作家研究1』, 태학사, 1995.

3. 學位論文

- 강경원, 「星湖 李瀼의 經學 思想 研究」,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김남형, 「성호 이익의 문학론과 시세계」,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_____, 「조선후기 근대실학파의 예술론 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김형술, 「白嶽詩壇의 眞詩 研究」,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박명희, 「李瀼의 海東樂府 연구-작가 의식을 중심으로-」, 전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박병익, 「16세기 三唐詩人の 唐詩風 연구」, 목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신두환, 「성호 이익의 회작시, 우화시 고찰」,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원재린, 「조선후기 이익학파의 형성과 학풍」, 연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산하, 「조선시대 유산기를 통해 본 삼각산의 경관특성 및 경관체험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세현, 「성호사설에 나타난 이익의 문학론 연구」, 경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호현, 「성호 이익의 문학론 연구」, 계명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정필준, 「1860~1870년대 근기남인의 내부갈등과 동향」, 서울시립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전호균, 「한국화 화제시에 대한 연구」, 군산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차충환, 「성호 이익의 문학연구」, 경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최석기, 「성호 이익의 시경학」,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추제협, 「近畿 退溪學의 形成에 關한 研究- 星湖 李瀼의 性理說을 中心으로-」, 계명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허종은, 「성호 이익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식」,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윤창혁, 「한글 書題詩 연구」,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 一般論文

- 구본현, 「題畫詩의 미학적 특징과 구현 원리」, 『東方漢文學』 No.49, 동방한문학회, 2011.
- 권경록, 「18세기 “三角山”의 문화지형과 공간의 재발견 -柳匡天과 申命顯의 山水遊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7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 김나혜, 「茶山の 寓話詩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53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 김남형, 「이익의 문예의식과 시세계」, 『星湖李瀼詩選』, 예문서원, 2004
- 김동준, 「星湖 李瀼의 詩文學 研究」, 『한국한시작가연구』 Vol.16, 한국한시학회, 2012.
- 김선희,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삼각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vol.21 no.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9.
- 김용란, 「성호 이익의 문학론 연구」, 『漢文古典研究』 Vol.2 No.1, 성신한문학회, 1990.
- 김인숙, 「조선조 후기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畫) 작품분석 연구 - 창작주체의 시선과 서사를 중심으로 -」, 『한국과학예술포럼』 16권, (사)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4.
- 김재룡, 「星湖 李瀼의 詩 創作論 研究 : 梅花詩를 中心으로」, 『語文論集』 Vol.50, 중앙어문학회, 2012.
- 김지영, 「조선 李瀼의 《星湖僿說》에 나타난 唐詩 평가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No.37, 중국어문논역학회, 2015.
- 김형술, 「조선후기 한시 쇄신의 방향성에 대한 소고-백악시간 시론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No.32, 국문학회, 2015

- 류연화·정일남, 「題畫詩를 통해 본 朴齊家와 杜甫의 관련 연구」, 『東方漢文學』 No.58, 동방한문학회, 2014.
- 류정민, 「조선후기 고시론의 성격과 정범조 장편고시의 수사적 특징」, 『韓國漢詩研究』 Vol.9, 한국한시학회, 2001.
- 박혜영, 「서거정의 산수도 제화시 연구」, 『배달말』 Vol.64, 배달말학회, 2019
- 신두환, 「星湖의 戲作詩, 寓話詩의 考察」, 『安東漢文學研究』 Vol.1, 안동대학교 1990.
- 여기현, 「李穡의 題山水圖詩 研究」, 『泮橋語文研究』 No.20, 반교어문학회, 2006.
- _____, 「고려 산수제화시의 전개와 특성」, 『한국시가문화연구』 35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 오성덕·무금연, 「〈烟江疊嶂圖〉에 덧붙여진 왕선과 소식의 제화시 연구」, 『중국학』 Vol.66, 대한중국학회, 2019.
- 윤재환, 「시론과 시세계의 상관관계-성호와 다산의 전가시를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 No.52, 한민족어문학회, 2008
- _____, 「星湖家 文學의 美意識」, 『東方漢文學』 Vol.0 No.49, 동방한문학회, 2011.
- _____, 「조선 후기 근기 남인 학맥」, 『국문학논집』 제21집, 2011.
- _____, 「朝鮮 後期 近畿 南人 學脈 小考」, 『국문학논집』 제21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1.
- _____, 「玉洞 李滉와 星湖 李瀾의 比較를 통해 본 星湖家 詩世界의 一樣相」, 『韓民族語文學』 Vol.62, 한민족어문학회, 2012.
- _____, 「近畿南人學統의 展開와 星湖學의 形成」, 『온지논총』 36권, 온지학회, 2013.

- _____, 「星湖 李瀾의 詩論과 星湖學 -시론 내적 간극의 해명과 성호학과
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73권, 동방한문학회, 2017.
- _____, 「詩論과 詩世界の 相關關係」, 『漢文學論集』 Vol.46, 근역한문학회, 2017.
- 이경순, 「조선후기 遊山記에 나타난 北漢山の 불교」, 『인문과학연구』
Vol.20,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 이근호, 「북한산 역사적 가치적립」, 북한산세미나, 한국한중양연구원,
2013.
- 이남면, 「17세기 中國繪畫의 流入과 그 題畫詩」, 『漢文古典研究』, Vol.27
No.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 이남중, 「宋代 題畫詩의 類型과 意境에 관한 考察 : -<聲畫集>의 美人題
畫詩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Vol.35, 한국중국어문학회, 2001.
- 이성무, 「星湖 李瀾(1681-1673)의 生涯와 思想」, 『朝鮮時代史學報』 Vol.3,
조선시대사학회, 1997.
- 이세현, 「星湖篋說에 나타난 李瀾의 문학론 연구」, 『동방한문학』 7권, 동
방한문학회, 1991.
- 이운구, 「梅月堂의 愛民意識과 詩의 성격 : 15세기 후반기 농민의 실패와
그 시(詩)의 주제」, 『韓國漢文學研究』 Vol.1, 한국한문학회, 1976.
- 이종건, 「詠物詩考」, 『士林語文研究』, Vol.1,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립어문학회, 1984.
- 이종묵, 「退溪와 星湖의 詩學」, 『국학연구』 No.23, 한국국학진흥원, 2013.
- 임준철, 「金澤榮과 張麟年의 交遊와 自挽詩-한중(韓中) 자만시 비교(3)-」,
『漢文學論集』 Vol.47, 근역한문학회, 2017.
- _____, 「陶淵明의 <擬挽歌辭三首>와 조선시대 自挽詩」, 『大東漢文學』
Vol.41, 대동한문학회, 2014.

- _____, 「『陶靖節集』과 조선시대 自挽詩 -〈擬挽歌辭三首〉의 수용 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No.36,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 _____, 「李言直과 張岱 自挽詩의 對比 연구 -한중(韓中) 자만시 비교(2)-」, 『한국시가문화연구』 No.38,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 _____, 「自挽詩의 詩的 系譜와 조선전기의 自挽詩」, 『古典文學研究』 Vol.31, 한국고전문학회, 2007.
- _____, 「自挽詩의 자아 혼성(hybrid)과 시적 정체성」, 『동아한학연구』 No.12,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17.
- _____, 「조선시대 自挽詩의 공간과 상상」,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24,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3.
- _____, 「지류(支流)와 환류(還流): 자전문학(自傳文學)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자만시(自挽詩)」, 『民族文化研究』 Vol.7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 _____, 「한국 한시에서의 도연명 <擬挽歌辭> 수용과 변주」, 『韓國漢詩研究』 Vol.21, 한국한시학회, 2013.
- 전성건, 「성호학파의 가족관과 가족생활 : 성호의 가문의식과 일상생활」, 『한국실학연구』 No.26, 한국실학학회, 2013.
- 정은진, 「성호 이익의 삼두회 소고」, 『한국어문학연구』 25, 2010.
- 조태성, 「‘조선’ 혹은 ‘조선문학’의 정체성-다산의 <老人一快事六首效香山體> 다시 읽기의 의미-」, 『감성연구』 No.1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9.
- 주기평, 「中國 挽歌詩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대한 一考察」, 『中國文學』 Vol.60, 한국중국어문학회, 2009.
- 최영성, 「星湖 李瀾의 역사인식」, 『한국철학논집』 Vol.7,8, 한국철학사

- 연구회, 1999.
- 최박광, 「성호 이익의 시론-실학과 문학관의 일단」, 『우리문학연구3』, 우리문학회, 1978.
- 崔英成, 「星湖 李瀾의 歷史認識」, 『韓國思想과 文化』 Vol.4, 한국사상문화학회, 1999.
- 하정승, 「고려 후기 挽詩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 목은 이색의 시를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No.50, 동방한문학회, 2012.
- _____, 「김삿갓의 挽詩類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특질」, 『漢文古典研究』 Vol.29, No.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4.
- _____, 「藥泉 南九萬의 한시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 挽詩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회연구』 Vol.47, 동양한문학회, 2017.
- 한윤숙, 「조선풍 한시의 사상적 배경과 성격 연구」, 『동양예술』 Vol.36, 한국동양예술학회, 2017.
- 허윤진, 「성호 이익 시 비평 연구」, 『퇴계학논집』 No.22, 영남퇴계학연구회, 2018.

ABSTRACT

A Study On Seongho Yi-Ik's Poetry

Rho Yun-sook

Department of Chinese Classics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poetic world of Seongho Yi Ik. A central figure of the Namin Silhak (Korean pragmatic philosophy) school, Seongho Yi Ik lived the 18th century, the prime time of the late Chosun Dynasty culture, while inheriting the tradition but also reading the signs of changes and dedicating his whole life to academic exploration for opening a new age. He left behind many texts as an out-of-office scholar, and his works reflect the consciousness as a classical scholar and the concerns and thought on the era.

Seongho has worked as a lifelong scholar based on his diverse curiosities and academic passion, and The Complete Works of Seongho (Seonghojeonjip) published with a collection of his poetry, prose, and written books could be called a definitive compilation of the Seongho

thought. In *The Complete Works of Seongho*, numerous Chinese poems, encompassing 631 titles and 1178 pieces, remain, and these confirm that he expressed his emotions and shared his mind with others through such poems. A great deal of existing studies primarily discussed the thought and philosophy of Seongho, but this study looked into another aspect differing from the existing image of Seongho by resorting to the expression of emotions through poems.

Therefore, by analyzing works around the individual poems included in *The Complete Works of Seongho*, I attempted to examine how the academic diversity of Yi Ik developed through the poetry literature and what kind of characteristics were presented in the poetic sentiment contrary to the previous study of Korean pragmatic philosophy.

In this paper,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late Chosun Dynasty and the life of Yi Ik were first investigated, and then his relations of exchange were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poetry works. Through this, I followed the trajectory of the life of human Yi Ik in the process of shifts in the late Chosun Dynasty. In addition, based on the outcomes achieved so far, I analyzed his literary view and organized it as the valuing of governing utility, fact-based reality orientation, and the manifestation of independent consciousness. He laid the basic foundation of his consciousness as a scholar on the governing utility through the principle of morality-carrying literature that had penetrated the Chosun Dynasty. Thus, he placed significance in conveying intention and truth in literature as well. Besides, as a result of contemplating the times, he put emphasis on making a creative delivery by focusing on the reality and

basing on the facts; it is evident that he had an autonomous perspective of our history, our land, and our things on the grounds of an independent consciousness amid the stream of times.

Next, the poetic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through an analysis of specific poetry works. The poems were analyzed by classifying the content into the orientation of consciousness exhibited in the condolatory poems and the consciousness showed in exchange poems, the interest in everyday life and the manifestation of self-consciousness, and the penchant for mountains, waters, and seasonal sceneries.

Condolatory poems deal with the deaths of the surrounding figures, and through these poems, I looked into his human exchanges, along with the orientation of Yi Ik's consciousness portrayed in them. The poems were found to embody his consciousness of trying to discover a true Confucian in a hidden remote village while living as an out-of-office scholar and the adoration for a Taoist-like Confucian scholar. Moreover, his exchange poems illustrated a scholarly consciousness of caring for the people, and the human emotions amidst the exchanges conveyed refined expressions of his longing.

As for the interest in everyday life and the manifestation of self-consciousness, the works were analyzed centering around Yi Ik's awareness of reality, his scholarly spirit, and the expressions of his everyday self-consciousness within the poems. The personal maturation process of consoling his ill fate in life out of office, striving for studies, and having pride in himself is unfolded in the poems, and a critical awareness of the social reality is expressed through an allegory. In

regards to the everyday self-consciousness, the poems demonstrate his love for the people in which he objectively depicts and laments over the poverty and suffering of rural people that he has firsthand experienced as an intellect; furthermore, they display an interest in the reality contained in the poeticizing of objects through a serious observation of his surroundings and the literary reflection of Korean pragmatic philosophy.

For the penchant for mountains, waters, and seasonal sceneries, I examined his perception and poetic expressions of beauty by focusing on the poems that have nature as the subject matter, and this was sorted as the pride in remarkable places in Korea and the pursuit of the oneness of poetry and painting. The poetry of Yi Ik discloses the specific geographical names of places in Korea, which confirms his independent consciousness towards what is ours. Not only that, he vividly delineates the beauty of nature through diverse senses and pictorial expressions, allowing us to verify his character as a poet. The method of expressing facts pictorially as if they are visible based on an independent consciousness proves that it was an age when the beautiful nature of Gyeongju Jeongseon was budding and holds literary significance in playing the role of opening the door for Dasan's Chosun-Poem, etc. that would come in the later generations.

Through individual poetry works, this paper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etic world and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human Yi Ik who was an out-off-office scholar and Korean pragmatist in the late 17th century, and such probing substantiated his literary stature of connecting

the shifts in the late Chosun Dynasty. I hope this paper will be helpful in the study of the literary aspects of Yi Ik, and I look forward to an even broader range of research on Seongho Yi Ik as a literary figure.